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제3수>

좌수(左手)의 잡은 춘광(春光) 우수(右手)로 옮겨 니어
농부가 흥을 계워 수답(水畓)의 이종(移種)하니 *
아마도 성세낙민(聖世樂民)은 이뿐인가

[현대어 풀이]

왼손에 잡은 봄빛[모종] 오른손으로[대구법, 왼손'에'를 '으로'로 바꾸면 대구법이 성립한다. 왼손으로 잡은, 오른손으로 옮겨] 잡은 옮겨 내어

농부가 흥에 겨워[흥을 이기지 못 해] 물이 찬 눈에 모종을 옮겨 심으니

아마도 성세낙민[태평한 세상에서의 즐거워하는 백성]은 이뿐인가[종장의 마지막 음보, 하노라가 생략, 조선 후기 시조창의 방식에 따름]

▶ 봄 - 모내기의 흥겨움

<제4수>

초운(初耘) 재운(再耘)['운'은 김매기-농사를 위한 제초] 풀 밀 적의 저 농부 수고한다[격려]

스립[도롱이-비옷와 샷갓] 쓰고 호미 들고[대구법] 상평(上坪) 하평(下坪) 분주하다

아마도 실시(失時)하면 * 일 년 심이 허사(虛事)인가[때를 놓치지 말고 풀을 매라, 농삿일을 해라]

[현대어 풀이]

초운['운'은 김매기] 재운[처음 풀을 뽑고 또 풀을 뽑으며] 풀 맬[뽑을] 적에 저 농부 수고한다

사립 쓰고 호미 들고 상평[위의 논] 하평[아래의 논] 분주하다

아마도 때를 놓치면 일 년 생애[일년의 농사] 허사인가

▶ 여름 - 김매기를 하는 수고와 농부에 대한 훈계

<제5수>

근고(勤苦)하여 * 심은 오곡(五穀) 날 가물어 근심터니

유연 작운(油然作雲) * 오신 비의 피는 이삭 거룩하다

아마도 우순풍조(雨順風調) * 성화(聖化) * 신가

[현대어 풀이]

마음과 몸을 다하며 애써 심은 오곡[다섯가지 곡식] 날 가물어 근심하니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른 후 오는 비에 패는[패다: 곡식의 이삭 따위가 나오다] 이삭이 거룩하다[소중하다]

아마도 비가 때맞추어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부는 것은 임금의 덕이신가[예찬적, 한자어 사용-작자층이 양반이라는 증거.]

▶ 여름 - 조화로운 자연과 임금의 덕 예찬

<제6수>

백로(白露) 상강(霜降) 다닷거든 낮 가려 손의 들고

지계 지고 가서 보니 백곡(百穀)이 다 익었다

지금의 실시(失時)한 농부야 일어 무삼 [종장의 마지막 음보, '하리'가 생략, 조선 후기 시조창의 방식에 따름]

[현대어 풀이]

백로[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절기, 가을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 상강[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가을을 나타내는 계절적 배경] 왔거든 낮 갈아 손에 들고

지게 지고 가서 보니 백곡[모든 곡식]이 다 익었다

지금 때를 놓친 농부야 말해 무엇하리

▶ 가을 -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와 훈계

<제7수>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등(豐登)하니 *

우순풍조(雨順風調) 아니런들 함포고복(含哺鼓腹) * 어이 하리[설의법]

아마도 국태평(國太平) 민안락(民安樂)은 금세(今世)신가

[현대어 풀이]

일 년을 수고하여 백곡이 풍성하니

비가 때맞추어 내리고 바람이 고르게 불지 아니하면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리는 것[태평성대]을 어찌 하겠느냐

아마도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안락한 것은 지금인가[유교적 이상 국가의 모습, 유교적 가치]

▶ 가을 - 풍년의 즐거움과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

<제8수>

그대 추수(秋收) 얼마 헨고 니 농사 지은 거슨

토세(土稅) 신역(身役) 바친 후의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 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려

[현대어 풀이]

그대 추수 얼마나 했는가 내 농사 지은 것은

토세[땅에 매기는 세금] 신역[나라에서 부과하던 군역과 부역] 바친 후에 몇 섬이나 남을는지

아마도 다하고 나면 겨울나기 어렵겠구나[종장의 마지막 음보, '울새'가 생략, 조선 후기 시조창의 방식에 따름]

▶ 토세와 신역으로 인한 어려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농무, 상행 등의 현대시와 연계하여 출제할 수 있음]

- 이세보, 「농부가(農夫歌)」

▣ 작품 해설 1

■ 해제 : 이 작품은 왕실의 종친으로 철종과 고종 시대에 활동했던 경평군 이세보가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어려움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세도 정치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백성의 교화를 통한 사회 질서의 안정을 추구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주제 :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농부의 임무

■ 구성

- 연시조 (전 12수) : 전반부 7수, 후반부 5수
- 전반부 : 봄, 여름, 가을 각 2수
- 후반부 : 농부의 삶에 대한 어려움 2수, 교훈 3수
- 제재 : 농사일, 교화
- 갈래 : 연시조,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 성격 : 교훈적, 경세적, 사실적, 찬양적, 비판적

- 제3수: 모내기의 흥겨움
- 제4수: 김매기를 하는 수고와 농부에 대한 훈계
- 제5수: 조화로운 자연과 임금의 덕
- 제6수: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
- 제7수: 풍년의 즐거움과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
- 제8수: 토세와 신역으로 인한 어려움

■ 특징 1

각 수의 내용은 계절에 따라 요구되는 농사일들을 소개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시간적 배경에 따라 각 수의 내용이 달라짐.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공통적으로 농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중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나 판단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3장으로 구성된 시조의 발화 양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임.

<제3수>와 <제4수>에는 ‘좌수’와 ‘우수’, ‘사립’과 ‘호미’ 등을 이용한 대구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찰하고 있는 대상인 농부들의 외양과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제5수>에는 가뭄으로 인한 근심이 적당히 내린 비에 의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음.

<제6수>에서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가 드러남.

<제7수>의 중장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자연의 고마움을 강조하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

<제8수>에서 추수를 하고도 세금 걱정에 근심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드러냄.

■ 특징 2

- 대구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주어 효과적으로 표현
- 농부들의 모습과 움직임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제시
- 절기에 따른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
-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습을 제시
- 연행의 방식에 따라 각 수의 종장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여 여운을 남김
- 초장, 중장은 구체적 상황을, 종장은 화자의 생각, 태도를 드러내어 종합함.

■ 특징 3

- 계절적 배경에 따른 시상전개로 향토적이고 구체적임.
-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남.
- 농촌 생활의 부지런한 활동을 실감 있게 제시함.
- 교훈적, 계몽적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이내 生涯(생애) 엇더하고.

속세의 티끌.속세 문헌 (기)무치다 생활.살아가는 모습

동의어:속세,하계(下界) 무틴>무친(구개음화)

풍진(風塵),인간,사바(娑婆) 15세기:무틴

넋 사름 風流(풍류)를 미출가 못 미출가.

운치가 높은 취미 생활 미칠까 (기)밧다 '못'의 오기(誤記). 15세기:'못'

⇒표면적으로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속으로는 ('은근한 자부심')을 나타냄.

天地間(천지간) 男子(남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나만한 많건마는 (기)하다

山林(산림)에 못쳐 이셔 至樂(지락)을 모름 것가.

자연 문혀 사는 지극한 즐거움 (왜)모르는 것인가

(기)모르다. '모르다'는 '모르다'의 오기(誤記)

⇒시적 자아의 정서: 모르는 남들에 대한 ('안타까움')

數間茅屋(수간 모옥)을 碧溪水(벽계수) 앞피 두고,

초가집.띠집.'茅'는 '띠(풀이름)' 앞에. 15세기:알피

⇒(안빈낙도)의 정신과 관련됨. (문)앞(명사)+이(처소부사격 조사)

⇒ 배산임수(背山臨水:산을 등지고 물을 앞에 둠)의 풍치 속에서 즐기는 (안빈낙도) 의 생활을 뜻함.

松竹(송죽) 鬱鬱裏(울울리)에 風月主人(풍월주인) 되여셔라.

울창한 속에 인) 자연속에 살아가는 사람 되었구나

'風月'은 淸風明月의 준말로써 '자연'을 뜻하며,

이 글의 주제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서사: (隱逸之士(은일지사))의 기상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어제'와 '그제'의 합성어 겨울>겨울>겨울

'엇'은 8종성법에 따른 표음적 표기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뛰어 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 석양 속에. 저녁 햇빛 속에 피어.(기)튀다

綠楊芳草(녹양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 가랑비 속에.

'細雨'의 고유어는 (ㄱ)는 비(細雨),

(ㄱ)는 비(粉雨) 등이 있었다.

⇒『 』: 봄경치의 사실적 묘사. 표현 기법:(대구법, 대조법, 영탄법)

.아름다운 봄경치를 노래하기 위하여 선택된 소재: (桃花杏花, 綠楊芳草, 새)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뜻:(말라서, 재단하여) (기)모르다(裁) 내었는가. 주제:(조물주)

모르(어간)+아(종속적 연결어미)→몰아(설측음화)

⇒『 』: 봄경치에 대한 (경탄). 표현 기법:(대구법, 영탄법.)

造化神功(조화 신공)이 物物(물물)마다 현스럽다.

조물주의 신령스러운 솜씨 야단스럽다. 굉장하다.

명사·형사(喧辭, 喧:떠들썩할 喧)에서 파생된 형용사.

헌스(명사)+롭다(형용사 파생 접미사)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못내 계워
뜻:(끝내. 내내 이기지 못하여)
‘못내’의 誤記. 15세기: 못내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아양떠는 모습이로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 』: 작자의 춘흥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부분은 (6음보)로 1행을 이룬다. 시적 자아의 흥겨운 심정이 (‘새’)에 (감정이입(感情移入))되어 있다.

본사 1: (봄 경치) 봄의 흥취(춘흥)

物我一體(물아 일체)어니, 興(흥)이이 다룰소나.

자연과 내가 한몸이거니. (‘ㄱ’탈락) 흥이야. ((새와 나의) 흥)이 다룰소나? (설의법)

물심일여(物心一如). 物=새. ‘이이’:강세 보조사

⇒(작자의 정서)

『柴扉(시비)에 거러 보고, 亭子(정자)에 안자 보니.』

사립문에. ‘예’는 ‘ㅣ’모음 아래에서 모음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매개 자음이 첨가된 형태.

⇒『 』:(유유자적)하는 삶의 모습.

逍遙吟詠(소요 음영)하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하니,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으면서 산속에서 지내는 나날. 조용하고 쓸쓸한데.

⇒(삶의 모습, 태도)

閑中眞味(한중 진미)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한가한 가운데의 참된 맛(즐거움). 알 사람 혼자이로다.

⇒(삶의 맛, 즐거움) 알(어간)+르(관형사형 어미) 흥(사)>호(사)>호(사)

+이(의존 명사) →알 이 호자>혼자

⇒ 작자의 정서: (흥겨움) → (적적함, 고독감.)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자스라.

이웃들아 가자꾸나. 가(어간)+자스라(청유형 어미)

踏青(답청)이란 오늘 호고, 浴沂(욕기)란 來日(내일)호새.

청명절에 교외에서 산책하며 물놀이. ⇒ (안빈낙도의 생활을 연상시킴.)

화조를 즐기. 답청절 = 삼진날 욕기: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말

뜻: (삼진날의 들놀이) ‘공자’와 ‘증점’의 고사.

아침에 採山(채산)호고, 나조히 釣水(조수)호새.

뜻:(산나물을 캐고) 뜻:(저녁에) 뜻:(낚시질하세.) 釣水魚의 준말

採山菜(채산채)의 준말. (분)나조호(ㅎ받침 체언)+이(조사)

본사 2 : (상춘취락(賞春醉樂)) (봄을 완상하며 즐거움에 취함) 산수 구경 권유

『갓 꺾어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帛타 노코,

이제 막 (꺾어.발효하여) 처사가 쓰던, (걸러.발아)

갓 갈포로 만든 두건. (기)발다. ‘바타’의 거듭적기.

⇒중국의 도연명이 갈건을 벗어 그것으로 걸러 마셨다는 ‘갈건녹주(葛巾녹酒)’에서 인용한 말로 (소탈한) 성격과 (시속(時俗)에 얽매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꽃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꽃나무 꺾어 (기)졌다. 산(算)가지를 놓고.

(셈하면서.수를 세어 가며)

⇒『 』: (풍류를 즐기는 태도)가 돋보임. 정철의 사설시조 (‘장진주사’)의 ‘꽃것거 算노코 무진무진 먹새그려’와 유사함.

和風(화풍)이 건듯 부러 綠水(녹수)를 건너오니,

봄바람.和風=春風=東風 건듯.문득

『清香(청향)은 잔에 지고, 落紅(낙홍)은 옷새 진다.』

맑은 (꽃)향기 떨어지고 낙화(落花).떨어지는 옷에. 떨어진다.
붉은 꽃잎. 15세기:오새 15세기:디누다

⇒ 아름다운 (봄경치)와 (춘흥)에 흠뻑 젖어 있는 경지. 거듭적기.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후각의 시각화). 복합감각적 심상:(후각+ 시각적 심상.)

음주 취흥

樽中(준중)이 뷔였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술동이 속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말하여라.
(기)뵈다 (기)알외다(사동사)

小童(소동) 아히드려 酒家(주가)에 술을 물어,
아이에게(의미 중복) 술이 있는가 물어

얼운은 막대 잡고, 아히는 술을 메고,
어른.(‘얼다(嫁)’ 지팡이.원뜻은 ‘막대기’의 파생 명사) 15세기:막다히>막다이>막대

微吟緩步(미음 완보)하야 시냇 7의 호자 안자,
나직이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거닐어 시냇가에(15세기:시냇 7새) 혼자
⇒(삶의 태도)를 보여줌

明沙(명사)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곱고 깨끗한 모래 깨끗한 물에.(물:水,물:衆) 씻어. 15세기:브서
(분)좋(어간)+은(관형사형 어미) 15세기:시서(규칙 동사)

※좋다(淨):깨끗하다 동다(好):좋다

清流(청류)를 굽어보니, 띄오느니 桃花(도화)ㅣ로다.
맑은 냇물 15세기:구버보니 (떠오는 것이.)
(분)띄오(동사 어간)+느(현재시제 선어말어미)
+L(관형사형 어미)+이(의존 명사)

武陵(무릉)이 갖갑도다, 저 미이 권 거인고.
무릉도원(武陵桃源)의 준말 들이. 그것인.(분)그(대명사)+ㅣ(서술격
도연명의 ‘도화원기’에 나오는 말. ‘미하’의 ㅎ탈락 조사)+L(관형사형 어미)
⇒(별천지, 이상향) ※미 ㅎ:들(野).외 ㅎ:산(山)

냇가에서의 취락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를 부치 들고,
소나무 숲 사이 (오솔길에) 진달래꽃을 붙잡아 들고
15세기: 7눈길(細路) ※가눈길:行路 부여 잡고

峯頭(봉두)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산봉우리 속에
(분)속(명사)+의(처소 부사격 조사)

千村萬落(천촌 만락)이 곳곳이 버려 있네.
(수많은 마을이) 벌여 있네. 널리 있네.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뻗는 듯.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살. 곧, 수놓은 비단 짝 펼친(펼쳐 놓은) 듯
⇒(아름다운 경치.) 원관념:(연하일휘) ‘재’는 강제 접두사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有餘(유여)홀샤.
원관념:(겨울 들판(은유법) 넘치는구나(감탄형)

산에서의 취흥(취락)

『功名(공명)도 날 싹우고, 富貴(부귀)도 날 싹우니.』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냄. (꺼리고.) 꺼리니(기)싹우다
공리와 명예.

⇒『 』: 세속의 온갖 (부귀 공명)을 멀리 하고 (청빈)한 생활 속에서 (자연)을 벗하여 살아 가는 선비의 초연한 심경

을 나타낸 것이다.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란 뜻으로 15세기:버디 있을까.

⇒(‘맑고 아름다운 자연.’). 표현 기법:(대유법)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하니.

(가난한 시골 생활). ‘단표’는 ‘단사표음’ 흡어진. 번잡한 생각 곧 (잡생각)

(簞食瓢飲:도시락 밥과 표주박 물)의 준말로 ‘혜음’:생각.(분)혜(동사 어간=어근)+음(명사 파생

‘가난한 음식과 생활’을, ‘누항’은 누추한 거 접미사)→ 파생어. *혜다>생각하다.

리를 뜻하나, 여기서는 자기가 사는 마을을 낮 15세기:험. 15세기 명사형:혜음

추어 일컫는 말. 즉, 빈촌(貧村)을 말함.

『아모타 百年行樂(백년 행락)이 이만흔들 었지헝리.』

아무튼 (한평생 살아가는 즐거움)→ 결사의 핵심어이다.

⇒ 시조의 종장과 음수율이 같다. 이러한 가사를 (정격 가사)라 한다.

결사: (안빈낙도(安貧樂道))

▣ 작품 해설

▶ 지은이 : 정극인(丁克仁 1401-1481) 조선 전기 문신·학자. 호는 불우현. 세종 때 등과하지 못하고 세종의 흥천사 토목 공사에 항의하다가 복도로 귀양, 그 뒤에 풀려나 전라도 태인에 불우현이라는 정자를 짓고 은거, 문종 때 6품 벼슬을 제수 받았다가 단종 때 급제, 이어 단종이 세조에게 양위하자 벼슬을 사임하고 태인에 다시 은거, 그 후 다시 출사하여 10년 간 여러 관직을 거쳐 1470년(성종 1년) 치사, 귀향 후 추진 양성에 힘썼다. 영리에 힘쓰지 않고 교육에 힘썼다고 성종이 3품 산관의 은영을 내리자, 이에 감격하여 ‘불우현곡’과 ‘불우현가’를 지어 송축하였다.

- 갈래 : 서정 가사. 정격 가사. 양반 가사
- 연대 : 성종 때
- 율격 : 3.4조 4음보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구성 : 서사, 본사[춘경(春景)·상춘(賞春)], 결사의 3단 구성
- 성격 : 주정적, 서정적
- 주제 : 봄의 완상(玩賞)과 안빈낙도(安貧樂道)
- 형태 : 39행, 79구, 매행 4음보(단 제 12행은 6음보)의 정형 가사로, 4음보 연속체의 율문
- 표현상의 특징 : 설의법, 의인법, 대구법, 직유법 등의 여러 표현 기교를 사용하고, 고사를 많이 인용하면서 작품 전체를 유려하게 이끌고 있다.
- 내용상의 특징 : 봄을 완상(玩賞)하고 인생을 즐기는 지극히 낙천적인 내용이다.
- 전개 과정 : 화자는 좁은 공간(수간모옥)에서 점점 넓은 공간(들판, 산 위)으로 나아가는 공간 확장에 의한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의의 : 조선 시대 사대부 가사의 첫 작품. 산림 처사로서의 생활을 은일 가사의 첫 작품으로 사립파 문학의 계기를 마련한 작품이다.

▶ 단락 연구

紅塵(홍진)에 못친 분네 - 風月主人(풍월 주인) 되여셔라. : 화자는 속세에 사는 사람들인 ‘홍진(紅塵)에 못친 분’과 ‘천지간 남자’와 대조되는 존재인 동시에 ‘넋 사름’과 비교되며 ‘풍월주인(風月主人)’과 등가(等價)의 존재이다. 이러한 화자가 세속을 떠나 안주하는 공간으로 정한 곳이 ‘수간모옥(數間茅屋)’이다. 자연 속에 묻힌 화자가 되돌아보는 ‘홍진에 못친 분’은 세속의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고, ‘천지간 남자 몸’은 세속 공간을 싫어하면서도 그 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내 생애’와 다른 공간에 있는 이들의 삶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지니고 있기에 화자는 이들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한다. 그러기에 화자가 찾는 위안은 ‘넋 사름’의 풍류요, 세속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풍월주인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길이 있을 뿐이다. 수간모옥(數間茅屋)의 배경인 ‘벽계수(碧溪水)’는 자연 친화를 ‘송죽(松竹)’은 청빈한 삶을 떠받쳐 주는 매체들이다. 그러므로 ‘수간모옥’은 성(聖)과 속(俗)의 경계 공간이다.

엇그제 겨울 지나 -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 눈부신 아침 햇살 속에 밝게 전개되는 춘경이 아니라 밝음과 어둠의 경계인 석양에, 그리고 밝음을 차단하며 하강하는 가는비 중에 더욱 아름답고 푸르게 보인다. 이처럼 명암을 공유하고 있는 조물주의 위대한 창조물인 춘경(春景)은 수풀에 우는 새를 통하여 그 양면성이 더욱 극명해진다. 겨울과 여름의 시간적 경계인 새봄과 연관되는 이 새는 땅과 하늘의 매개향으로서, 인가 근처에 서식하며 지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어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 공간을 들락거리는 화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다.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 업시 호재로다. : 춘경에 몰입했던 내면 세계는 사립문을 거닐다가 외부 공간인 정자로 향한다. 그리고 산 속의 하루는 소요음영(逍遙吟詠)하고 한중진미(閑中珍味)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적적하고 혼자인 고독한 공간이다. 화자는 보다 더 광활한 외부 세계로의 탈출을 시도하게 된다.

이바 니웃드라 - 釣水(조수)호새. : ‘산수 구경’은 외부 세계로의 탈출을 위한 행위이고, 결국 자연 친화이다. ‘답청(踏靑)’과 ‘욕기(浴沂)’는 정치적 야심을 버리자는 다짐이고, ‘채산(採山)’과 ‘조수(釣水)’는 부귀 공명을 탐하지 말자는 의지의 표출이다.

궂 괴여 - 옷새 진다. : 술을 갈건으로 걸러 취하도록 마시겠다는 것은 홍진을 미련 없이 털어 버리고 도연명의 ‘갈건

녹주(葛巾綠酒)하는 행락을 본받겠다는 다짐이다. 술은 도연명이나 이백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대부가 현실을 벗어나 이상향을 찾을 수 있는 도구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樽中(준중)이 뷔였거든 - 권 거인고. : 도연명처럼 시냇가로 가서 술을 마시며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꽃이로구나.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 봄빛도 有餘(유여)홀사. : 봉두에 급히 오르는 행위는 화자가 한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적극적인 상승 운동이다. 그리고 구름 속에 앉아(사실, 구름 속에 앉는 화자는 신선의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속세를 바라보니 비단을 펼친 듯, 봄빛이 흘러 넘친다라고 한 것은 화자가 그 동안 겪었던 갈등을 극복하였다는 의미이다.

功名(공명)도 날 - 이만흔들 엇지허리. : 이제 완전히 부귀와 공명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진 화자는 비록 '단표누항(簞瓢陋巷)'의 빈한한 처지이지만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고 자연 귀의와 안빈낙도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전문 풀이

(기)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 나의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옛 사람의 운치 있는 생활을 내가 따를까, 못 따를까? 천지간 남자로 태어난 몸으로서 나와 같은 사람이 많건마는, 어찌하여 그들은 나처럼 산림에 묻혀 사는 자연의 지극한 즐거움을 모른단 말인가? 초가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송죽이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다.(풍류 생활의 기상)

(승) 엇그제 겨울 지나 재 봄이 돌아오니, 복사꽃 살구꽃이 석양 속에 피어 있고, 푸른 버들 꽃다운 풀은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조물주의 신기한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숲 속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모습이로다.(봄 경치)

물아일체어니, 흥이야 다르겠는가? 사립문 주변을 걸어 보기도 하고, 정자에도 앉아 보며, 이리저리 거닐며 나직이 시를 읊조려, 산 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움 속의 참다운 즐거움을 아는 이 없이 나 혼자로구나.(봄의 흥겨움)

(전) 여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책은 오늘 하고, 냇가에서 목욕하는 일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에서 나물을 캐고, 저녁에는 고기를 낚세.(권유)

이제 막 익은 술을 두건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잔 수를 세면서 술을 먹으리라. 화창한 봄바람이 문득 불어 푸른 들을 건너오니, 맑은 향기는 술잔에 가득하고, 붉은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알려라. 아이에게 술집에 술이 있는지 물어 술을 사다가, 어른은 지팡이 짚고, 아이는 술동이를 메고, 나직이 흥얼거리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바닥을 흐르는 맑은 물에 잔을 씻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복숭아꽃이로구나. 무릉도원이 가까운 듯하다. 아마 저 들이 무릉도원인가?(음주)

소나무 숲 사이의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으니, 수많은 촌락은 여기저기 벌여 있고 안개와 놀과 빛나는 햇빛은 비단을 펼친 듯 아름답구나. 엇그제 거뭇거뭇한 들에 봄빛이 넘쳐흐르는구나.(선경)

(결) 부귀공명이 날 꺼리니(내가 부귀공명을 싫어하니) 아름다운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으리오. 누추한 곳에서 가난한 생활을 하여도 잡념은 아니하네. 아무튼 한평생 즐겁게 지내는 일이 이만하면 족하지 아니한가?(안빈낙도)

▶ 작품 해설

'상춘곡(賞春曲)'이란 '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노래'란 뜻이다. 우리 나라 가사 문학의 효시라고 평가되는 이 작품을 통하여 가사의 형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아울러 안빈낙도(安貧樂道)하던 선인(先人)들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다.

39행, 79구, 매행 4음보(단, 제 12행은 6음보)의 정형 가사이며 양반 가사인 이 작품은 산중에 거처하며 봄날의 흥취에 한껏 젖어 온갖 풍류의 즐거움을 느낀다. 높은 산에 올라 수많은 마을을 바라보니 더욱 아름답다. 이러한 자연의 품 안에서 부귀와 공명을 욕심 내지 않고 청풍과 명월을 벗하는 안빈낙도의 생활 자세를 지니며 살아가겠다는 내용의 '상춘곡'은 가사 문학의 첫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 말의 승려인 나옹화상 혜근(懶翁和尚惠勤)이 지었다는 '서왕가(西往歌)'가 이 갈래 문학 작품의 시작이라는 학설도 있다.

한편, 이 노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은일 가사(隱逸歌辭)의 첫 작품으로, 또한 송순과 정철로 이어지는 호남 가단(湖南歌壇) 형성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서사, 본사, 결사로 나누어 감상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紅塵에-되여서라) : 전문의 서사로 명리(名利)를 떠나서, 자연에 묻혀 고답적(高踏的)인 생활을 하는 즐거움을 낙천적인 시풍으로 표현하였다.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가운데 배산임수(背山臨水)로 초가삼간을 지어 놓고, 자연에

몰입하여 유유자적(悠悠自適)하는 작가의 모습을 한 폭의 신선도(神仙圖)를 펼쳐 놓은 것 같다.

본사1(엇그제-호재로다) : 복숭아꽃과 살구꽃, 푸른 버들과 꽃다운 풀은 분명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미술품 같은데, 작가는 이런 봄 경치에 도취되어 집 앞을 거닐며 앉으며 읊조리면서 한중진미(閑中眞味)를 만끽하고 있다는 것이다. 봄을 맞는 흥겨운 기분이 잘 드러나 있다.

본사2(이바-有餘흥사) : 무릉도원처럼 느껴지는 춘경(春景) 속의 흥취를 노래한 것으로, 진달래꽃을 꺾어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가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한 봄 들과 촌락을 바라보는, 작가의 자연에 몰입한 청아(淸雅)한 품모가 잘 나타나 있다.

결사(功名도-엇지허리) : 부귀공명 따위는 세속적인 것과는 인연이 없고, 다만 아름다운 자연만이 나의 벗이다. 이 속에서 안빈낙도(安貧樂道)하면서 평생을 지내는데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을 리 없다. 중국 상대의 은사(隱士)의 생활을 방불케 한다. 배경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유교적인 청빈 사상(淸貧思想)이다. 이 노래 전체의 결사로서 작가의 낙천적인 인생관이 잘 반영되어 있다.

▶ 심화 학습 자료

■ ‘상춘곡’의 표현상 특징

대유법 : 山林(산림). 風月主人(풍월 주인). 淸風明月(청풍 명월)

대구법 : 桃花杏花(도화 행화)는 夕陽裏(석양리)에 뛰여 있고, 綠楊芳草(녹양 방초)는 細雨中(세우 중)에 프르도다. 외다수

의인법 : 칼로 밀어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감정 이입법 : 수풀에 우는 새는 春氣(춘기)를 뭇내 계워 소리마다 嬌態(교태)로다.

상징법 : 씨오느니 桃花(도화)이 로다. 武陵(무릉)이 갓갓도다.

직유법 : 煙霞日輝(연하 일휘)는 錦繡(금수)를 재뻬는 듯.

설의법 : 淸風明月(청풍 명월) 外(외)에 었던 벗이 잇스올고.

■ ‘상춘곡’의 내용상 특징

(1)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여타의 가사 작품들이 임금의 은혜를 언급하고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는 데 비해 이 작품은 군은(君恩)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 이는 작가 정극인이 벼슬살이를 다한 연후에 창작했기 때문에 다시 중앙 관리로 등용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관직에 대한 욕심도 없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송순의 ‘면앙정가’나 정철의 ‘관동별곡’을 살펴보면 연군의 정과 군은에 감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2) 이 작품의 작가는 청운의 뜻을 품은 청운객이 아니라 은일지사가 상춘을 음영하고 취락한 내용이다. 표현은 매우 사실적이고 대구법, 의인법 등을 구사하여 곡진하게 묘사된 서정 가사이다. 이 은일성(隱逸性)의 강호 한정 가사의 영향 관계는 ‘상춘곡’-‘면앙정가’-‘성산별곡’으로 이어졌다.

■ ‘상춘곡’에 얽힌 문제

사적(史的) 위치 - 최초의 가사치고는 너무 세련된 형식이어서 가사 문학의 효시라고 하기 어렵다. 가사의 효시는 고려말 나옹화상의 ‘서왕가’라는 견해도 있다.

작가 - 문헌적 방증이 없어 정극인의 작품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 ‘상춘곡’에 대한 평가

이 작품은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에 묻혀 사는 은퇴한 관료의 생활을 읊은 대표적인 작품이다. 서사에는 화자의 대자연의 주인된 기쁨과 여유 있는 생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으며, 또한 세속에 허덕이는 속류(俗流)를 비웃듯 청아한 뜻이 낙천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본사에서 우리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우아미(優雅美)’가 창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정병욱)

산림 처사로서의 삶을 다루는 은일 가사는 부귀와 공명을 꺼리니 청풍이나 명월 아닌 다른 벗이 없다고 해서 내심을 드러낸다. 즉, 밀려나서 은거를 하는 것이 바라지 않던 바일수록 자신이 신선인 양 자부하고 세속적 먼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없다고 해야 심리적 균형이 맞는다.(윤재호)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 구성

서사		제월봉과 면앙정의 형세
본사	1	면앙정에서의 승경 조망
	2	면앙정의 사시가경
결사		작자의 풍류 생활

【서사】 ① 제월봉의 산세와 면앙정의 모습

无等山(무등산) ① 활기 뒤흠 동 ①다히로 버더 이셔 멀리 쟈쳐 와

↳ 줄기(支脈) ↳ 쪽, 편 ↳ 떼어버리고 나와

②齊月峯(제월봉)이 되여거늘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모습 짐작 호노라

↳ 끝없이 넓은 들판 ↳ 생각

↳ 우뚝우뚝(무더기무더기)

일곱 구비 흠디 움쳐 므드므드 버렸는 듯. 가운데 구비는 굽이 든 ③늘근농이

↳ 구멍 ↳ 움츠리어 ↳ 벌여 놓은 듯 ↳ 제월봉

선잠을 곯 씨야 머리를 언쳐시니 너르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혀고

↳ 엮어 놓은 듯 하며 ↳ 헤치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구름 툇 靑鶴(청학)이千里(천리)를 가리라 두④노래 버렸는 듯.

↳ 앉혀 놓았으니 벌린 듯 하다 ↳ 면앙정의 지붕 ↳ 두 날개 벌린 듯 하다

※ 제월봉의 형세 ↳ 높은 용의 머리에 비유

※ 면앙정의 모습 ↳ 날개 편 청학에 비유

[현대어 풀이]

무등산 한 줄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무등산을) 멀리 떼어 버리고 나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끝없는 넓은 들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일곱 굽이가 한데 움츠리어 우뚝우뚝 벌여 놓은 듯, 그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높은 용이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엮어 놓은 듯 하며, 넓고 편편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혀 놓았으니,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 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듯 하다.

【본사 1】 ② 면앙정에서 바라보는 주위의 경치 (공간적 구성)

1-1 면앙정 앞을 흐르는 물

끊임없이(원-부지런히 힘써 그치지 않는 모양)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亭子(정자) 앞 너븐 들히 울울히

↳ 펼쳐져 있으니 ↳ 기다마나(기노라말고)

퍼진 드시 넓혀든 ①기노라 푸르거든 희디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어드러로 가노라 ②므슴 일 비얏바 돈는 듯 썩로는 듯

↳ 비단 ↳ 가득 펼쳐 놓은 듯

↳ 바빠 ↳ 달려 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낫으로 흐르는 듯

※ 시냇물의 가경(佳景) : [근경(近景)]쌍룡 ⇨ 시냇물의 비유

[현대어 풀이]

옥천산 용천산에서 내리는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끊임없이 (잇달아) 퍼져 있으니, 넓거든 길지나, 푸르거든 희디나 말거나 (넓으면서도 길며, 푸르면서도 희다는 뜻), 쌍룡이 몸을 뒤트는 듯, 긴 비단을 가득 펼쳐 놓은 듯, 어디로 가려고 무슨 일이 바빠서 달려 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낫으로 흐르는 듯 하다.

1-2 물가의 기러기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쫓치 퍼졌거든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 물따라 벌여 있는 모래밭

↳ 갈대꽃

↳ 무엇을 通情하려고(짹을 취하려고)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盧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러곰 좇니는노.

↳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흠어졌다 하며

↳ 울면서 따라다니느냐.

※ 기러기의 교태(嬌態) [근경(近景)]

[현대어 풀이]

물 따라 벌여 있는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하얗게 퍼졌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通情하려고 앉았다 내려갔다, 모였다 흠어졌다 하며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서로 따라다니는고?

1-3 병풍같은 산봉우리들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두르고 꼬즌 거슨 뫼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노픈듯 녹즌 듯 근눈 듯 닛는 듯 어즈러운 가온디 ③일흠는

↳ 그림이 아닌가

↳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양햏야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섯는 거시 秋月山(추월산) 머리짓고

↳ 유명한 체 뽀내며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 있음)

우뚝 선 것이 여러 산봉우리인데 그 중 추월산이 머리를 이루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虛空(허공)에 버러거든 遠近(원근) 瘡崖(창애)의 머은 것도 하도 할샤.

↳ 늘어서 있거늘

↳ 푸른 언덕

※ 산봉우리의 승경(勝景) : [원경(遠景)] 병풍 ⇨ 산봉우리의 비유(관동별곡-진혈대, 개심대 부분과 연결 시켜 학습)

[현대어 풀이]

넓은 길 밖, 긴 하늘 아래 두르고 꼴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잇는 듯.

숨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며, 어지러운 가운데 유명한 체 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선 것이 추월산 머리 삼고, 용구산, 몽선산, 불대산, 여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어져 있는데, 멀리 가까이 푸른 언덕에 머문 것(펼쳐진 모양)도 많기도 많구나.

【 본 사 2 】 👉 면양정의 사시 가경(시간적 구성)

2-1 봄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 구름, 연하,산람, 세우)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르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庵(천암) 萬壑(만학)
 ↳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 산아지랑이 ↳ 수많은 골짜기와 바위
 을 제 집을 삼아 두고 ①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
 ↳ 늘어서 있거늘 ↳ '오'은 운을을 살리기 위함(청산별곡-이령공 덕령공하야)
 거니 長空(장공)의 지나거니 廣野(광야)로 거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 먼 하늘 ↳ 넓은 들
 디트락 斜陽(사양)과 셋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썩리난다.
 ↳ 지는 해

[현대어 풀이]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아지랑이다.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을 삼아두고, 나며 들며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기도 하며 내리기도 하며 넓고 먼 하늘에 떠나기도 하고 넓은 들판으로 건너가기도 하여,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석양에 지는 해와 섞이어 보슬비마저 뿌리는구나.

2-2 여름(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 녹음, 양풍, 황앵)

가마 재촉해 타고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祿楊(녹양)의
 ↳ 관동별곡 - 남여 완보하야 산영루의 올라하니 : 사대부들의 생활상
 ↳ 비생산적, 실 생활과는 거리가 먼 계층
 ↳ 원-아리따운 모양, 아양을 떠는 모양
 우는 黃鶯(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는고야. 나모 새 쯤쨌지어 綠陰(녹음)이
 ↳ 피꼬리 ↳ 우거져, 가득하여
 (쫓다-없어지다<뱃설이쨌쨌진 골에~>, 빈번하다)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수면)
 ↳ 짙어질 적에 ↳ 江湖閑情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논가.
 ↳ 서늘한 바람

[현대어 풀이]

뚜껑 없는 가마를 재촉해 타고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푸른 버들에서 지저귀는 피꼬리는 흥에 겨워 아양을 떠는구나. 나무 사이가 가득하여(우거져) 녹음이 영긴 때에 긴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퍼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이야

그칠 줄 모르는구나.

2- 3 가을(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 즈 서리, 황운, 산빛, 어적)

즌 서리 싸던 후의 산 빛치 錦繡(금수)로다. ②黃雲(황운)은 또 었디

↳ 된서리 ↳ 견힌 ↳ 원관념-누렇게 익은 곡식

萬頃(만경)의 퍼져 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릴 썩와 브닌다.

↳ 퍼져 왔는고 ↳ 고기잡이하며 부는 피리 ↳ 달을 ↳ 부는가(불고 있느냐)

[현대어 풀이]

된서리 견힌 후에 산빛이 수놓은 비단 물결 같구나. 누렇게 익은 곡식은 또 어찌 넓은 들에 퍼져 왔는고? 고기잡이를 하며 부는 피리도 흥을 이기지 못하여 달을 따라 부는 것인가?

2- 4 겨울(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 빙설, 경궁요대, 옥해, 은산)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造物(조물)리 현스하야

↳ 다 떨어진 후 ↳ 묻혀 있거늘 ↳ 야단스러워

구슬이 깔린 바다와 은으로 꾸민 산

눈에 덮인 바다와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③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 아름다운 구슬로 꾸며놓은 궁궐과 대

(대-흙이나 돌을 쌓아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든 곳, 또는 그 의에 지은 집)

↳ 눈 앞에 ↳ 벌여 있구나

眼底(안저)의 버려세라. 乾坤(건곤)도 ④가옴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 가옴 열다 > 가옴 열다 > 가옴 열다 - 풍성하구나

[현대어 풀이]

초목이 다 떨어진 후에 강과 산이 묻혀 있거늘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얼음과 눈으로 자연을 꾸며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 같은 눈에 덮인 아름다운 대자연이 눈 아래 펼쳐 있구나. 자연도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경치로다.

호연지기(浩然之氣)와 임금의 은혜(感君恩)

江山風月(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百年(백 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 주제의식(본사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말) ↳ 이보다 더하겠는가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

↳ 살아온들 ↳ 넓고 큰 마음<호연지기(浩然之氣)>

굳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현대어 풀이]

강산풍월 거느리고(속에 묻혀)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에 이백이 살아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정다운 회포야말로
이보다 더할 것인가.

이 몸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 본문 해설 2

無等山(무등산) 軒 활기 뒀히 동다히로 버더 이셔

출기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腋(활개)-산줄기 東+다해(쪽,편이라는 명사)+로(향진적)
 멀리 제쳐 와 齊月峯(제월봉)이 되어거늘

멀리 떨어져 나와 <중심 소재>(전남 담양에 있는 산) 되었거늘
 제+치(강제접사)+어(대등적언어) :떨치고, 떨어내 버리고

無邊大野(무변 대야)의 모습 짐작하노라

끝 없이 넓은 들만에 무슨 짐작하노라고. (의인법)
 날굽 구비 흙디 움쳐 므득므득 버렸는 듯. →主體 : 霽月峰

일굽 구비 한 데 움쳐 무더기 벌여 있는 듯
 한 곳에 움추리어 의태어 무더기무더기 '우뚱우뚱'·'벌+엇(과+사+선+어)+는(관형사형어미) 나열되어있는 듯, 솟아 있는 듯 ('벌:列)

가운데 구비는 『금곡 든 늘근 농이

가운데 구비(제월봉)는 구멍에 든 높은 용이. (원관남: 제월봉)
 구멍에, 굽+이(ㄱ덧생김 체언)

선조를 꺾 씨야 머리를 언쳐시니』 ⇒ 『: 제월봉의 모습을 '높은 용이 머리를 엮고 있는 모습'에 비유하였다.
 꺾잡 머리를 엮었는 듯 하다

제월봉의 형세 - 높은 용의 머리에 비유

너르바회 우히 松竹(송죽)을 헤히고 亭子(정자)를 언쳐시니

너럭바위, 반석(盤石)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헤하고(대언어) <중심 소재> 정자를 앉혔으니
 구름 탄 靑巖(청학)이 千里(천 리)를 가리라

은유법.(원) 면양정 가려고

두 노래 버렸는 듯.

면양정의 모습 -날개 편 청학에 비유

두 날개를, 놀개>놀애>노래 벌렸는 듯 ⇒ 노래:정자의 지붕 비유→ 은유법 ⇒마치 구름을 탄 푸른 학이 천리를 가려고 날개를 펼치는 듯

<序詞> 제월봉과 면양정의 형세

玉泉山(옥천산) 龍泉山(용천산) 느린 물이

내리는, 흐르는(현재 시제), 느리+니(원·관어)

亭子(정자) 압 너븐 들히 울울히 퍼진 드시

넓은 兀兀하:부지런히 힘써 그치지 않은 모양, 끊임없이, 우뚱우뚱
 넓싸든 기노라 프르거든 희디마나

'마나'의 운율상 생략, 길지나 말거나
 넓거든 길지 말거나.('마나' 생략) 프르거든 희지 말거나 → 「관동별곡」에 영향을 줌. 대구법, 대조법
 <관동별곡> 자주 나타나는 표현: "날거든 뛰디마나 셋거든 솟디마나, "말거든 조치마나 조커든 말지마나.">

「雙龍(쌍룡)이 뒤트는 듯 긴 깃을 치פת는 듯」

(두 갈래의 시냇물) 은유.(원)시냇물 은유.(원)시냇물. 긴 비단을, 쪽 펼쳐놓은 듯.
 치("가득하게, 뻑뻑하게"란 뜻의 접두사)

→「: 시냇물의 구불구불하고(쌍룡) 아름다운(깃, 비단) 모습을 비유한 것임.

어드러로 가노라 모습 일 비얏바

어드로 가노라고 무슨 일 바빠서.(기)비얏바(바쁘다) (비야:다.동.재촉하다.-쳐얏바:형.바쁘다).

든는 듯 썩로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달는 듯(달리는 듯) 따르는 듯 밤늦으로 흐르는 듯

면양정 앞의 시냇물 -정용에 비유

므조친 沙汀(사정)은 눈긋치 퍼졌거든

물 따라 펼쳐진 모래 사장은 눈같이(하얗게) 퍼져 있는데

물+쫘+이+니, 물따라 벌여 있는

어즈러운 기러기는 므스거슬 어르노라

생가시게 많은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고(정을 통하려고가(嫁) 通情하려고. (노라-의도중언어)

안즈락 누리락 모드락 훗트락

앉았다가 내렸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廬花(노화)를 스이 두고 우리곰 좃니는뇨.

갈대꽃을 사이에 두고 울면서 좃아다니는고 따라다니느냐. 좃(從)+니(行)+니(현·사·선)+니(의문형 어미)

물가의 기러기 : 近景-기러기의 嬌態 묘사

너븐 길 밧기오 긴 하늘 아리

넓은 길 밧기오(밧+이)고 먼 하늘 아리

두르고 쏘즌 거슨 뉘힌가 屏風(병풍)인가 그림가 아닌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그만큼 아름답다)

노픈듯 녹즌 듯 근눈 듯 닳는 듯

끓어진 듯(끓어지는 그치는 (긋다)) 이어진 듯

어즈러운 가운데 일흠 눈 양호야

이름 난 체하여, 잘난 체하여

하늘도 젓티 아녀 웃독이 섰는 거시

하늘도 두려워 하지 아니하여. 우뚱이 섰는 것이

정+다→정지>젓티(구개음화-흔철)

秋月山(추월산) 머리 짓고 龍龜山(용구산) 夢仙山(몽선산) 佛臺山(불대산)

추월산을 선두로 삼고

魚登山(어등산) 湧珍山(용진산) 錦城山(금성산)이

담양에 있는 산들

虛空(허공)에 버려거든

떨어져 있는데

遠近(원근) 瘡崖(창애)의 머문 것도 하도 할샤.

푸른 언덕에 머문 것도(볼 만한 것도) 많기도 많구나.

떨어진 모양을 나타냄 하기도 할샤의 생략형 '-도(감탄 보조사), -르샤(감탄형 어미)'의 관용구는 "-학도-하구나"의 뜻

주위에 둘러선 산들: 원경-병풍(산봉우리의 비유)

<본사1> - 면양정에서의 승경 조망

▶ 사시 가경(四時佳景) 四계절 구분에 특히 유의할 것

『흰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르니는 山嵐(산람)이라.

흰 구름과 뿌연 안개와 놀 푸른 것은 산람(산에 끼는 연푸른 기운)이라.

프르+니+이+는

千庵(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수많은 바위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나면서 들면서. 운울(리듬감)을 노린 표현. 아양도 부리는구나.

(“오명가명 허거든, 이랑공 더랑공 허야, 나멸들명 기다리느니”)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떠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높은 하늘로 떠나거니 넓은 들판으로 건너거니

프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프르렀다가 붙었다가 열어졌다가 질어졌다가

斜陽(사양)과 셋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쓰리는다.』 ⇒ 『 』 : 묘사 대상 → (구름)

석양과 섞여져서 가랑비조차 뿌리느냐. (뿌리는구나)

서편으로 기우는 저녁 햇볕 細雨:15세기 '근비, 근비'

봄철의 勝景 - 구름, 煙霞, 山嵐, 細雨

藍輿(남여)를 비야 타고

뚜껑이 없는 가마(작가의 신분 드러냄) 재촉하여(바빠)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왔다 갔다 할 때에

『祿楊(녹양)의 우는 黃鸞(황앵) 嬌態(교태) 겨워 흐는고야.

푸른 버들에서 우는 노란 피꼬리가 교태를 못 이겨 하는구나.

나모 새 짝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나무와 역새가 우겨져서 녹음(무성하게 자란 나무, 또는 그 그늘)이 무르녹은 때에

①사이의 축약 ②역새를 좇다 - 없지하다. 빈번하다. 영긴. 무르녹은. “얼린”의 혼침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 펴니』 ⇒ 『 』 시적 자아의 행동 묘사

긴(기다란) 난간에서 한가롭게 낮잠을 자(긴 줄음을 내어 펴니) 한가한 정서

水面(수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물위에 부는 서늘한(시원한) 바람이야 그칠 줄을 모르는가.

여름철의 勝景 - 황앵, 녹음, 양풍-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임

즌 서리 싸딘 후의 산 빛치 錦繡(금수)로다.

된서리, 계절감. 견힌 후에 산 빛이 수 놓은 비단이로다. -은유법(원)단풍 든 산.

黃雲(황운)은 또 엇디 萬頃(만경)의 퍼겨 디오.

은유법(원)익은 곡식. 넓은 들판에 퍼져 있는고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들룰 썩와 브닌는다.

어부의 피리소리도 흥을 못이겨 달을 따라 줄곧(계속) 부는가.

가을철의 勝景 -산빛, 황운, 어적-단풍과 누렇게 익은 곡식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늘

나뭇잎이 다 떨어진 후에 강산(자연)이 물렸거늘

造物(조물)리 현스허야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조물주가 아단스러워서. 아단스럽다. 빙설(얼음과 눈)으로 꾸며내니(장식하니)

瓊宮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의 버려세라.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궁과 대옥같은 바다, 은같은 산 눈 아래에 떨쳐졌구나.

→'눈 덮인 아름다운 강산'을 비유한 것임.

乾坤(건곤)도 가을열사 간 대마다 경이로다.

온천지가 풍성하구나. 가는 곳마다 좋은 경지로다.

가우멀다(풍성하다.풍요롭다) 가수멀다>가우멀다>가움열다

겨울철의 勝景 -氷雪-눈덮인 아름다운 景致

⇒ 면양정 주변의 경치 전체에 대한 느낌이요 감탄이다. 여기까지가 '서경'으로서 작품 전체를 둘로 나눌 때 전반부에 속한다.

人間(인간)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人生世間'의 준말.속세를 떠나와도 여유가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저것도 들으려하고
복름도 혀려 하고 돌도 마즈려코
짜려(짜여당기다. 짜려하고 짜다>현다①켜다②썰다③짜다④당기다) 달도 맞으려 하고
밤으란 언제 좁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뇨.
사람은 누가 달으며 떨어진 꽃은(곳+으런(주제격 보조사)) 누가 쓸려는고
아침이 낮브거나 나조히라 슬흘소냐.
아침이 (시간이) 부족한데(나쁘니) 저녁이라고 싫을소냐.(슬+으+리소냐)
오늘리 부족(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하라.
오늘이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여유(여가)가 있으랴.
이 뉘히 안자 보고 더 뉘히 거러 보니

산에 산에
煩勞(번로)흔 마음의 버릴 일이 아조 업다.
번거로운 마음에 버릴 일(버릴 것이) 아주 없다.
설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하리야.
설 사이가 없는데 길이나 전하겠는가. *갈①(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는 길). ②(학문 수양의 길)
다만 흔 靑藜杖(청려杖)이 다 드디여 가노미라.
다만 (하나의) (명아쫄대로 만든 질 좋은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노미래(감탄형 어미))

自然을 즐기는 風流 生活-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즐김

술이 닢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익었으니
블니며 트이며 혀이며 이아며
(노래를부르게 하며 (악기를)타게 하며, 켜게 하며 (방울을) 흔들며=>연주가무하는모습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거니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기)비야이다(재촉하다)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놀거니』
노니
구부렀다가 젖혔다가 (시름)을기도 하고 휘파람을 불기도 하면서 마음 놓고(거리낌 없이) 노니
=> 『 』 : 취흥에 겨워 거리낌 없이 가무하는 모습.

天地(천지)도 넓고넓고 日月(일월)도 훈가하다.

세월
羲皇(희황) 모를리니 이적이야 그로고야
부희 황제-> 태평성대를 모르겠더니 이 때야말코(이야-강세 보조사) 그것(태평성대)로구나.
神仙(신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그로고야.

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百年을 다 누리면
아름다운 자연을 거느리고(자연 속에 묻혀서) 내 한평생을 다 누리면
岳陽禿(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라오다.
악양루에 있는 이태백이 살아온다고 한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할소냐.
호탕한 마음(浩然之氣)야 이보다 (에야-비교 부사격) 더할소냐.

자연을 즐기는 풍류 생활 -속세를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本詞2> 면양정의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즐김

이 몸이 이렇 굵도 亦君恩(역군은)이샷다.

이렇게 지내는 것도 또한 임금의 은혜이시도다.

항가, 시조문학의 영향이라고 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상진의 “感君恩”, 맹사성“江湖四時歌” 이현보의 “생일가”, 신희의 시조 등에도 보인다.

<結詞> 임금의 恩惠에 感謝

▣ 작품 해설

▣ 이해와 감상, 1

이 작품은 작가 자신의 은일 생활(隱逸生活)을 노래한 것으로 자연에서 얻어지는 흥취를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읊고 있다. '면양정가'는 송순이 늦게까지 벼슬하다가 만년에 치사귀향(致仕歸鄉)하여 향리인 전남 담양의 제월봉 아래 면양정(傘仰亭)을 짓고, 여러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산수의 아름다움에 몰입하였는데, 그 때의 풍류 생활을 읊은 은일가사(隱逸歌辭)이다.

호남 가단(湖南歌壇)을 처음 마련했으며, 도리(道理)보다 풍류를 더 사랑했던 지은이는 '상춘곡'에서 본을 받고 '성산별곡'에 영향을 준 이 작품을 지음으로 해서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했다. 유가(儒家)의 도리를 저버릴 수 없어 '이 몸이 이렇 굶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라고 마무리지은 이 작품은 그 사상적 바탕을 자연 친화의 도교적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 도가 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인간이 자연과 일체(一體)를 이룸으로써 최고선(最高善)에 도달하고자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 가면서 작품을 읽게 되면 면양정이 위치한 제월봉의 근원과 형세를 노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면양정의 아름다운 모습(기)

면양정에서 바라본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으로 묘사(승1)

면양정의 아름다운 사계절의 변화(승2)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강호에서의 풍류 생활(전)과 아름다운 자연 속에 노니는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노래 (결)하고 있다.

면양정에서의 풍류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亦君恩(역군은)'이라고 함으로써, 유학자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나타내어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대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수사법의 보고라고 할 만큼 다양한 표현 방법(의인, 직유, 반복, 은유, 대조, 상징, 설의, 반어, 대구법 등)이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대구법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그 본질을 표현할 때 특히 많이 사용되었다.

'면양정가'는 산천과 전야의 깊고 멀며 광활한 모양, 정자와 누대와 길들이 높고 낮으며 돌고 구부러진 모양, 그리고 사계(四季)의 아침 저녁 경치를 두루 서술한 것인데 모든 것이 샅샅이 적혀 있다. 한자어를 섞어 썼는데, 묘사가 극히 아름답다. 정말 볼 만하고 들을만한 작품이다.

▣ 이해와 감상, 2

송강이 25세 되던 해, 그의 처 외재당숙인 김성원이, 서하당과 식영정을 지었을 때, 사계절에 따른 그 곳의 풍물과 김성원에 대한 흠모 및 景을 노래한 작품이다. 정철은 을축사화로 말미암아 귀양다니던 아버지를 따라 16세 때 낙향하여, 등과한 27세까지 전남 함평 지곡리에서 지냈던 것이다. 이 작품은 서하당의 주인인 김성원의 멋과 풍류를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철 자신의 풍류를 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어의 사용이 빈번하고 일개인의 칭송에 치우친 감이 있으나, 체험에서 우러난 전원 생활의 흥취와 지은이의 개성이 잘 드러난 가작이 하겠다.

▣ 핵심 정리

- * 갈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 * 문체 : 운문체. 가사체
- * 연대 : 중종 19년(1524)
- * 형식 : 가사(歌辭). 4, 4(3, 4)조를 기조로 한 4음보 연속체

- * 성격 : 양반 가사. 은일 가사(隱逸歌辭), 서정 가사(抒情歌辭)
- * 어조 : 풍류를 즐기는 호방한 어조
- * 표현 : 활유, 의인, 직유, 은유, 대구, 열거, 과장, 대조, 반복 등 다양한 기법 사용
- * 구성 : 기.승.전.결 79구의 4단 구성(서사, 본사, 결사의 3단 구성. 본사를 계절에 따라 네 문단으로 나누어 6단 구성으로 볼 수도 있음)
- * 제재 : 면앙정(傘仰亭)의 자연의 승경(勝景)
- * 내용 : 면앙정(傘仰亭)이 있는 제월봉(霽月峰)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을 그린 다음, 그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를 근경(近景)에서 원경(遠景)으로 묘사하고 춘하추동(春夏秋冬) 사시(四時)의 계절 변화에 따라 짜임새 있게 묘사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절경(絶景)에서 묻혀 노니는 지은이의 호방한 정회(情懷)를 노래하였다.
- * 주제: 대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군은(君恩)
- * 출전: 필사본 <雜歌>
- * 의의: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한 노래로, 정극인의 '상춘곡'의 계통을 잇고, 정철의 '성산별곡(星山別曲)'에 영향을 주었다.
- *작가: 송순(宋純 1493-1583) 호는 면앙정(傘仰亭), 기촌(企村). 조선 중종-선조 때의 문신. 치사(致仕)하고 담양(潭陽) 제월봉 아래에 석림정사(石林精舍)와 면앙정(傘仰亭)을 짓고 가곡을 지었다. 황진이와 함께 시가 문학의 정수를 계승하여 명작들을 남겼다. 저서로는 <기론집>과 <면앙집>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면앙정가'가 있다.

▣ 면앙정가의 문학사적인 위치

▶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자연 친화의 사상을 이어받은 이 작품은 그 후 정철의 '성산별곡'과 '관동별곡'을 잇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 특히, 이 작품에 이르러서 자연미(自然美)를 발견하고 자연의 흥취를 즐기는 정서가 보편적으로 등장하여 그 뒤에 두고두고 모범이 되며 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쳤다.

▣ 이 작품에 대한 평(評)

▶.심수경-'면앙정가'는 산천과 전야(田野)의 깊고 멀며 광활한 모양, 정자와 누대와 길들이 높고 낮으며 돌고 구부러진 모양, 그리고 사계의 아침 저녁 경치를 두루 서술한 것인데 모든 것이 샅샅이 적혀 있다. 한자어를 섞어 썼는데, 묘사가 극히 아름답다.

.홍만중-산수의 좋은 경치를 설진(說盡)하고 거기서 노니는 즐거움을 늘어놓은 것으로 그의 가슴 속에는 호연지취(浩然之趣)가 있다.<순오지(旬五志)>

▣ 이 작품과 '성산별곡'과의 관계

▶.정철의 '성산별곡'은 내용, 형식, 풍류, 어구, 시풍 등 여러 방면에서 '면앙정가'의 영향을 받았다.

내용면에서는

- ① 자연을 인간의 궁극적인 귀의처로 본 것
- ② 사계절을 통한 자연미의 발견

③ 신선의 경지에 드는 풍류의 극치를 맛보려 한 것(자연 친화의 도가 사상) 등은 그대로 '성산별곡'으로 이어졌다.

구성에 있어서도 '면앙정가'가 '서사-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사계의 경물-풍류 생활-결사'의 순으로 짜여져 있는데, '성산별곡'도 이와 유사하게 '서사-춘경-하경-추경-동경-결사(풍류)'로 짜여져 있다.

표현면에서도 '~거든, ~거니, ~거든, ~마나' 등의 특수한 문체가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정철의 '성산별곡'은 서경적인 내용, 구성에 있어 사계절을 넣은 것, 표현에 있어 유사한 수법을 쓴 것, 사실의 동일한 유형성, 어구 배치의 근사성, 풍류 표현의 공통성 등 각 방면에 걸쳐 그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수록 부분

푸른 덩굴을 헤쳐 들어 독락당을 처음 지어내니 그윽하고 한가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우거진 대나무 숲은 푸른 시냇물 좇아 둘러 있고 만 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대구법) 안중(공자의 제자인 안희와 증삼)이 왼쪽에 앉고 유하(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는 오른쪽에 앉은 듯(이언적의 모습을 제자를 좌우에 거느린 공자에 비유). 시책을 벗 삼으며 책 읽고 시 읊기를 일을 삼아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깨달음을 혼자 즐겨 하시었다. 독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을 줄 그 누가 알리? 사마광(북송의 명신)의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된 즐거움이 이 독락에 더할 수 있겠는가. (설의법, 중국의 사마광이란 사람도 벼슬살이를 하다가 낙향하여 독락원이란 곳을 짓고 자연을 즐기며 기거하였다.)

⇒ 한가롭게 책을 읽던 회재 선생을 추모함

⇒ 진리를 찾음을 못내 하여 양진암(회재가 후학을 기르던 집채, 암자)에 돌아 들어 바람을 쏘이면서 조용히 바라보니 내 뜻도 맑고 아름답다. 퇴계선생 쓴 글이 진리임을 알리로다.(양진암에 이항의 친필이 있음) 관어대 내려오니 깔아 놓은 듯한 반석 위에 (회재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회재 선생의 발자취)이 보이는 듯. 손수 심은 큰 소나무는 옛 빛을 띠었으니 옛날과 변함없는 그 경치가 더욱 반갑구나.

⇒ 옛날과 변함없는 경치를 반가워함

⇒ 정신이 맑아 지초와 난초가 있는 향기로운 방에 든 듯하다. 많고 적은 옛 책을 뒤져 보며 문득 생각하니 충암절벽은 운모병풍(운모-광물 이름-로 만든 병풍)이 절로 되어(충암절벽을 운모로 만든 병풍에 비유함.) 이공린(송나라 의 뛰어난 화가)의 뛰어난 솜씨로 그린 듯하고(충암절벽의 장관) 깊고 맑은 못에 하늘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어리어 잠겨 있으니 비온 뒤에 부는 바람과 밝은 달이 부는 듯 비치는(번쩍이는) 듯.(아름다운 연못의 모습) 하늘에서 나는 솔개(매의 일종)와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를 말 없는 벗으로 삼아(물아일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여 성현 사업(학문을 닦고 덕을 쌓는 일)을 하시었다. 맑은 시내를 비스듬히 건너 낚시터도 완연하구나. 문노라, 갈매기들아!(물아일체) 옛 일을 네 알리라. 엄자릉(중국 후한 때의 은사)이 어느 해에 한나라 조정으로 간단 말인가? 이끼 낀 물가 모래 위에 연기만 잠겼어라. (엄자릉은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낚시나 하던 중국의 유명한 은사이다. 지금 연못의 낚시터를 보며 엄자릉을 떠올린 것이다.)

⇒ 성현 사업을 한 회재 선생을 생각함

⇒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시문을 외우며 즐기는 언덕)에 올라오니 그 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맑은 흥이 절로 나니 바람을 쐬고 읊조리며 돌아옴(풍류를 즐기, 논어 인용)을 오늘 다시 본 듯하다.(논어에 공자의 제자 증점이 바람을 쐬며 시를 읊조린다는 말을 내가 다시 느끼는 듯 하다.) 높은 언덕 아래 연꽃이 핀 못에 가랑비(계절적 배경) 잠깐 지나가니 푸른 구슬 같은 넓은 잎에 흠어지는 것이 고운 구슬(물방울)이로다. 이러한 푸른 경치를 보는 것도 많다는 엄계(송나라 학자 주돈이, 주희의 호)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낸 게오. 그 옛날의 맑은 향기가 다만 여기 남았구나.(유학자에 대한 흠모. 주희도 자연에 은거하며 유학을 탐구하였다. 화자는 이곳에서 주희를 떠올렸다. 맑은 향기만 남았다는 것은 그의 유학적 높은 경지만이 남았다는 뜻이다.) 자ض빗 안개 비낀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낭떠러지 높은 끝에 긴 시내가 걸렸는 듯. 향로봉(여산에 있는 이름난 봉우리) 그 어디요, 여산(중국 강서성에 있는 명산)이 여기던가.(중국의 명산인 여산과 같은 폭포가 있는 경치를 예찬) 징심대(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굽어보니 더럽고 인색하던 가슴 속이 새로운 듯 하다는(마음의 정화) 적막한 빈 대에 외로이 앉았으니(부귀를 탐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음.) 바람이 맑아 거울 같은 수면에 산 그림자만 잠겨 있고 우거진 푸른 나무 그늘에 온갖 새 슬피 운다.(감정이입, 세상에 대한 화자의 근심)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날의 자취를 다 찾으니 탁영대(갯끈을 씻는 물가 언덕) 연못은 예전처럼 맑다는 말세(자연, 맑은 연못과 대비)의 티끌 세상 사람마다 어지럽게 싸우거든 이리 맑은 못에 갯끈(속세를 상징, 벼슬을 하여 부귀공명을 탐하는 것) 씻을 줄 그 누가 알리.

⇒ 귀대의 경치를 보며 세상을 개탄함

▣ 본문 해설 전문

자옥산(현재 경주 시내에 있는 산 이름) 명승지에 독락당이 맑고 깨끗함을 들은 지 오래로되, 이 몸이 무인(武人)으로서 바다의 일(임진왜란 때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일편단심의 충의를 떨치지 못해서 금으로 만든 창과 무쇠로 만든 말을 몰아 여가 없이 분주하다가 마음 속 사모함이 늙은이(화자 자신)에게 더욱 깊어 대나무 지팡이와 짚신으로 오늘에야 찾아오니 못 봉우리는 수려하여 무이산(송나라 유학자 주희가 살던 곳의 산)이 되어 있고 흐르는 물은 휘감아 돌아 후이천(송나라 유학자 정이가 살던 곳의 냇물)이 되었도다. 이러한 명승지에 임자 어찌 없었던가?

⇒ **늙어서 찾아간 독락당의 빼어난 외경**

일천 년 신라와 오백 년 고려에 현인, 군자들이 많이도 왔으려면 하늘도 아끼고 땅이 숨겨 내 선생(독락당에 은거했다는 '이언적'을 가리킴)께 남겼도다. 사물은 저마다 주인이 있거든 다들 이 있을쏘냐? 푸른 덩굴을 헤쳐 들어 독락당을 처음 지어내니 그윽하고 한가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 **하늘이 독락당을 회재 선생에게 줌**

우거진 대나무 숲은 푸른 시냇물 좇아 둘러 있고 만 권 서책은 네 벽에 쌓였으니(대구법) 안증(공자의 제자인 안회와 증삼)이 왼쪽에 앉고 유하(공자의 제자인 자유와 자하)는 오른쪽에 앉은 듯(이언적의 모습을 제자를 좌우에 거느린 공자에 비유). 시책을 벗 삼으며 책 읽고 시 읊기를 일을 삼아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깨달음을 혼자 즐겨 하시었다. 독락, 이 이름이 뜻에 맞을 줄 그 누가 알리? 사마광(북송의 명신)의 독락원이 아무리 좋다 한들 그 속의 참된 즐거움이 이 독락에 더할 수 있겠는가. (설의법, 중국의 사마광이란 사람도 벼슬살이를 하다가 낙향하여 독락원이란 곳을 짓고 자연을 즐기며 기거하였다.)

⇒ **한가롭게 책을 읽던 회재 선생을 추모함**

진리를 찾음을 못내 하여 양진암(회재가 후학을 기르던 집채, 암자)에 돌아 들어 바람을 쏘이면서 조용히 바라보니 내 뜻도 맑고 아름답다. 퇴계선생 쓴 글이 진리임을 알리로다.(양진암에 이항의 친필이 있음) 관어대 내려오니 깔아 놓은 듯한 반석 위에 (회재 선생의) 지팡이와 신발 자국(회재 선생의 발자취)이 보이는 듯. 손수 심은 큰 소나무는 옛 빛을 띠었으니 옛날과 변함없는 그 경치가 더욱 반갑구나.

⇒ **옛날과 변함없는 경치를 반가워함**

정신이 맑아 지초와 난초가 있는 향기로운 방에 든 듯하다. 많고 적은 옛 책을 뒤져 보며 문득 생각하니 증암절벽은 운모병풍(운모-광물 이름-로 만든 병풍)이 절로 되어(증암절벽을 운모로 만든 병풍에 비유함.) 이공린(송나라 의 뛰어난 화가)의 뛰어난 솜씨로 그린 듯하고(증암절벽의 장관) 깊고 맑은 못에 하늘빛과 구름의 그림자가 어리어 잠겨 있으니 비운 뒤에 부는 바람과 밝은 달이 부는 듯 비치는(번쩍이는) 듯.(아름다운 연못의 모습) 하늘에서 나는 솔개(매의 일종)와 연못에서 노는 물고기를 말 없는 벼로 삼아(물아일체)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혀 깊이 생각하여 성현 사업(학문을 닦고 덕을 쌓는 일)을 하시었다. 맑은 시내를 비스듬히 건너 뉘시터도 완연하구나. 문노라, 갈매기들아!(물아일체) 옛 일을 네 알리라. 엄자릉(중국 후한 때의 은사)이 어느 해에 한나라 조정으로 간단 말인가? 이끼 낀 물가 모래 위에 연기만 잠겼어라. (엄자릉은 벼슬을 마다하고 시골에서 뉘시나 하던 중국의 유명한 은사이다. 지금 연못의 뉘시터를 보며 엄자릉을 떠올린 것이다.)

⇒ **성현 사업을 한 회재 선생을 생각함**

봄옷을 새로 입고 영귀대(시문을 외우며 즐기는 언덕)에 올라오니 그 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맑은 흥이 절로 나니 바람을 쐬고 읊조리며 돌아옴(풍류를 즐김, 논어 인용)을 오늘 다시 본 듯하다.(논어에 공자의 제자 증점이 바람을 쐬며 시를 읊조린다는 말을 내가 다시 느끼는 듯 하다.) 높은 언덕 아래 연꽃이 핀 못에 가랑비(계절적 배경) 잠깐 지나가니 푸른 구슬 같은 넓은 잎에 흠어드는 것이 고운 구슬(물방울)이로다. 이러한 푸른 경치를 보는 것도 많다마는 염계(송나라 학자 주돈이, 주희의 호) 가신 후에 몇몇 해를 지낸 게오. 그 옛날의 맑은 향기가 다만 여기 남았구나.(유학자에 대한 호모. 주희도 자연에 은거하며 유학을 탐구하였다. 화자는 이곳에서 주희를 떠올렸다. 맑은 향기만 남았다는 것은 그의 유학적 높은 경지만이 남았다는 뜻이다.) 자쭈빛 안개 비낀 아래 폭포를 멀리 보니 낭떠러지 높은 끝에 긴 시내가 걸렸는 듯.

향로봉(여산에 있는 이름난 봉우리) 그 어디요, 여산(중국 강서성에 있는 명산)이 여기던가.(중국의 명산인 여산과 같은 폭포가 있는 경치를 예찬) 징심대(마음을 맑게 하는 언덕) 굽어보니 더럽고 인색하던 가슴 속이 새로운 듯 하다마는(마음의 정화) 적막한 빈 대에 외로이 앉았으니(부귀를 탐하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씻으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혼자만 있음.) 바람이 맑아 거울 같은 수면에 산 그림자만 잠겨 있고 우거진 푸른 나무 그늘에 온갖 새 슬피 운다.(감정이입, 세상에 대한 화자의 근심) 거닐면서 생각하며 옛날의 자취를 다 찾으니 탁영대(갯끈을 씻는 물가 언덕) 연못은 예전처럼 맑다마는 말세(자연, 맑은 연못과 대비)의 티끌 세상 사람마다 어지럽게 싸우거든 이리 맑은 못에 갯끈(속세를 상징, 벼슬을 하여 부귀공명을 탐하는 것) 씻을 줄 그 누가 알리.

⇒ **귀대의 경치를 보며 세상을 개탄함**

사자암 높이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니 구슬이 쌓여 빛을 머금고 있음(회재 선생의 학덕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준다는 뜻임)은 어제런듯 하다마는 봉황이 날아가 버려 산은 비었으니(회재 선생은 돌아 가셨지만 그가 살던 곳은 그대로 있음) 두견만 밤에 운다(회재 선생이 없는 빈산에서 느끼는 쓸쓸한 감정을 두견에 이입함). 도화동 내린 물이 밤낮 없이 떨어진 꽃조차 흘러오니 천태(천태산, 중국의 산 이름)인가 무릉(선경)인가 이 땅이 어딘 것인가? 신선들이 놀던 자취가 아득하니 어디인 줄 모르겠네. 인자도 아닌 몸이 무슨 이치를 알랴마는 산이 좋아 기이한 바위를 다시 의지하여 시냇가의 경치를 살펴보니 만 가지 보랏빛, 천 가지 붉은 빛은 비단 빛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풀과 향기로운 꽃은 골바람에 날려 오고 산사의 종소리는 구름 밖에서 들리누나. 이러한 모습을 범희문(송의 문필가)의 문필이라 한들 다 써내기 쉬웠겠는가. 눈에 가득히 전개되는 풍경이 나그네의 흥을 돋우는 듯. 여기저기 거닐어서 일부러 천천히 돌아오니 눈에 뜨이는 서산 봉우리에 저녁 해가 거의 지네.

⇒ **사자암에 올라 도덕산의 경치를 바라봄**

독락당에 다시 올라 좌우를 살펴보니 선생 풍채를 친히 만나 뵈옵는 듯. 자나 깨나 눈에 선함이 확실하여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보며 탄식하며 당시 하시던 일을 다시금 생각하니 밝은 창과 고요한 책상에서 세상일에 관한 근심을 잊으시고 성현의 책에 뜻을 두어 공부를 이뤄 내어 성현에게 배우고 후인을 가르침에 우리나라의 도를 밝히시니 우리 동방의 덕 있는 선비는 다만 그대인가 여기노라. 하물며 효도와 화목함을 근본으로 삼고 충성을 베풀어 내어 조정에 나아가 후직과 설(순임금의 유명한 신하들)의 몸이 되어 요순의 태평시대를 이룰까 바라다가 시운이 불행하여 충성스럽고 현명함을 멀리 물리치니 듣는 이 보는 이 깊은 산 속 험한 골짜기엔들 누가 아니 슬퍼하리. 칠 년 동안 긴 귀양살이에 하늘 해를 보지 못하고 문 닫고 깊이 반성하여 도덕만 닦으시니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이기지 못하니 공론이 절로 일어 도덕을 숭상함을 사람마다 할 줄 알아 강계는 (회재 선생의) 귀양지로되 끼쳐 놓은 교화를 못내 잊어 궁벽한 시골에 사당(경현 서원)을 세웠으니 선비들의 추앙이야 더욱 말해서 무엇 하겠는가.

⇒ **선비들이 회재 선생을 추앙하여 사당을 세움**

자옥산의 자연 경치 위에 서원을 지어 두고 재주 많은 선비들이 거문고를 타고 글 읽는 소리를 이었으니 많은 어진 선비들이 이 땅에 다 모인 듯 구인당(옥산 서원에 있는 집체의 이름) 돌아올라 체인묘(옥산 서원에 있는 사당 집체의 이름)도 엄숙할사 끊임없는 제사가 우연이 아닌 일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러러 높이고 모시는 것을 못내 하여 문묘종향이 그 더욱 성사로다. 우리나라 문헌이 한당송에 비기리라. 자양(중국 안휘성에 있는 산, 주자가 독서하던 곳) 운곡도 아아 여기로다. 세심대 내린 물에 베풀어 준 은혜가 이어 흘러 용추(용이 잠겨 있는 듯한 깊은 연못) 깊은 곳에 신물조차 잠겼으니 조물주의 오묘한 솜씨가 그 더욱 기이하여 끝없는 경치를 다 찾기 어려우니 즐거움에 취해 돌아감도 잊어 열흘이나 한 달 동안 머물며 고루한 이 몸에 정성을 다하여 공경함을 넓게 하여 선생 문집을 자세히 살펴보니 천 마디 만 마디가 다 성현의 말씀이라. 도학의 맥과 공부의 과정이 해와 달같이 밝으시니 어두운 밤길에 밝은 촛불 잡고 간 것 같다. 진실로 이 죽은 사람이 남긴 훈계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 바른 마음을 가져 수성을 넓게 하면 말은 충성스럽고 행실은 두터워 사람마다 어질도다. 선생 끼쳐 놓은 교화 지극함이 어떠한가. 아! 후생들이 추앙을 더욱 높여 천년만년 오래도록 태산과 북두칠성같이 바라보세. 하늘이 높고 땅이 두터움도 마침내 끝이 있으려니와 독락당의 맑은 기운은 끝이 없을 듯싶다.

⇒ **독락당에 다시 올라 회재 선생을 추앙함**

■ 작품 해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노계 박인로(1561~1642)가 만년에 회재 이언적(1491~1553)이 살던 경주 옥산의 독락당을 찾아갔을 때인 광해 11년(1619)에 지은 모현가사이다. 내용은 늙은 몸으로 독락당에 찾아가서 회재 선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곳의 뛰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중국의 사적들과 견주어 가며 노래하고, 회재선생의 유훈을 길이 받들 것을 권면하고 있다. 분량은 2율각 1구로 헤아려 모두 255구인데, 그 자수를 형식은 3.4조가 주조이고 4.4조가 부주조이며, 결사장은 단형시조의 종장체가 파괴된 형태로 '노계집'권3에 실려 있다. 3음보 혹은 4음보를 1행으로하여 총 123행으로, 박인로가 지은 가사 가운데 최장편이다. 주제는 작자가 이언적의 유적인 경주 옥산서원의 독락당을 찾아가 이언적을 사모하는 심회와 주변경치를 읊은 것이다.

이 작품은 내용상 크게 10단락으로 구분된다.

첫째 단락에서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무부로서 여가 없이 분주하다가, 늙어서 비로소 들른 지 오랜 독락당을 찾으니 산봉우리는 빼어나 주자가 살던 무이산과 같고, 흐르는 물은 감돌아 정이가 살던 이천과 같다고 하였다.

둘째 단락에서는 신라 천년, 고려 오백년 사이에도 성현군자는 많았는데, 이러한 명승지를 하늘이 감추어서 이언적에게 준 것은 물각유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셋째 단락에서는 독락당의 유한한 경치와, 한가하고 고요한 가운데 잠겨 생각하고 깨닫던 이언적의 모습을 안증과 유하를 좌우에 거느린 공자에 비유하였다.

넷째 단락에서는 이항의 친필이 담긴 양진암과 관어대 반석 위에 남은 이언적의 지팡이와 신발자국, 손수 심은 큰 소나무를 대하니 마치 지란실에 들어간 듯하다고 읊었다.

다섯째 단락에서는 병풍 같은 층암 절벽, 하늘과 구름이 비친 백척장담, 저녁 안개에 잠긴 청계조기의 묘사를 통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던 이언적의 자취를 더듬었다.

여섯째 단락에서는 영귀대의 아름다운 경치에 풍영이귀한 증석의 옛일을 생각하고, 자연 비긴 폭포를 보며 여산에 비기고, 징심대 맑은 물에 가슴속이 새로워짐을 느꼈다. 탁투는 속인들을 생각하고 개탄하고 있다.

일곱째 단락에서는 사자암에 올라 도덕산을 바라보며, 이언적의 덕망이 구슬이 쌓여 빛을 머금고 있는 듯 하다고 추양하고, 이백의 시를 빌려 이언적을 봉에 비겨 봉새 날아간 빈 산에 두견새만 저녁에 운다고 하여, 그가 가고 없는 쓸쓸함을 노래하였다. 또한 선생의 자취를 천태산과 무릉도원에 비겨 신선으로 받들면서 해질 무렵까지 돌아갈 줄 모르는 간절한 사모의 정을 그렸다.

여덟째 단락에서는 독락당에 다시 올라 이언적의 풍채와 덕행을 다시금 추양하고 독서소리가 이어졌던 서원의 번성함을 읊었다. 동방의 군자인 그가 직설과 같은 충성으로 당우의 성시를 이루려 하였는데 시운이 불행하여 을사사화에 강제로 귀양가게 되었음을 슬퍼하고, 적소에서도 끼쳐놓은 감회가 깊어 선비들의 추앙을 받고 사당까지 세우게 되었음을 말하였다.

아홉째 단락에서는 구인당에 올라가 체인묘의 엄숙함을 보고 동방의 문물을 한.당.송에 비유하여 주자가 살던 자양운곡이 바로 여기라고 감탄하였다. 세심대 내린 물에는 덕택이 지금도 이어 흐르는 듯하고, 용추 깊은 곳에는 신물조차 잠겨 있는 듯, 그의 무궁한 덕화력은 기이한 하늘의 조화와 함께 어울린 듯하다는 느낌을 말하였다. 달포를 머물면서 그의 문집을 살펴보고, 그것이 모두 성현의 말이어서 일원같이 밝으므로 밤길에 촛불 잡고 가는 것 같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언적의 유훈을 가슴깊이 새겨 그를 오래도록 태산복두처럼 추양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박인로의 가사에는 성현의 치세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는 것과, 현실과 이상이 합치되지 못하는 데서 오늘 작자의 고민이 함께 표출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선현을 사모하고 추앙하는 마음을 밀도 있게 표현하였다.

■ 핵심정리

■ 연대 : 조선시대 1619년(광해군11)

■ 갈래 : 가사

■ 운율 : 3.4조 4.4조 4음보 가사체, 운문체

- 화자의 상황 : 독락당 주위를 산책 中
- 화자의 정서 및 태도 : 완상, 감회
- 특징 : 시간의 흐름 - 시상 전개
- 주제 : 독락당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와 이언적의 유덕(遺德)을 추모

■ 해제 : 이 작품은 왕실의 종친으로 철종과 고종 시대에 활동했던 경평군 이세보가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어려움을 노래한 연시조이다. 세도 정치로 인한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에서 백성의 교화를 통한 사회 질서의 안정을 추구한 작가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주제 : 계절에 따른 농가의 일상과 농부의 임무

■ 구성

- 연시조 (전 12수) : 전반부 7수, 후반부 5수
- 전반부 : 봄, 여름, 가을 각 2수
- 후반부 : 농부의 삶에 대한 어려움 2수, 교훈 3수
- 제재 : 농사일, 교화
- 갈래 : 연시조,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 성격 : 교훈적, 경세적, 사실적, 찬양적, 비판적

- 제3수: 모내기의 흥겨움
- 제4수: 김매기를 하는 수고와 농부에 대한 훈계
- 제5수: 조화로운 자연과 임금의 덕
- 제6수: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
- 제7수: 풍년의 즐거움과 태평성대에 대한 찬양
- 제8수: 토세와 신역으로 인한 어려움

■ 특징 1

각 수의 내용은 계절에 따라 요구되는 농사일들을 소개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시간적 배경에 따라 각 수의 내용이 달라짐.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공통적으로 농부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음. 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대한 화자의 느낌이나 판단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3장으로 구성된 시조의 발화 양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임.

<제3수>와 <제4수>에는 ‘좌수’와 ‘우수’, ‘사립’과 ‘호미’ 등을 이용한 대구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관찰하고 있는 대상인 농부들의 외양과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음.

<제5수>에는 가뭄으로 인한 근심이 적당히 내린 비에 의해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음.

<제6수>에서 잘 익은 곡식에 대한 감회가 드러남.

<제7수>의 종장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자연의 고마움을 강조하며 청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

<제8수>에서 추수를 하고도 세금 걱정에 근심하는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국가의 잘못을 드러냄.

■ 특징 2

- 대구법을 사용해서 변화를 주어 효과적으로 표현
- 농부들의 모습과 움직임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제시
- 절기에 따른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
- 유교적 이상국가의 모습을 제시
- 연행의 방식에 따라 각 수의 종장 마지막 음보를 생략하여 여운을 남김
- 초장, 중장은 구체적 상황을, 종장은 화자의 생각, 태도를 드러내어 종합함.

■ 특징 3

- 계절적 배경에 따른 시상전개로 향토적이고 구체적임.
-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 어휘가 풍부하게 나타남.
- 농촌 생활의 부지런한 활동을 실감 있게 제시함.
- 교훈적, 계몽적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교재 수록 부분 1)

☆ 부산항 출발 광경

가] 당풍(壯風)의 돛출 드라 육선(六船)이 흙씩 찌나, 삼현(三絃)과 군악

거센(세찬) 바람

기선(騎船) 셋과 복선(卜船) 셋

삼현-거문고, 가야금 당비파

(軍樂) 소리 산히(山海) 를 진동하니, 물 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이 놀라도다.

히구(海口)를 열꺾나서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고국을 도라보니 야식(夜色)

바다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 여기서는 부산항.

밤경치

이 창망(滄茫)하야, 아모것도 아니 뵈고, 연히 변진(沿海邊津) 각 포(浦)의

멀고 아득함.

육지 가까운 바닷가. 변경을 지키는 군영

불빛 두어덤이 구름 밝기 뵈 만하니,

거센 바람에 돛을 달아 여섯 배가 함께 떠나게 되고, 환송하는 풍악 소리가 굉장히 울려 퍼지니, 물 속의 고기와 용들이 마땅히 놀람직하구나. 부산항을 열른 지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 보니 밤경치가 아득하여 아무 것도 아니 보이고 가까운 바닷가에 있는 각 항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만 하다.

☆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남 15 사설시조 대천앞바다~~비교

나]비방의 누어 이셔 내 신세를 생각해 보니, 꺾독이 심란한디 대풍이 니러나

선실

가뜩이나

니, 태산 꺾튼 성낸 물결 텃디의 즈옥하니, 큰나큰 만곡쥬(萬斛舟)가 나모

만석을 실을만한 큰 배가

넙 브치이듯, 하늘의 올라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땅 밑에

지이(紙衣)터로 구버 잇고, 선두 폭 초석(草席) 돛춘 반달쳐로 비블렀니.

종이로 만든 옷(척척 굽어진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흰 두폭쥬(草席)로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큰 우레 소리 작은 벼락은 바로 등 뒤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난 물결과 파도는 한층 험해지고 있네(성난 고래와 용이 물 속에서 희롱하는 듯 하다).

험한 파도

속의셔 희롱하니. 방 속의 요강(尿壩) 타고(唾具) 잤바지고 업더지고,

가래침 뱉는 그릇

상하좌우 비방 널은 낚낚히 우논구나. 15 풍랑으로 고생함

조각조각 날날이

선실에 누워 있으면서 내 신세를 생각해 보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태산같이 성난 물결이 천지에 자욱하니, 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가 마치 나뭇잎이 떠 있듯이, 물결따라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니, 열두 발이나 되는 쌍돛대는 종이옷처럼(척척 굽어진 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흰 두폭쥬(草席)로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불렀네. 큰 우레 소리와 작은 벼락은 바로 등 뒤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성난 물결과 파도는 한층 험해지고 있네(성난 고래와 용이 물 속에서 희롱하는 듯 하다). 선실 속에서는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며 상하 좌우 모든 널빤지는 파도에 휩쓸릴 때마다 날날이 소리를 내는구나.

☆ 6단락 - 풍랑 뒤의 바다의 장관과 항해 중의 모습

다]이윽고 히 돛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시. 니러나 비문 열고 문설주

훌륭한 광경

잡고서서,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심 텃디간의 이런구경 또 어디 이

실고 [구만 니 우두 속의 큰 물결분이로시. 등 뒤호로 도라보니 동니(東萊) 뒀이

우주(宇宙)

눈섭 곶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히 구이 업니, 우아리 푸른 빛치 하늘 밧기 다

가물가물하게 보이고

하 있다.]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는작고 흠기 썩난 다섯 비는 간 디를 모를

가는 것일고

로다. 스면을 두로 보니 잇다감 물결 속의 부채만 자근 듯치 들락날락하는구나.

이따금

부채만한

이윽고 해가 돋으니 훌륭한 경관을 구경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구나. 인생 천지 사이에 이런 굉장한 구경이 도 있을까?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다만 큰 물결 뿐이로다. 등 뒤를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섭 만큼이나 작게 보이고, 동남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이 없어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 함께 떠난 다섯 적은 간 곳을 모르겠도다. 사면을 두루 살펴보니 가끔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 감상 POINT

부산항에서 환송을 받으며 뱃길로 떠나 대마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과 배 위에서의 체험, 감상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특히 부산항에서 발선(發船)하는 광경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정경 및 폭풍이 걷힌 후의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장관이 실감있게 그려져 있다. 자칫 피상적으로 흐르기 쉬운 감정을 억누르고 이만큼 실감 있게 그려 놓았다는 데, 또 다른 감흥을 맛볼 수 있다. 사실적 묘사가 뛰어난 부분이다.

☆ 폭풍에 시달린 끝에 대마도에 당도함

라]선뎡(船中)을 도라보니 저마다 슈질(水疾)하야 똥물을 다 토하고 혼절(昏

배멀미를 하여

絶)하야 죽게 알니 다형홀샤 종소상(從使相)은 태연이 안즈시구나.

통신사의 우두머리

비 방의 도러 드로 눈곰고 누웠더니 대마도(對馬島) 갓갑다고 사공이 니르거늘 고터 니러 나와 보니 십 니는 남았고나.

배 속을 돌아보니 저마다 배멀미를 하여 똥물을 다 토하고 까무러쳐 죽게 앓네. 다행하구나. 종사상은 태연히 앉았구나. 선실로 다시 들어와 눈을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외치거늘, 다시 일어나 선실 밖으로 나와보니 대마도가 아직 십리는 남았구나.

▣ 본문 해설 (본문 수록 부분 2)

당풍(壯風)의 돛출 드라 육선(六船)이 흙씩 썬나,
삼현(三絃)과 군악 소리 산해(山海)를 진동하니,

통신사를 보내는 성대한 환송식 광경

물속의 어룡(魚龍)들이 응당이 놀라도다.

해구(海口)를 얼핏 나서 오륙도(五六島) 뒤지우고,

바다의 후미진 곳으로 들어간 어귀. 여기서는 부산항
고국을 도라보니 야식(夜色)이 창망(蒼茫)하야,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沿海) 변진(邊津) 각 포(浦)의
불빛 두어 덩이 구름 밖기 뵈 만하니.

▶부산항 출발 광경

비방의 누어 이셔 내 신세(身勢)를 싱각하니,
궂득이 심란(心亂)헌디 대풍(大風)이 내려나서

심란-마음이 어수선하다. 나그네의 쓸쓸한 감상(객수)을 느끼는 심정
태산(泰山) 궂튼 성난 물결 텅디(天地)의 조옥하니,
큰나큰 만곡주(萬斛舟)가 나모뉘 브치이듯,

만석을 실을 만한 큰 배 나뭇잎-배의 비유적 표현
[하늘의 올랐다가 디함(地陷)의 느려지니.]

땅이 꼭 주저앉은 곳 []: 파도로 인한 배의 움직임을 과장
열두 발 뺑뚫대는 차아(杈桪)쳐로 구버 있고,

나무의 줄기에서 걸가지가 벌어어나가는 분기(分岐)
신두 북 초석(草席) 돛춘 반달쳐로 비블렀니,
굽은 우레 존 별악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헌 농(龍)은 물 속의셔 희롱하니,

높은 파도를 비유 손아귀에 넣고 제멋대로 가지고 놀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잤바지고 업더지고,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상하 좌우 비방 넓은 뉘뉘히 우논구나.
판판하고 넓게 켜 널뉘지 각각의 앞마다 모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남

이윽고 해가 돌거늘 장관(壯觀)을 하여 보시.
니러나 비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문을 세워 놓는 기동

스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홀시고,
인칭 텅디간(天地間)의 이런 구경 또 어디 이실고,
구만 니 우뚝 속의 큰 물결분이로시

아득하게 멀고 넓어서 끝이 없는 모습 : 일망무제(一望無際)
등 뒤호로 도라보니 동니(東萊) 뉘이 눈섭 궂고,
동남을 도라보니 바다히 궂이 업셔,

끝이 없어

우아리 프른 빗치 하늘 밖기 다하 있다.

수평선의 모습을 묘사. 일망무제한 모습(앞의 '장관'과 화살표 연결 要)
슬프다 우리 길이 어디로 가논작고.

흙기 썬는 다솥 비논 간 디를 모롤로다.
스면(四面)을 두로 보니 잇다감 물결 속의
부채만 자근 돛치 들낙날락 하논고나. <중략>

다른 일행들이 탄 배와의 거리감

▶바다의 장관

거센 바람에 돛을 달아 여섯 척의
배가 함께 떠날 때, 약기 소리 산과
바다를 진동하니,

물속의 고기들이 마땅히 놀라도다.
부산항을 열린 떠나 오륙도를 뒤로
하고,
고국을 돌아보니 밤빛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닷가 각 포
구의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서
보일 듯 말 듯하다.

선실에 누워서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마음이 어지러운데 큰 바
람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
니,
만석을 실을 만한 커다란 배가 나뭇
잎이 나부끼듯

하늘에 올랐다가 땅 밑으로 떨어지
니,
열두 발이나 되는 쌍뚫대는 나뭇가
지처럼 굽어 있고,

신두 쪽으로 풀을 엮어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가 블렀네.
큰 천등과 작은 벼락은 등 뒤에서
떨어지고,

성난 고래와 기운 찬 용이 물속에서
제멋대로 노는 듯하네.
선실의 요강과 타구가 자빠지고 얹
어지고,

상하좌우 선실의 널뉘지들은 제각각
우는 듯한 소리를 내는구나.

이윽고 해가 돌거늘 장대한 광경을
구경해 보세. 일어나서 선실 문을 열
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아아! 굉장하도다.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이 또 어디
있을까.

아득한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로다.
등 뒤로 돌아보니 동래의 산이 눈썹
같이 (가물가물 작게 보이고),
동남쪽을 돌아보니 바다가 끝없어,

위 아래로 푸른빛이 하늘 밖에 닿아
있다.

슬프다! 우리의 가는 길이 어디란 말
인가?

함께 떠난 다섯 척의 배는 간 곳을
모르겠도다.

사면을 돌아보니, 이따금 물결 속에
부채만한 작은 돛이 들락날락 하는
구나!

부분 탐구

부산항 출항
환송식을 마치고 부산항을 출항함

바다에서 풍랑을 만남
우레가 치는 가운데 큰 파도를 만나 고생함

바다의 장관
풍랑이 끝난 아침 바다의 장대한 광경을 보고 감탄함

부산항을 출발하기 전, 성대한 환송식을 추보식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항을 출발하며 고국을 떠나는 심정을 풍랑이 이는 바다의 모습에 대비함으로써 화자의 심란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어 풍랑이 그친 아침 바다의 장대한 광경이 펼쳐진다. 기행 기사로서의 여정과 상세한 기상 보고, 주변의 자연 경관 등을 꼼꼼하게 묘사한 점이 두드러진다.

■ 본문 해설 (중략 이후 부분)

이십 리 실상사(實相寺)가[실상사-절 이름-에 가서] 삼사상(三使相)[세 사신, 같이 온 사신 일행] 조복(朝服)[관복으로 갈아 입음.]할 때

나는 내리잡고, 왜성(倭城)으로 바로 가니,

“인민(人民)이 부려(富麗)하기[부유하고 화려하기] 대판(大阪)[오사카]만은 못하여도

서(西)에서 동(東)에 가니 삼십 리라.”하는 구나.[동서로 30리나 되는 일본의 도성 규모에 대한 놀라움-당시 조선의 도성 규모는 10리 정도]

관사(館舍)[객사, 숙소]는 본룡사(本龍寺)요, 오층(五層) 문루(門樓) 위에

열 아문[열이 조금 넘는] 구리 기둥 운소(雲宵)[구름 낀 하늘] 에 달았구나. [하늘에 달을 듯한 구리 기둥에 위용 묘사]

수석(水石)도 기절(奇絶)[아주 신기하고 기이하고] 하고, 죽수(竹樹)도 유취(幽趣)[그윽한 정취] 있네.

왜황(倭皇)이 사는 데라 사치가 측량없다.[교토의 화려함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실상사 주변과 교토에 대한 견문

산형(山形)이 웅장하고, 수세(水勢)도 환포(環抱)[사방으로 둘러싸여] 하여

옥야천리(沃野千里)[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판]생겼으니, 아깝고 애달을손

이리 좋은 천부 금탕(天府金湯)[하늘이 준 좋은 성터, 장소] 왜놈[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단적으로 드러냄]의 기물(器物) [소유, 생활 터전] 되어

칭제 칭왕(稱帝稱王)하며, 전자 전손(傳子傳孫)하니,[대대손손 전하니]

개돌[개, 돼지] 같은 비린 유(類)[무리, 황제를 사칭하는 무리]를 다 모두 소탕하고,

사천 리 육십 주[일본의 행정 구역]를 조선 땅 만들어서

왕화(王化)[임금의 덕행에 의한 교화]에 목욕 감겨 예의국 만들끓다.

▶ 천혜의 자연과 기름진 땅에 대한 감상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

[현대어 해석]

이십 리 실상사에 가서 세 사신들이 관복으로 갈아입을 때에,

나는 내리지 않고 왜성으로 바로 가니,

백성들의 부유하고 화려하기가 오사카만은 못 하여도

서쪽에서 동쪽에 가는 것이 삼십 리라 하는구나.

목을 굶은 봉국사요 오층 문루 위에

여남은 구리 기둥 구름 낀 하늘에 달았구나

물과 돌로 이루어진 자연 경치도 아주 신기하고 기이하며 대나무도 그윽한 운치가 있네.

일본 왕이 사는 곳(교토)이라 사치가 끝이 없다.

산의 생김새가 웅장하고 물의 형세도 사방으로 둘러싸여

끝없이 넓은 기름진 들판이 생겼으니, 아깝고 애달픈 것은
하늘이 내린 이리 좋은 성터가 왜놈들의 생활 터전이 되어
황제라 부르고 천황이라 일컬으며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니
개와 돼지 같은 비린내 나는 무리를 모두 휩쓸어 없애 버리고
사천 리 육십 주를 조선의 땅으로 만들어서
임금님의 교화에 목욕시켜 예의를 아는 국민으로 만들고 싶구나

▣ 본문 해설 (수록 외 부분)

일본에서 통신사를 청함-죽고 칠현의 은둔 사상을 본받은 인생관

평생(平生)의 소활(疎闊)하야 공명(功名)의 쓰디 업니. 진스 청명(淸明) 죽호

→성품이 짜이지 못하고 어설품 →청렴결백하다는 명망

거니 대과(大科)하야 무엇하리. < 당등 제구(場中諸具) 업시 호고

→과거 시험 볼 때 필요한 여러 도구

유산(遊山) 행장(行裝) 출혀 내여 팔도(八道)로 두루 노라 >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간단한 차림새

→작자가 벼슬에 뜻이 없고 음풍 농월하며 산천을 유람하고자 함은 나타낸 것.

명산(名山) 대천(大川) 다 본 후의, 풍월(風月)을 희롱(戲弄)호고

→즐기고

금호(金湖)의 누엇더니, →금강 곧 공주로 김인겸의 집이 있음

<북창(北窓)의(서재-시.술.거문고를 北窓三友라함)좁을 씨야 세상 기별 드러 하니.>

→서재에만 있다가 세상 소식(일본에서 우리나라에 통신사를 청해온 소식) 들으니

관백(關白)이 죽다 호고 통신사(通信使) 청한다니.

→일본의 옛날 관직명(여기서는 도쿠가와 이에시게)

일생을 살아감에 성품이 어설퍼서 입신 출세에는 뜻이 없네. 진사 정도의 청렴하다는 명망으로 만족하는데 높은 벼슬은 해서 무엇하겠는가? 과거 공부에 필요한 도구를 모두 없애 버리고 자연을 찾아 놀러 다니는 옷차림으로 전국을 두루 돌아다니며 명산대천을 다 본 후에, 음풍농월하며 금강 유역에서 은거하고 지냈는데, 서재에서 나와 세상 소식을 들으니 일본의 통치자 토쿠가와 이에시게가 죽고 우리 나라에 친선 사절단을 청한다네.

만조 백관들과의 작별 모습

이 때는 어느 썬고. 계미(癸未) 팔월 초삼이라. 북궐(北闕)의 하덕(下直)호고 남대문 내드라

→경복궁

셔, 관왕묘(關王廟) (서울 도동에 있는 관우의 사당)얼핏 지나 전상서(典牲署)(나라에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기르는 곳) 다드르니, 소항을 전별(餞別)

호랴 만묘(滿朝) 공경(公卿) (고관의 명칭)

→통신사의 일행에게 잔치를 베풀어 작별하려고

다 모닷니. <곳곳이 당막(帳幕)이오(장막이고) 집집이 안마(鞍馬)로다.(안장을 얹은 말로다) >

→사신일행을 전별하는 환송장의 모습 묘사

좌우 전후 외와 들어 인산인해(人山人海) 되어서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 잡고 우탄(吁嘆)호고.(슬피 탄식함) 철 모르는 소년들은 불워하기(부러워 하기) 측량(測量)(생각하여 헤아림)업니.

이 때가 어느 때이고 하면 계미년 8월 3일이라. 경복궁에서 임금님께 하직하고 남대문으로 내달아서 관우의 사당 앞을 열른 지나 전상서에 다드르니, 사신 일행을 전송하려고 만조 백관이 다 모였네. 곳곳마다 장막이 둘러쳐 있고 집집마다 안장을 얹은 말이 대기하고 있도다. 전후 좌우로 모여들어 인산인해가 되었으니 정 있는 친구들은 손 잡고 장도를 걱정하고, 철 모르는 소년들은 한없이 부러워하네.

사신 일행이 출발하는 광경

석양(夕陽)이 거의 되니 노눏치 고별(告別)호고, 상마포(上馬砲) 세 번 노코

→하나하나 →말에 오르라는 신호(출발신호)

차례로 떠나갈시, 절월(節鉞)(사신앞에 등장시키는 깃대와 도끼모양의 물건으로 생살권을 상징함) 전비(前陪) 군관(軍官)(길을 인도하는 군관) 국서(國書)를(임금님의 친서) 인도하고 비단 일산(日傘)(햇빛가리는 양산) 순시(巡視) 녕기(令旗)(군대에서 쓰는 깃대 이름) 소신(使臣)을 뒤편시켰다.(모셨다) 내 역시 뒤를 쫓라 역마(驛馬)를 칩더 트니,(올라타니) 가치옷(때때옷) 지로 나장(指路羅將)(길을 인도하는 하급군인) 깃 쫓고 압희 서고, 마두서자(馬頭書子)(역의 기록을 맡은 역졸) 부촉하고 빵것마(쌍으로 끄는 말, 쌍견마) 잡았구나. 세피놈의 된소리로(큰소리로 외치는 역졸) 권마성(勸馬聲)은(행차할 때 위세를 더하기 위해 외치는 소리) 무슴 일고. 아모리 말나여도(말려도) 전례(典例)하고 부디(굳이) 하니. <백수(白鬚)의(허영게 센 수염) 늙은 선비 졸연(猝然)이(갑자기) 별성(別星)(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외국으로 가는 사신) 노릇, 우습고 괴괴(奇怪)하니 늙 보기 슈괴(羞愧)하다.(부끄럽다)>

→출발광경에 대한 지은이의 생각

석양이 거의 되니 하나하나 이별하고 출발 신호에 따라 차례로 떠나갈 때에, 절과 부월 앞을 인도하는 군관이 국서를 인도하고 비단으로 만든 양산과 순시 영기가 사신을 중심으로 모여 섰다. 나 역시 뒤를 따라 역마에 올라 타니, 때때옷을 입은 지로 나장이 깃을 쫓고 앞에 서고 마두서자가 부촉하고 쌍두마를 잡았구나. 청파역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권마성은 무슨 일인가? 아무리 말려도 정해진 의식이라고 굳이 하네. 수염이 허영게 센 늙은 선비가 갑자기 사신 노릇함이 우습고 괴이하니 남 보기에 부끄럽다.

※ 감상 POINT

영조 39년 한양을 떠나는 출발 광경을 묘사한 것으로 통신사의 행차에 대하여 은거지에서 은거하고 있던 지은이의 성품으로 보아 지나치게 번거로워하는 지은이의 감정을 볼 수 있다. 전반의 환송장의 정경이나, 후반의 출발 광경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묘사하여 당시의 사절단 규모와 사회상을 여실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진사청명으로서의 벼슬은 안해도 선비의 품격을 갖춘 지은이의 덕망을 엿볼 수 있다.

<중략>

↪배를 끌려고

왜선(倭船) 십여 척이 예선(曳船)초로 모다 왔니. (모두모여 마중 나왔네)

<중략>

곳(구경거리) 보논 왜인들이 뒤편 안자 구버본다. 그 등의 스나히논(남자) 머리를 찿가시디 꼭뒤만 쥘고 남겨 고초상토 허여시며 발 벗고 바디 벗고 칼 허나식 초

뒤통수의 한복판 고추같이 작은 상투

이시 며 왜녀(倭女)의 치장들은 머리를 아니 싹고 밀기름 뚱뚱 발라 뒤흐로

잡아 미야 족두리 모양쳐로 둥글게 꾸여 잇고(감았고, 꾸몄고) 쫓춘 두로(둘로)

트러 빈혀를(비녀) 질러시며 무론(無論) 노쇼 귀천(老少貴賤)호고

→노소와 귀천을 막론하고

어레빗술 쏘жат구나. 의복을 보와하니 문 업슨

→얼레빗. 빗살이 굵고 성긴 큰 빗 →옷옷의 양겨드랑이 아래에 댄 탄 폭

두루막이 흥 동 단(옷단) 은 소매 남녀 업시 흥가지요 넉고 큰 접은 싹를 느죽히

↪옷옷의 소매자락이나 소매, 가랑이 등의 끝을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

(느슨하게)둘러 찿고 일용 범씩(日用凡百) 온갖 거슨 가슴 속의 다 품었다.

→날마다 쓰는 온갖 것

남진(남편) 잇는 겨집들은 감아호게(검개) 니(齒)를 칠호고 뒤흐로 싹를 미고 과부 처녀 간나히논(계집아이) 압호로 싹를 미고 니를 칠티 아났구나.

→찰하지 않았구나

왜선 십여 척이 배를 끌려고 마중 나왔네. 곳을 보는 왜인들이 산에 앉아 굽어본다. 그 가운데 사나이들은 머리를 깎았으며 뒤통수 한복판을 조금 남겨 고추같이 작은 상투를 하였으며, 발 벗고 바지 벗고 칼을 하나씩 차고 있으며, 여자들은 머리를 감지 않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로 잡아매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려 있고, 끝은 두 갈래로 틀어 비녀를 찔렀으며, 노인과 어린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열레빔을 꼈구나. 의복을 보아하니, 무 없는 두루마기, 옷단 없는 소매는 남녀 없이 한 가지요, 넓고 큰 접은 띠를 둘러 띠고 날마다 사용하는 온갖 것을 가슴 속에 다 품었다. 남편 있는 계집들은 이를 거머 칠하고 뒤로 띠를 매었으며, 과부, 처녀들은 앞으로 띠를 매고 이는 칠하지 않았구나.

강호(江戶)로 가는 도중 비를 만나 고생함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리는 겨우(겨우) 가서, 날 저물고 대우(大雨)하니 길이 즐기 참혹(질기가 끔찍하여) 밋그럽고 쉬는디라. 가마 맨 다섯 놈이 서로 가며 체번(遞番)하디(교대하는 것), 갈 길이 바히(전혀) 업서 두던에(언덕에) 가마 노코, 이옥이(한참동안) 쥘(躊躇)하코 갈 뜻이 업는지라. 스면을 도라보니 텅디(天地)가 어둡(어둑어둑하고), 일행들은 간디 업고 등불은 꺼져시니(꺼졌으니), 지척(咫尺)은 불분(不分)하코 망망(茫茫)한 대야중(大野中)의(큰 들 가운데) 말 못하는 예놈들만(왜놈들만) 의지하코 안자시니, 오늘밤 이 경상(景狀)(어떤 일의 상황)은 고단코(의지할데 없이 외로움) 위티하디. 교군(驍軍)이(가마 매는 사람) 드러나면 낭피(狼狽)가(일이 실패로 돌아가 매우 딱함) 오죽할가. 그놈들의 오솔 잡아 흔드려 쓰즐(뜻을) 뵈고, 가마 속의 잇던 음식 갖가지로(갖가지로) 내어 주니, 지저기며(무어라 찌꺼기며) 먹은 후의 그제야 가마 매고, 촌촌(寸寸)(조금씩) 전진(전진)하야 곳곳이 가 이려하니, 만일 음식 업드더면 필연코 도주(도주)할씨, 삼경(삼경)은(겨우) 겨우(겨우) 되어 대원성(大垣城)을 드러가니, 두통(두통)하코 구토(구토)하야 밤새도록 대통(대통)하디.(크게 앓음)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이십 리를 겨우 가서 날이 저물고 큰 비가 내리니 길이 끔찍하게 질어서 미끄러워 자주 쉬어야 하기에, 가마 맨 다섯 놈이 서로 돌아가며 교대하되 갈 길이 전혀 없어서 언덕에 가마를 놓고 한참 동안 머뭇거리면서 갈 뜻이 없다. 사방을 둘러보니 천지가 어둑어둑하고 일행들은 간 곳이 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지척을 분간할 수 없고, 넓고 넓은 들 가운데서 말이 통하지 않는 왜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오늘 밤의 이 상황은 몹시 외롭고 위태하다. 가마꾼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그놈들의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보이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을 갖가지로 내어 주니, 저희들끼리 찌꺼기며 먹은 후에 그제서야 가마를 매고 조금씩 나아가는데 곳곳에 가서 이려하니 만일 음식이 없었더라면 필연코 도주했을 것이다. 삼경쯤이나 되어서야 겨우 대원성에 들어가니 머리가 아프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몹시 앓았다.

강호의 번성한 모습

십륙일 우장(우장) 입고 강호(江戶)로 드러갈시, 왼편은 녀염(閭閻)이오, 올흔편은 대히(大海)로다. 피산대해산(避山對海)하야 옥야 천리(沃野千里) 삼겠(삼겠)디, 누디 제택(樓臺第宅) 사치(사치)함과 인물 남(남)녀 번성(번성)하디. 성첩(城堞)이 정장(亭壯)한 것과 고냥(高梁舟楫) 기특(기특)한 것. 대판성(大阪城) 서경(西京)도곤(도곤) 삼비나 더(더)하구나. 좌우의 솟보나 니 하 장(장)하코 무수(무수)하니, 서어(齟齬)한 붓(붓) 굵초로(이로) 귀록(귀록) 못(못) 할로다. 삼십(삼십) 리 오는 길(길)히 빈틈(빈틈) 업(업)시 못(못)거시니, 대체(대체)로 헤어(헤어) 보면(보면) 백만(백만)을 여러(여러) 힐(힐)쇠. 녀식(女色)의 미려(美麗)하(하)기 명호옥(名護屋)과 일반(일반)일디.

16일에 비옷을 입고 강호(동경)로 들어갈 때에 왼편은 마을이요, 오른편은 바다(태평양)로다. 산을 피하고 바다를 향해 있는 들판이 옥야 천리로 생겼는데 높은 누각과 집들은 사치스럽고 사람들이 번성하다. 성곽의 높고 장한 모습과 다리와 배의 대단한 모습이 대판성 서경보다 3배는 더하구나. 좌우에 구경하는 사람이 몹시 장하고 숫자가 많으니 어서론 붓끝으로는 이루 다 적지 못하겠도다. 삼십 리 오는 길이 빈틈없이 인파로 이어져 있으니, 대체로 헤아려 보면 백만이 여럿이로구나. 여자들의 모습이 아름답기가 명고옥(나고야)과 한가지다.

실상사에 묵으면서 그 곳에서 일어난 역사를 회고함

실상사(實相寺)에 드러가니 여기도 무장쥬(武藏州)의(일본의 서북부 지역이름) 쇠(쇠)의(일본의 서북부 지역이름) 원가강(源家康)(덕천가강-풍신수길)에 이어 통일(통일) 일본의 통치(통치)자가 됨(통치자가 됨)이 무장쥬 태수(太守)로서, 평슈길(平秀吉)(풍신수길) 죽은 후의 평가(平家)를(풍신수길의) 업(업)시하코 이(이) 싸의(싸) 도움(도움)하야 강(강)하코(가)음(음)열(열)며(부유하며), 비포(排布)(궁리하여) 일을(일) 이(이)리(리)저(저)리(리) 조(조)리(리)있게(꾸밈)가(신밀) 신밀(慎密)하코(신중하고 은밀함) 법(법)녕(法令)도(엄준) 엄(嚴)峻(峻)하(하)여, 지(지)려(慮)(생각)가(심장) 심(深)장(長)하(하)야(매우) 깊(깊)음(음) 왜(왜)국(倭國)을(통일) 하니, 아(아)모(모)커(커)나(제) 뉴(類)의(의)는(무리) 영(영)웅(웅)이라(하)리(리)로(로)다.

가강(家康)이 죽은 후의 자손이 니어서서, 이 때까지 누려 오니 복력(福力)이 가득하다. 십칠 일 비 개잔코(개지 않고) 실상스셔 묵으니라. <하략>

실상사로 들어가니 여기도 무장주일세. 처음에 덕천 가강(도쿠카와 이에야스)이 무장주의 태수로서, 풍신 수길의 죽은 후에 그 가계를 없애 버리고, 이 땅(강호)에 도읍을 정하여 강하고 풍요로우며, 일을 계획함이 신중 은밀하며 법령도 엄격하고 생각하는 것도 깊어서 왜국을 통일하니, 아무튼 제 무리에서는 영웅이라고 하겠도다. 덕천 가강이 죽은 후에 자손이 이어져서 이 때까지 누려 오니 복력이 기득하다. 17일에는 비가 개지 않아서 실상사에서 묵었다.

■ 작품 해설

※일동(日東)은 일본, 장유(壯遊)는 사신행렬의 장한 모습

■ 이해와 감상, 1

조선 영조 때의 문인 김인겸의 작품으로, 영조 39년 조엄이 통신사로 일본으로 갈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작가가, 출발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여정과 일본의 문물 제도, 인물, 풍속 등의 견문을 기록한 기행 가사**이다. 영조 39년 8월 3일 한양을 출발하여 이듬해 7월 8일 경희궁에 들어가 복명(復命)할 때까지의 약 11개월에 걸친 긴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한 것으로, 총 4책 8,000여 구나 되는 대작이다.

정확한 노정(路程)과 일시(日時)를 적고, 날씨, 자연 환경, 일어난 사건, 작자의 느낌 등을 과장 없이 그대로 묘사했을 뿐 아니라 도처에 **날카로운 비판과 유머**가 곁들여져 있어 기행 문학의 묘미를 십분 살려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홍순학의 <연행가>와 쌍벽을 이루는 장편 기행 가사의 백미(白眉)로 일컬어진다.

■ 이해와 감상, 2

<일동장유가>는 조선 영조 때 작자가 계미통신사의 삼방서기로 발탁되어 일본을 다녀와서 지은 장편의 기행 가사이다. 긴 노정(서울 - 부산 - 대마도·대판성 - 애도)에 따라 보고 들은 사건, 일본의 풍속, 제도, 인정 등 실제 답사에서 얻은 경험을 소상하게 기록하였고, 여정이나 지명, 인명 등은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일본의 풍속과 문물을 묘사하는 부분은 일본의 낯선 문물에 경도당하지 않고 객관적인 관찰과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켜 작자의 통찰력과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이 작품은 길이가 총 3,500여 구에 달하는 장편이어서 당시 외교사절단의 규모와 일본의 풍속, 한일 양국의 외교 방법 등 한·일 외교사의 측면에서도 귀중한 자료이다. 또 시가 문학사에서는 초기 가사의 정형성을 여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서술로 바꾸면서 그 길이를 늘려 나가는 후기 장편 가사의 극단을 보여주는 예로 평가된다.

<일동장유가>와 같은 성격의 가사 문학은 조선 초기의 송강 정철의 가사 중 <관동별곡> 기행가사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관동별곡>과 <일동장유가>는 구조나 작자 의식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두 작품이 기행가사라는 점에서는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관동별곡>의 경우 작자 의식은 철저히 주자학적 이데올로기에 바탕하고 있다. 때문에 작자가 접하는 사물 역시 그러한 이데올로기 안에서 새로이 환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일동장유가>의 작자는 대상을 자체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관심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 자체의 서술과 작자의 느낌이 더불어 표현되므로 나열·병치의 서술 경향을 드러낸다. 이 같은 작자 의식의 차이는 형식에도 영향을 주어 <관동별곡>이 '서사 - 본사 - 결사'라는 정형화된 구조를 지니는 데 비해, <일동장유가>는 그러한 정형성에 구애됨이 없이 여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열거해 나감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보인다. 이러한 장편화 경향은 조선 후기에 두드러진 산문 정신의 확대와 실학 정신의 영향, 그리고 작자층의 확대 및 견문의 다양화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짧고 정형화된 형식으로는 사물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모두 담아 낼 수 없었다는데 이유가 있다.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와 더불어 후기 기행가사의 쌍벽을 이루는 작품으로 기행가사의 백미에 속한다. 그리고 정확한 노정, 일시, 날씨, 환경, 사건, 작가의 느낌을 과장 없이 묘사하였으며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곁들여 있어 기행 문학의 본령을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일동장유가>는 일본사행기의 전통 속에 놓인다. 그러나 기존 사행기와는 달리 가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행기가 한문으로 된 교술 산문이라면 이 작품은 국문으로 된 교술 율문이다. 즉 교술 산문으로만 되어 있던

사행문을 국문의 교술 율문으로 바꾼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이 작품으로 인하여 조선후기 가사는 그 외연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째 단락은 한양에서 출발하여 부산에 이르는 동안이고 둘째 단락은 부산에서 에도에 도착하여 국서를 바치기까지, 셋째 단락은 에도에서 한양까지이다. 첫 단락에서 주목되는 사건은 '호반과 선비'의 싸움으로 서얼 신분인 서기들에 대한 군관, 서리배의 얄잡아 봄이 그 사건의 빌미다. 둘째 단락은 일본 도회의 번성함에 대한 사실적 서술과 함께 작자의 이용후생적 관심이 주목된다. 즉 작자는 화이론이나 명분론이 아닌 현실을 수용하는 경험론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김인겸은 반일에 대한 감정은 있었으나 그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때문에 일본 체험을 비교적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었다. 더욱이 사물에 대한 묘사는 대단히 자세하다. 이는 작자의 정밀한 관찰의 결과이다. 즉 이용후생적 관심의 표출인 셈이다. 나아가 일본 문사들과의 교류를 비교적 폭넓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로 인해 작자는 일본인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다소간 시정하고 새로운 이해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 작품은 일본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일본 민중에 대한 관찰, 일본의 학술이나 기술 문명의 수준에 대한 관심은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그때그때 견문한 것을 경험적 차원에서 성실하게 기술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19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이 이미 배태되고 있던 당시에 일본의 위상과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 등이 진지하게 성찰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1763, 4년 당시의 일본 사정을 요모조모 국문으로 기록하여 국내에 알렸다는 점, 조선 후기 가사에 일본 체험을 부여하면서 그 외연을 확대시켰다는 점이 작품의 의의이다.

■ 핵심 정리

- * 연대 : 영조 40년(1764)
- * 작가 : 김인겸(金仁謙)
- * 종류 : 장편 기행 가사(8,000여구)
- * 형식 : 4음보(3.4 또는 4.4조)
- * 제재 : 일본의 풍속, 제도, 인정
- * 주제 : 일본의 풍속, 제도, 인정 등 일본 여행에서 얻은 견문
- * 출전 :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 * 의의 : 총 4책으로 8,000여 구나 되는 장편 기행 가사이며, 조선 말 외국 기행 가사로서 <연행가>와 쌍벽을 이루고 있으며 기행 가사의 백미에 해당된다. 정확한 노정과 일시를 적고, 날씨, 자연 환경, 일어난 사건, 작자의 느낌등을 과장없이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 날카로운 비판과 유우머가 곁들여 있어 기행 문학의 본령(本領)을 충분히 발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일동장유가>의 노정(路程)

영조 39년(1763) 계미(癸未)에 일본측에서 수교를 청하여 왔으므로 우리 나라에서 통신사를 보내게 되었다. 이를 속칭 계미 통신사라고 한다.

영조 39년 8월 3일 서울을 출발, 8월 20일 부산 도착, 10월 6일 부산항 출발, 대마도를 거쳐 일본 본토를 가로질러 이듬해 1월 20일 오오사카(大阪) 도착, 목적지인 에도(江戸, 지금의 동경)에는 2월 16일에 도착하였으니 얼마나 긴 여행이었던지 알 수 있다. 돌아오는 길도 이와 같았다. 에도를 떠난 것이 3월 11일, 부산에 도착한 것이 6월 22일, 서울에 돌아와 경희궁에 복명(復命)한 것이 7월 8일이었으니 11개월의 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이었다.

■ <일동장유가>의 구성

제 1 권(여행 동기와 행장 212구)

일본에서 친선 사절을 청하여, 여러 수속 끝에 8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용인,

충주, 문경, 예천, 안동, 영천, 경주, 울산, 동래를 거쳐 부산에 이름.

제 2 권(동경까지의 노정과 견문 소감 5845구)

10월 6일, 부산에서 승선하여 발선(發船)하는 장면에서부터 대마도, 일기도(壹岐島), 축전주(築前州), 남도(藍島)를 거쳐 적간관(赤間關)에 도착하여 머뭇.

제 3 권(동경에서의 관경 소감 368구)

정월 초하루 적간관의 명절 이야기로부터 오사카, 교토, 와다오라, 시나키와를 거쳐 에도(江戸)에 들어가 사행

(使行)의 임무를 마칩.

제 4 권(돌아오는 노정과 창작 동기 1818구)

3월 11일 귀로에 올라, 6월 20일 부산에 귀환, 7월 8일 서울에 와서 영조께 복명(復命)함.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교재 수록 부분)

산악 같은 높은 물결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케 되겠구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기신 되려니와 서풍낙일 먹라수에 굴삼려는 불원이라.

구절 풀이

* **조리 짓듯** : 쌀을 일거나 물기를 뺄 때 쓰는 조리를 짓듯이 즉 큰 파도가 배를 이리저리 마음껏 흔들어대는 모양 * **마자 진(盡)케** : 그마저 끝나게 * **초한건곤(楚漢乾坤)** :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건곤일척의 큰 승부를 가름 * **한(漢) 영중(營中)** : (싸움에서 승리한) 한나라 군영 안의 * **장군기(將軍旗)** : 장군을 표시하는 깃발 * **서풍낙일(西風落日)** : 가을바람에 해는 떨어지고 * **굴삼려(屈三閭)** : 삼려대부의 벼슬을 하던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 **불원(不願)** : 원하지 않음. 즉 물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음

산악과 같은 높은 물결이 배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를 마치 조리를 짓듯 흔들어대니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것처럼 토약질이 나오는구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이 그나마 다하게 되겠구나. 초(楚)와 한(漢)이 패권을 다투매 한(漢)나라 진영 안의 장군기가 될지언정 서풍에 해떨어질 때 먹라수에 빠져죽는 굴원이 되기는 원치 않도다.

차역천명 할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니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이라.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냐니 바다이요 들리냐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이로다. 해수로 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끊졌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구절 풀이

* **차역천명(此亦天命)** : 이것 역시 하늘이 낸 운명이다 * **일생일사(一生一死)** : 죽고 사는 것 * **출몰사생(出沒死生)** : 죽음과 삶 사이를 헤멤 * **삼주야(三晝夜)** : 3일 밤낮 * **도중(島中)** : 섬 안 * **태심(太甚)** : 아주 심하다 * **벽해상전(碧海桑田)**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 * **천작지옥(天作地獄)** : 하늘이 만든 지옥 * **운산(雲山)** : 구름과 산 * **끊졌으니** : 끊어졌으니, 단절되었으니 * **인간(人間)** : 인간세상 * **풍도(豐都)섬** :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지옥

현대어 풀이

이것 역시 하늘의 운명이니 어찌할 길이 없구나.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삼일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여러 번 한 후에 노와 닳을 아래로 내리니 물길 천리를 다 지나고 추자섬이 바로 여기로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가 극히 심하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으랴. 보이냐니 바다요, 들리냐니 물소리라. 벽해(碧海)와 상전(桑田)이 나뉘어진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은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산으로 문을 만들어 인간세상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인간세계가 아니로다. 가장 나쁜 지옥이라는 풍도(豐都)섬이 어디이나, 지옥이 바로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집으로 가잔말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얽더진다. 이 집애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애가 의지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이집 저집 아모덴들 적객주인 뉘 좋다고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맡았으니 관차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

상한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네는 인정 받고 손님네는 흑언들어 구태어 내 집으로 연분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 없고 물 속으로 생애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옷넙에 장사 가니 삼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구절 풀이

* 연고(緣故) 있다 칭탈(稱頌)하네 :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네 * 아모덴들 : 어느 곳인들 * 적객주인(謫客主人) : 귀양객을 받아들인 집의 주인 * 관력(官力) : 관청의 위력 * 세부득이 : 형세가 부득이하야, 어쩔 수 없이 * 헤어보소 : 헤아려보시오, 생각해보시오 * 인정(人情)받고 : 뇌물을 받고 * 흑언들어 : 미혹된 말을 들어 * 살이 : 살림살이 * 담박(淡泊) : 깨끗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음 * 물속으로 생애하여 : 물속에서 건져 내는 물고기 등으로 생활을 함 * 옷넙 : 옷동네 * 삼망 : 그물의 일종, 삼마이 그물이라고도 함

현대어 풀이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누구의 집으로 가자는 말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얹어진다. 이집에 가서 의지하자하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대고, 저 집에 가서 의지하자하니 받지 못할 까닭이 있다며 핑계를 대네. 이집 저집 아무데인들 귀양객을 맡은 주인이면 누가 좋다고 할 것인가. 관청의 위력으로 핍박하니 형세가 부득이하야 말았으니 관차(官差)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불평의 말을 만만한 내가 듣게 되는구나. 세간그릇 흠어 던지며 역정 내며 하는 말이 “저 나그네 생각해보소. 주인인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건만 관차들은 뇌물을 받고 귀양객 당신은 미혹(迷惑)된 말을 들어 구태어 내 집으로 무슨 연분이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살이가 깨끗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보면 모를까. 앞뒤에 전답(田畠)이 없고 물속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을 하여 앞 언덕바위에서 고기를 낚아 옷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니 삼망 그물로 얻은 보리 몇 섬 있는 것은 믿을 것이 아니로세.

신검처자 세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양식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보고. 집이라고 서 불손가 기어 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 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뉘자리 한 잎 주어 침하게 거쳐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즈생도 하도할사.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의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하고 별표에 배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구절 풀이

* 신검처자(身兼妻子) : 홀로 있는 몸이 아니고 세 식구(食口)임 * 호구(糊口) : 입에 풀칠을 한다는 뜻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 감 * 뉘자리 : 갈대로 엮은 자리 * 침하게 : 처마 밑에 * 냉지(冷地)에 누습(漏濕)하고 : 찬 땅에 축축한 기운이 스며남 * 발남은 구렁배암 : 한 발이 넘는 구렁이 * 뺨남은 청진의라 : 한 뺨이 넘는 푸른 지네 * 별표 : 별의 표식

현대어 풀이

혼자도 아니고 처와 자식도 있으니 세 식구의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양식도 없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려 하고.” 집이라고 서 불손가 기어들어가고 기어나가며 방 한 칸에 주인이 들고 나그네인 나는 잘 데가 없네. 갈대로 엮은 자리 한 장 주어 처마 밑에서 거쳐하니 찬 땅에 습기가 축축하고 벌레들도 많기도 많구나. 한 발도 넘는 구렁이, 한 뺨도 넘는 푸른 지네라. 좌우로 빙 둘러 지나가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해는 지고 그믐밤은 어두운데 남북의 마을 두세 집에서 관솔 등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는 내 근심을 돋우려고, 별의 표식에 따라 배가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땀이 한 종자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구절 풀이

*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평이** **한** **종자라** : 아주 거친 밥과 반찬을 이름 * **무장** : 잘게 부순 메주를 연한 소금물에 담가 달이지 않고 담그는 날간장으로서 담수장(淡水醬)이라고도 한다 * **간간이라** : 간혹 있다 * **남방염천(南方炎天)** : 남쪽지방의 뜨거운 여름 * **덕석** : 명석을 말한다. 벧짚으로 만들어서 곡식을 말릴 때 주로 쓴다 * **내암새** : 냄새

현대어 풀이

눈물로 밤을 새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 덜 익은 보리밥에 날간장 한 접시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때가 자주 있다. 여름날 긴긴 날에 배가 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살펴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지방의 찌는 듯한 날씨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 땀이 올라서 굴뚝을 막아놓은 명석인 것처럼 더럽고 축축하다. 덥고 검은 것은 내놓고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어찌하리. 아아! 내 신세야 가련하게도 되었구나.

▣ 본문 해설 (전문 분석)

어와 벗님네야 이 내 말씀 들어보소. 인생 천지간에 그 아니 느껴온가.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지 백년이라. 하물며 백년이 반듯기 어려우니 백구지과극이요 창해지일속이라. 역려 건곤에 지나가는 손이로다. 빌어온 인생이 꿈의 몸 가지고서 남아의 하올 일을 역력히 다 하여도 풀 끝에 이슬이라. 오히려 덧없거든 어와 내 일이야. 광음을 헤어보니 반생이 채 못되어 六六에 돌이 없네. 이왕 일 생각하고 즉금 일 헤아리니 번복도 측량없다.

구절 풀이

* 느껴온가 : 어떤 느낌이 마음에 북받쳐서 벅차오르지 않은가? * 다만지 : 다만 * 반듯기 : 반듯하게 살기, 평탄하게 살기 * 백구지과극 : 백구과극(白駒過隙), 사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것은 마치 흰 말이 달려가는 것을 문틈으로 보는 것처럼 순식간임 * 창해지일속(滄海之一粟) : 인간은 무한한 우주 속에 한 톨의 쌀처럼 미미하고 보잘 것 없음 * 역려건곤(逆旅乾坤) :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를 지나는 나그네와 같음 * 꿈의 몸 : 꿈처럼 허망하고 덧없는 인간의 몸 (인생) * 남아(男兒) : 남자 * 역력히 : 날날이, 똑똑히 * 풀 끝에 이슬 : 풀끝에 맺힌 이슬처럼 인생이 허망하고 덧없음 * 광음(光陰) : 세월 * 六六에 돌이 없네 : 6X6=36에 2가 부족하니 34세 * 즉금(卽今) : 지금, 현재 * 번복(翻覆) : (예전과 지금을) 뒤바꿈

현대어 풀이

아아! 벗님들이여 이 내 말씀을 들어보오. 인간으로서 천지에 살아감에 느껴온 바가 얼마나 많은가? 평생을 다 살아도 다만 백년뿐이라. 하물며 그것도 순탄하게 살기가 어려우니 인생이란 문틈으로 흰말이 달려가는 것을 흘깃 보는 정도로 빠르며, 푸른 바다에 좁쌀 한 톨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로다. 또 천지간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로다. 이처럼 빌려온 인생이 꿈의 몸을 가지고서 남자의 할 일을 날날이 다 한다 해도 풀끝에 맺힌 이슬처럼 허망하여 오히려 덧없거든 아아! 내가 저지른 일이어! 세월을 헤아려보니 반평생이 채 못 되고 이제 겨우 서른넷이로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지금의 일을 헤아리니 다시 번복하자 해도 하릴없구나.

승침도 하도할사 남대되 그러한가 내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내 일이라 내 역시 내 몰라라. 장우단탄 절로 나니 도중상감 뿐이로다. 부모생아 하오실 제 제 죽은 나를 나오시니 부귀공명 하려던지 절도고생 하려던지 천명이 기압던지 선방으로 서험한지 일주야 죽은 아해 홀연히 살아나네. 평생길흉 점복할 제 수부강녕 가졌으니

구절 풀이

* 승침(昇沈) : 올라감과 내려감, 인생의 기복 * 남대되 : 남들에게도 * 장우단탄(長吁短嘆) : 길고 짧은 탄식 * 도중상감(途中傷感) : 중도에 느끼는 비참한 느낌 * 부모생아(父母生我) : 부모가 나를 낳음 * 절도고생(絕島苦生) : 외딴 섬에서 고생을 함 * 선방(仙方) : 신선들이 쓰는 방책 * 서험(瑞驗) : 상서로운 징험 * 점복(占卜) : 점을 침 * 수부강녕(壽富康寧) : 오래살고, 부하며 편안하고 건강한 것

현대어 풀이

인생의 기복이 많고도 많구나. 남들도 그러한가? 나만 홀로 이러한가? 아무리 나의 일이라 해도 나도 역시 모르겠구나. 길고 짧은 한탄이 저절로 나니 도중에 느끼는 비애감뿐이로다. 부모님이 나를 낳으실 때 죽은 나를 낳으시니 부귀공명을 누리려고 그랬던지 절도에서 고생을 하려고 그랬던지 천명이 기압하던지 신선들의 방책(方策)을 써서 상서로운 징험을 한 지 만 하루 만에 죽은 아이가 홀연히 살아나네. 평생의 길흉을 점칠 때 수부강녕의 좋은 괘를 얻었으니

귀양 갈 적 있었으며 이별순들 있었으랴. 빛난 채의 몸이러니 노래자를 효측하여 부모앞에 어린 체로 시름없이 자라더니 어와 기박하다 나의 명도 기박하다. 십일세에 자모상에 호곡애통 혼절하니 그때나 죽었더라면 이때 고생 아니 보리. 한 번 세상 두 번 살아 인간행락 하려던지

구절 풀이

* **이별수들** : 이별수(離別數)인들, 이별하는 점괘인들 * **노래자(老萊子)** :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의 학자. 70세에 어린 아이 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여 늙은 부모를 위안하였다고 한다 * **효측(效則)** : 본받을 * **기박** : 기구하고 박복함 * **호곡애통(號哭哀痛)** : 큰소리로 울며 애통해함 * **인간행락** : 인간 세상의 행복을 누림

현대어 풀이

귀양 갈 점괘가 있었으며 이별하는 수(數)인들 있었으랴. 빛나는 체의 몸으로서 나이 70에도 때때옷을 입고 부모님께 어리광부린 노래자를 본받아 부모 앞에서 어리광부리며 시름없이 자랐는데, 아야! 기구하고 박복하구나, 나의 운명이 기구하고 박복하구나. 열한 살에 어머니를 잃고 소리 높여 통곡하다 기절하니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지금 고생은 보지 않았을 것을. 남들은 한 번 사는 세상에 나는 두 번 살아서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려던 것이지

종천지통 슬픈 눈물 매봉가절 몇 번이고. 십년양육 외가은공 호의호식 그렸으랴. 잊은 일도 많다마는 봉공무하 함이로다. 어진 자당 들어오셔 임사지덕 가지시니 맹모의 삼천지교 일마다 법이로다. 증모의 투저함은 날 믿어 아니시리. 설리에 읍죽함은 지성이 감천이요 백이의 부마함은 효자의 할 바로다. 입신하여 양명함은 문호의 광채로다. 행세의 으뜸 일이 글 밖에 또 있난가.

구절 풀이

* **종천지통(終天之痛)** :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큰 슬픔 * **매봉가절(每逢佳節)** : 매양 슬픔으로 명절을 맞음 * **외가은공** : 외갓집의 은공 * **임사지덕** : 임사는 주문왕의 아내 태임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내의 현숙한 덕행을 일컫는 말 * **맹모삼천지교** :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세 번이나 이사를 함 * **법(法)이로다** : 모범이 되다 * **증모의 투저** : 증자의 어머니가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을 세 번 듣고 베틀의 북을 내던지고 도망하였다는 말로 남을 참소(讒訴)하는 말을 곧이들음 * **설리(雪裏)에 읍죽(泣竹)** : 효자 고시(高柴)의 고사(故事). 어머니가 죽순(竹筍)을 즐겨 먹는데, 겨울이라 구할 수 없어 대밭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죽순이 별안간 솟아 나왔다고 함 * **문호(文豪)** : 뛰어난 문학 작품을 많이 써서 알려진 사람 * **광채(光彩)로다** : 영광이로다

현대어 풀이

하늘을 뚫을 것 같은 아픔에 슬픈 눈물을 흘리며 명절을 맞았던 것이 몇 번이던고. 십년동안이나 키워주신 외갓집의 은공에 호의호식이 그리웠으랴. 잊은 일도 많지만 그 공덕은 흠 없이 완벽하였다 할 것이로다. 어진 새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임사지덕을 갖추었으니 맹자 어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하시는 일마다 법도대로 하시는구나. 증자 어머니가 베틀의 북을 내던진 일을 보건대 나를 믿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눈 속에서 죽순을 캐 일한 지성이면 감천한 까닭이요, 백이가 문왕의 말을 붙들고 은나라 정벌을 만류한 것은 효자의 할 일이로다.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림은 문사(文士)들의 영광이로다. 행세하는 데에 제일가는 일이 글 밖에 또 있는가?

동사고문 사서삼경 당음장편 송명사를 세세히 숙독하고 자자이 외웠으니. 읽기도 하려니와 짓긴들 아니하랴. 삼월춘풍 화류시와 구추황국 단풍절에 소인묵객 벗이 되어 음풍영월 일삼을 제 당시의 조격이요 송명시의 재치로다. 문여필이 한가지라 어느 것이 다를손가. 짓기도 하려니와 쓰긴들 아니하랴. 변화감제 부벽서와 사치공자 병풍서를 왕우군의 보체런가 조맹부의 축체런가. 여러가지 잘하기로 일시재등 일컫더니 오매구지 요조숙녀 전전반측 생각하니,

구절 풀이

* **동사(東史)** : 동국(東國)의 역사(歷史)란 뜻으로, 우리나라의 역사(歷史)를 일컫는 말 * **당음장편(唐音長篇)** : 당음과 장편. 당(唐)나라 때의 잘 지은 시를 뽑은 책과 제한 없이 긴 고시체의 시 * **자자(字字)이** : 글자 하나하나 * **화류시(花柳時)** : 꽃과 버들이 한창인 계절 * **구추황국(九秋黃菊)** : 구월달의 노란 국화 * **조격(調格)** : 시 따위의 가락과 격식 * **문여필(文興筆)** : 글짓기와 글쓰기 * **왕우군(王右軍)** : 왕희지, 중국(中國) 진(晉)나라 시대(時代)의 서예가 * **조맹부(趙孟頫)** : 중국 원나라 때의 화가, 서예가 * **일시재등** : 당시의 뛰어난 신동 * **오매구지(寤寐求之)** : 오매불망 구하려고

힘씀 * **전전반측(輾轉反側)** : 고민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임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옛 역사와 옛 글, 사서삼경, 당음과 장편, 송나라와 명나라의 역사를 세세하게 숙독하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외웠으니 책을 읽기도 하려니와 글을 짓기인들 아니하랴. 삼월 춘풍에 꽃피고 버들 숲 우거질 때와 가을에 노란 국화 피고 단풍이 들 때에 소인묵객과 벗이 되어 음풍영월로 일을 삼을 때 당나라 시의 품격을 갖췄으며 송나라 명나라 시의 재치를 닮았도다. 글짓기와 글씨쓰기가 한가지로 중요하니 글을 짓기도 하려니와 쓰기인들 아니할쏘냐. 변화감제한 부벽서와 사치공자 병풍글씨를 쓰니 왕희지의 보체이던가 조맹부의 축체이던가. 여러 가지를 모두 잘하기에 한때의 재동(才童)이라 일컬으니 자나 깨나 요조숙녀를 구하기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하더니

동방화촉 늦어간다 이십년에 유실이라. 유폐정정 법을 받아 삼종지의 알았으니 내조에 어진 처는 성가할 징조로다. 유인유덕 우리 백부 구세동거 효측하여 일가지내 한데 있어 감고우락 같이 하니 의식분별 뉘 아던가. 세간구처 내 몰래라 입신양명 길을 찾아 권문귀택 어디어디 장군문하 막빈인가 승상부중 기실인가 천금준마 환소첩은 소년 놀이 더욱 좋다. 자극맥상 변화성은 나도 잠간 하오리다. 이전 마음 전혀 잊고 호심광흥 절로 난다.

구절풀이

* **동방화촉(洞房華燭)** : 부인의 방에 촛불이 아름답게 비친다는 뜻으로, 신랑이 신부의 방에서 첫날밤을 지내는 일 * **유실(幽室)이라** : 부인을 맞이함 * **유폐정정(幽閉貞靜)** : 아주 깊이 감추어둔 곧고 맑은 부녀자의 덕 * **삼종지의(三從之義)** : 봉건시대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도리, 곧, 어려서는 아버지를 좇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좇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을 좇음 * **성가(成家)** : 일가(一家)를 이룸 * **유인유덕(有仁有德)** : 어질고 덕이 있음 * **구세동거(九世同居)** : 아홉 세대의 친족(親族)이 한 집안에 삶. 집안이 화목(和睦)함을 이르는 말 * **일가지내(一家之內)** : 한 집안 안에 * **감고우락(甘苦憂樂)** : 달고 쓰고 근심스럽고 즐거움 * **권문귀택(權門貴宅)** : 권문세가의 존귀한 집안 * **막빈(幕賓)** : 장군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벼슬아치 * **기실(記室)** : 기록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 **천금준마환소첩(千金駿馬換小妾)** : 위나라 조창(曹彰)은 어떤 말을 보고 탐이 났으나, 그 주인이 절대로 팔려고 하지 않자 자신의 첩과 바꾸었다고 함. * **호심광흥(豪心狂興)** : 호기로운 마음과 미친 듯한 흥취

현대어 풀이

결혼이 늦어간다. 스무 살에 부인을 맞이하였도다. 깊고도 맑은 부녀의 덕성을 모범으로 삼아 삼종지도 잘 지키니 내조를 잘하는 어진 마누라는 장차 한 집안을 일으킬 징조로구나. 어질고도 덕이 많은 우리 큰아버지 아홉 세대가 함께 거처한 중국의 일을 본받아 한 집안 안에 모두 살아 기쁘나 슬프나 함께하니 편을 가르거나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살림살이는 나 몰라라 팽개치고 입신양명의 길을 찾아 권문세가면 어디어디라도 찾아가고, 장군문하에 막빈처럼 드나들기, 승상부 안에 기실(記室)인 것처럼 드나들기, 천금준마 훌륭한 말은 첩과 바꾸더라도 좋으니 바로 소년들의 호기로운 놀이로다. 자극맥상 변화성은 나도 잠간 하오리다. 이전의 차분한 마음은 전혀 잊어버리고 호기로운 마음과 미친 듯한 흥이 절로 나는구나.

백마왕손 귀한 벗과 유희경박 다 따른다. 무릉장대 천진교도 명승지라 알려지다. 삼청운대 광통곶들 놀이처가 아니런가. 화조월석 빈 날 없이 주사청루 거닐 적에 만준향료 진취하고 절대라군 침닉하여 취대라군 고운 태도 청가묘무 회롱할 제 풍류호사 괴 뉘시고. 주중선군 부러하랴 만사무심 잊었더니 일조출연 양심 나네. 소년놀이 그만하자 부모근심 깊으시다 맥상변화 자랑마라 구리화도 늦어간다.

구절풀이

* **유희경박(幽峽輕薄)** : 경박한 건달들 * **화조월석(花朝月夕)** : 꽃피는 아침과 달뜨는 저녁, 좋은 나날들 * **주사청루(酒肆靑樓)** : 술집과 기생집 * **만준향료(滿樽香料)** : 잔에 가득찬 술과 향기로운 요리 * **진취(盡取)** : 남김없이 다 마시고 먹음 * **침닉(沈溺)** : 깊이 빠져들 * **취대라군(翠黛羅裙)** : 진한 눈썹을 하고 비단치마를 입은 미인 * **청가묘무(淸歌妙舞)**

舞) : 맑은 노래와 멋진 춤 * 주중선군(酒中仙君) : 술 속의 신선 * 만사무심(萬事無心) : 모든 일에 무관심함

현대어 풀이

백마를 탄 왕손(王孫)같은 귀한 친구와 경박한 건달들이 다 따른다. 무릉장대와 친진교도 명승지의 이름이 낮고 삼청운대, 광통교인들 놀이터가 아니던가. 꽃피는 아침 달뜨는 저녁, 하루도 쉬지 않고 술집과 기생집을 거닐 때에 잔에 가득 찬 술과 향기로운 요리를 남김없이 먹고 마시고, 절대가인에게 흠뻑 빠져서 미인의 고운 자태와 노래와 춤을 즐길 때 이처럼 풍류와 호사를 즐기는 자가 그 누구인가? 술 속의 선선을 부러워하라. 다른 모든 일에 무심하여 잊었더니 하루 아침에 홀연히 양심이 드는구나. 소년놀이는 그만하자. 부모님의 근심이 깊으시다. 맥상변화 자랑마라 구리화도 늦어간다.

옛마음 다시 나서 하던 공부 고쳐하여 밤을 새워 낮을 이어 일시불철 하난고야. 부모봉양 하려던지 내 몸 위한 일이런지 수삼년을 각고하니 무식지인 면하거다. 어와 바랐으랴 꿈결에나 바랐으랴. 어악원에 들어가서 금문옥계 문을 열어 디미니 천하온 몸이 천문근처 바랐으리. 금의를 몸에 감고 옥식을 베고 있어 부귀에 싸였으며 변화에 잠겼세라. 일진겸대 삼사처는 궁임뿐이 아니로다.

구절 풀이

* 무식지인(無識之人) : 무식한 사람 * 금문옥계(金門玉階) : 금으로 된 문과 옥으로 된 계단. 궁궐의 비유 * 천(賤)하온 : 미천(微賤)한 * 천문(天門) : 대궐, 궁궐의 문 * 금의(錦衣) : 비단 옷 * 변화(繁華) : 번잡하고 화려함

현대어 풀이

옛 마음이 다시 나서 하던 공부 다시 하며 밤낮을 새워 불철주야하는구나. 부모봉양을 하려했던지, 내 몸을 위해서였는지는 모르나 수년을 각고의 노력으로 공부하니 무식한 사람은 면하였다. 아아! 바랐으랴. 꿈속에서라도 바랐으랴. 어악원(御樂院)에 들어가 금문옥계(金門玉階) 화려한 문을 열고 들어가니 천(賤)한 내가 감히 대궐문을 드나드는 것을 바랐으랴. 금으로 된 옷을 입은 것 같고 옥으로 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부귀에 쌓였으며 갑자기 변화(繁華)한 세상에 잠기게 되었어라. 한번 벼슬길로 나아가매 두 가지 일을 겸임하여 서너 곳을 다니는 일은 반드시 궁궐의 일만으로는 아니로다.

복과재생이라 소심봉공 잘못하여 삭관퇴거 하온 후에 칠일옥중 지내오니 곱던 의복 무색하고 좋은 음식 맛이 없네. 망극천은 가이 없어 희극환비 눈물 난다. 어와 과분하다 천은도 과분하다. 궁임겸대 망극천은 생각사록 과분하다. 변화부귀 고쳐하고 금의옥식 다시 하여 장안 도상 넓은 길로 비마경구 다닐 적에 소비친척 강위친은 예로부터 일렀나니 여기 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하니 입신도 되다하고 양명도 하다하리 만사여의 하였으니 막비천은 모를소냐.

구절 풀이

* 복과재생(福過災生) : 복이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재앙이 생김 * 소심봉공 : 나라 일을 맡아보는 소임 * 삭관퇴거(削官退去) : 삭탈관직으로 물러남 * 무색(無色)하고 : 색이 바래고 * 망극천은(罔極天恩) : 임금의 은혜가 끝이 없음 * 가이 없어 : 끝이 없어 * 희극환비(喜極換悲) : 기쁨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됨 * 변화부귀 : 변화하고 부귀하게 되다 * 금의 옥식(錦衣玉食) : 좋은 옷과 훌륭한 음식 * 비마경구(肥馬輕裘) : 가벼운 가죽 옷과 살진 말이라는 뜻으로, 부귀한 사람들의 나들이 차림새 * 만사여의(萬事如意) : 모든 일이 뜻대로 됨 * 막비천은(莫非天恩) : 임금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현대어 풀이

복이 과하면 재앙이 생기나니 깨끗한 마음으로 업무를 보지 못하여 관직이 깎이고 물러나와 칠일동안 옥에 갇혀 지내니 고왔던 의복은 색깔이 바래고 좋은 음식도 맛이 없네. 망극한 임금의 은혜는 끝이 없어 기쁨이 극에 달하자 슬픔으로 바뀌어 눈물이 나는구나. 아아! 과분하다. 임금의 은혜가 과분하다. 두 가지의 궁궐의 직무를 맡아보는 망극한 임금

의 은혜가 생각할수록 과분하구나. 변화함과 부귀를 다시 누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다시 먹으며 장안의 넓은 길로 한껏 호사를 부리며 다닐 적에 소비친척 강위친은 예로부터 일렀으니 여기가도 손을 잡고 저기 가도 반겨하니 입신(立身)도 하였다하고 양명(揚名)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만사가 뜻대로 되었으니 그 어느 것도 임금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충직진명 알았으니 쇠신보국 하려던지 졸부귀가 불상이라 곤마복중 되겠고야. 극성즉필패하고 흥진즉비래니라. 다 오르면 내려오고 가들하면 넘치나니 호사가 다마하고 조물이 시기한지 인간작죄 많이 하여 화전중화 되었는지 청천백일 맑은 날에 뇌성벽력 급히치니 삼혼칠백 날아나서 천지인사 아올소냐. 여불승의 약한 몸에 이십오근 칼을 쓰고 수쇄족쇄 하온 후에 사옥 중에 드단말가. 나의 죄를 헤아리니 여산여해 하겠고야.

구절 풀이

* **충직진명(忠則盡命)** : 충성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 **쇠신보국(碎身報國)** : 몸이 가루가 되어도 나라에 보답함 * **졸부귀(狎富貴)** : 갑작스럽게 부유하고 귀하게 됨 * **불상(不祥)** : 상서롭지 않음 * **곤마복중(困馬腹中)** : 곤하여 쓸모없어진 말을 잡아먹음 * **극성즉 필패(極盛則必敗)** : 지극히 흥성하면 곧 반드시 망함 * **흥진즉비래(興盡則悲來)** : 흥이 다하면 곧 슬픔이 찾아옴 * **다마(多魔)하고** : 마(魔)가 많이 끼어든다. 나쁜 일이 많이 생긴다. * **조물(造物)** : 조물주(造物主), 하느님 * **인간작죄(人間作罪)** : 인간이 죄를 지음 * **삼혼칠백(三魂七魄)** : 사람의 혼백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천지인사(天地人事)** : 하늘인지 땅인지도 모르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정신을 잃음 * **수쇄족쇄** : 수갑과 족쇄 * **사옥(史獄)** : 역적, 살인범 따위의 중대한 범죄를 지은 자가 갇히는 감옥 * **여산여해(如山如海)** : 산과 같고 바다 같음, 즉 죄가 큼

현대어 풀이

충성이란 목숨을 다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몸이 가루가 되도록 나라에 충성하려던 것이, 갑작스런 부귀는 오히려 상서롭지 못하여 나의 몸을 해치게 되었구나. 극히 흥성하면 곧 시들고 흥이 다하면 곧 슬픔이 찾아오는 것이다. 다 오르면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가들차면 이제 넘치는 것이다. 좋은 일에는 마(魔)가 끼고 조물주가 시기하였는지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 화전중화가 되었는지 해가 뜬 맑은 날에 뇌성벽력 급히 치니 사람의 혼백이 온통 달아나서 인사불성이 되었구나. 여승처럼 약한 몸에 이십 오근 칼을 쓰고 수갑과 족쇄를 차고 사옥에 갇히게 되었단 말인가. 나의 죄를 헤아리니 산과 바다처럼 크도다.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다 내 일이야. 평생일심 원하기를 충효겸전 하잖더니 한 번 일을 그릇하고 불충불효 다 되겠다. 회서자이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상하리. 등잔불 치는 나비 저 죽을 줄 알았으며 어디서 식록지신이 죄 짓자 하라마는 대액이 당전하니 눈조차 어둑고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열화에 둬이로다. 재가 된들 뉘 탓이리 살 가망 없다마는 일명을 꾸이오셔 해도에 보내시니 여와 성은이야 가지록 망극하다.

구절 풀이

* **평생일심(平生一心)** : 평생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 **충효겸전(忠孝兼全)** : 나라에 충성함과 부모에 효도함을 똑같이 온전히 함 * **식록지신(食祿之臣)** : 녹을 받아먹는 신하 * **대액(大厄)** : 큰 액운 * **당전(當前)** : 앞에 도달함, 막상 부닥뜨림 * **열화(熱火)** : 뜨거운 불길 속 * **일명(一命)** : 한 사람의 목숨 * **꾸이오셔** : 귀하여 여겨 * **해도(海島)** : 섬 * **가지록** : 갈수록

현대어 풀이

아깝다 내 일이야, 애달프다 내 일이야. 평생 동안 한마음으로 원하기를 충(忠)과 효(孝)를 아울러 온전히 하고자 하였더니 한 번 일을 그릇되게 하여 불충불효가 되었구나. 후회가 막급이라 뉘우친들 무엇하랴. 등잔불을 치는 나방은 저 죽을 줄 알았으며, 녹을 먹는 신하치고 죄를 지으려 하라마는 큰 액운이 앞에 당도하니 눈조차 어둑구나. 마른 쇠를 등에 지고 뜨거운 불길에 뛰어든 것이로다. 설령 재가 된들 누구 탓이겠는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마는 사람의 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셔서 섬으로 보내시니, 아아! 임금의 은혜야말로 갈수록 망극하구나.

강두에 배를 대어 부모친척 이별할 제 슬픈 눈물 한숨소리 막막수운 머무는 듯 손잡고 이른 말씀 좋이 가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거든 대답이 나올소냐. 여취여광하여 눈물도 하직이라 강상에 배 떠나니 이별 시가 이 때로다. 산천이 근심 하니 부자 이별함이로다. 요도일성에 흐르는 배 살 같으니 일대장강이 어느덧 가로 서라. 풍편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행인도 낙루하니 내 가슴 미어진다. 호부일성 얹더지니 애고 소리뿐이로다.

구절 풀이

* 강두(江頭) : 강가의 나루 * 막막수운(漠漠水運) : 막막하고 아득한 뱃길 * 여취여광(如醉如狂) :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함 * 요도(櫓棹/櫓權) : 노와 상앗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낙루(落淚) : 눈물을 떨어뜨림 * 호부일성(呼父一聲) : 아버지를 부르는 외마디 큰 소리

현대어 풀이

강나루에 배를 대어 부모와 친척들을 이별할 때 슬픈 눈물과 한숨소리에 막막한 뱃길이 머무는 듯하고 손잡고 이르는 말씀 잘 가거라 당부하니 가슴이 막히는데 대답이 나오겠느냐. 취한 듯 미친 듯 눈물로써 하직이라. 강위에 배 떠나니 이별할 때가 이 때로다. 산천이 모두 근심스러워하니 부자(父子)가 이별하기 때문이라. 노와 상앗대의 소리에 흐르는 배가 화살처럼 빨리 나아가니 긴 강이 어느덧 가로로 지나더라. 바람결에 우는 소리 긴 강을 건너오네. 길가는 나그네도 눈물을 흘리니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버지를 부르는 외마디 큰 소리에 애고하는 소리뿐이로다.

규천고지 아모런들 아니 갈길 되올소냐. 범 같은 관차들은 수이 가자 재촉하니 할 일 없어 말게 올라 앞 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며 녹수는 몇 구빈고. 넘도록 뒤흠거늘 건너도록 물이로다. 석양은 재를 넘고 공산이 적막한데 녹음은 우거지고 두견이 제혈하니 슬프다 저 새소리 불여귀는 무삼일고. 네 일을 이룸이냐 내 일을 이룸이냐 가뜩이 헛튼 근심 눈물에 젖었어라. 만수에 연쇄하니 내 근심 먹음은 듯 천림에 노결하니 내 눈물 뿌리는 듯 뜨던 말 재게 하니.

구절 풀이

* 규천고지 : 규천호지(叫天呼地)가 아닌가 함. 몹시 슬프거나 분하여 하늘과 땅을 향하여 울부짖음. * 관차(官差) : 관아에서 파견하던 군뢰(軍牢), 사령(使令) 따위의 아전 * 말게 올라 : 말에 올라 * 수이 : 쉽게, 빨리 * 넘도록 뒤흠거늘 : 넘어도 넘어도 산이거늘 * 제혈(啼血)하니 : 피를 토할 듯이 우니 * 불여귀(不如歸) : 두견새, 소쩍새, 여기서는 돌아감만 같지 못하다는 뜻으로도 쓰임(중의법) * 만수(萬愁) : 온갖 시름 * 연쇄(憐殺) : 매우 불쌍히 여김 * 노결(勞結) :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답답함. 또는 근심이 있어 우울함 * 뜨던 말 : 동작이 느리고 굼뜨던 말 * 재게 하니 : 행동이 민첩하고 빠르게 하니

현대어 풀이

하늘과 땅을 향해 울부짖어도 안 가도 되는 귀양길이더냐. 호랑이 같은 관리들은 얼른 가자 재촉하니 할 일 없어 말에 올라 앞길을 바라보니 청산은 몇 겹이나 쌓였고 녹수는 또 몇 굽이나 되더라. 넘어도 넘어도 또 산이거늘 건너도 건너도 물이더라. 석양은 재를 넘어가고 텅 빈 산은 적막한데, 푸른 숲 우거지고 두견새는 피토하듯 울어대니, 슬프다 저 새소리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리란 불여귀(不如歸) 소리 무슨 일인가? 너의 일을 말하는 것이냐, 나의 일을 말하는 것이냐. 가뜩이나 헛튼 근심 눈물에 다 젖었다. 온갖 시름에 불쌍한 생각이 드니 나의 근심을 머금은 듯하고, 냇가 수풀에 우울하고 근심스러우니 나의 눈물을 뿌리는 듯하여 굼뜨고 느리던 말이 잼싸게 되었구나.

앞 참은 어디메고 높은 재 반겨 올리 고향을 바라보니 창망한 구름 속에 백구비거 뿐이로다. 경기땅 다 지나고 충청도 다다르니 계룡산 높은 뒤흠을 눈결에 지나쳤다. 열읍의 관문 받고 골골이 점고하여 은진을 넘어 드니 여산은 전라도라. 익산 지나 전주 들어 성시산림 들어보니 반갑다 남문 길이 장안도 의연하다. 백각전 벌어지니 종각도 지내는 듯 한벽당 소쇄한데 조일이 높았세라. 금구 태인 정읍 지나 장성 역마 갈아 타고 나주 지나 영암 들어 월출산을 돌아드니

구절 풀이

* **참(站)** : 옛날의 역(驛). 60리마다 1참을 설치함 * **재** : 높은 고개 * **창망(悵惘)** : 근심과 걱정으로 경황이 없음 * **백구비거(白鷗飛去)** : 흰 갈매기가 날아감 * **눈결** : 눈에 슬쩍 뜨이는 잠깐 동안 * **열읍(列邑)** : 여러 고을, 지나가는 모든 고을 * **관문(關門) 받고** : 국경이나 주요 지점의 통로를 통과하기 위해 사람과 물품을 조사받고 * **점고(點考)** : 명부에 일일이 점을 찍어 가며 사람의 수를 조사함 * **은진(恩津)** : 충남 논산시에 있는 옛 읍. 은진미륵으로 유명함 * **백각전(百各廬)** : 평시서에서 관할하던 서울의 각 전(廬) * **종각(鐘閣)** : 큰 종을 달아 두기 위하여 지은 누각 * **한벽당(寒碧堂)** :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조선시대 초기의 누각 * **소쇄(瀟灑)** : 기운이 맑고 깨끗하다 * **조일(朝日)** : 아침 해

현대어 풀이

앞에 있는 역(驛)은 어디쯤인가. 높은 고개에 반겨 올라가 고향땅을 바라보니 근심, 걱정으로 경황없이 바라보는 구름 속에 흰 갈매기 날아갈 뿐이로다. 경기도를 다 지나고 충청도에 다다르니 계룡산 높은 봉을 영겁결에 지나쳤다. 여러 고을의 관문에서 조사를 받고 고을마다 점고하여 은진을 넘어드니 전라도 땅 여산이라. 익산을 지나 전주에 들어가 성시산림 들어보니 반갑도다 남문 길, 장안도 옛날과 다름없구나. 백각전 벌어지니 종각도 지나치는 것 같구나. 한벽당은 맑고 깨끗한데 아침 해가 드높더라. 금구, 태인, 정읍을 지나 장성의 역마를 갈아타고 나주를 지나 영암을 들어가 월출산을 돌아 들어가니

만이천봉이 반공에 솟았는 듯 일국지명산이라 경치도 좋다마는 내 마음 아득하니 어느 겨를 살피오리. 천관산을 가리키고 달마산을 지나가니 불분주야 몇 날만에 해변으로 오단말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흉용하다. 가이 없는 바다야 한 없는 파도로다. 태극조판 하온 후에 천지광대 하다가늘 하늘 아래 없사음이 땅이런가 알았더니 즉금으로 볼 양이면 천하이 다 물이로다. 바람도 쉬어 가고 구름도 멈쳐 가네. 나는 새도 못 넘을 데 제를 어이 가잔말고.

구절 풀이

* **일국지명산(一國之名山)** : 한 나라의 이름난 산 * **천관산(天冠山)** : 장흥에 있는 호남 5대 명산 가운데 하나 * **달마산(達摩山)** : 전남 해남에 있는 산 * **불분주야(不分晝夜)** :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 **흉용(洶湧)** : 물결이 매우 세차게 일어남. 또는 물이 힘차게 솟아남 * **태극조판(太極肇判)** : 천지가 처음 만들어짐, 천지개벽 * **천지광대(天地廣大)** : 하늘과 땅이 넓고도 큼 * **제를** : 저기를

현대어 풀이

만이천봉이 허공에 솟아있는 듯하고 한나라의 명산이기에 경치도 좋다마는 내 마음이 아득하니 어느 겨를에 살피보겠는가. 장흥의 천마산을 향하여 해남 달마산을 지나가니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며칠 만에 해변까지 왔더라 말인가. 바다를 바라보니 파도도 매우 험하구나. 끝없는 바다야, 한없는 파도로다. 천지가 처음 만들어진 후에 하늘과 땅이 넓고 크다 하거늘 하늘 아래 더 이상 큰 것이 없는 것은 땅인 줄로만 알았더니 지금 볼 양이면 천하가 모두 물이로구나. 바람도 쉬어 가고 구름도 멈추었다 가네. 날아가는 새도 못 넘을 저곳을 어찌 가잔 말이고.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난 듯 선두에 있는 백기 동남을 가리키니 천석 싣는 대중선에 쌍돛을 높이 달고 건장한 도사공이 배머리에 높게 서서 지곡총 한 곡조를 어사와로 화답하니 마디마다 처량하다 적객심회 어떠할고. 회수장안 돌아보니 부운폐일 아니 빈다. 나가는 길 어인 길로 무심 일로 가는 길고.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을 찾아가니 동남동녀 아이어든 방사 서시 따라가라.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루 오르라나. 소상강 굽은 비에 조상군 하라는가. 전원이 장무하니 귀거래 하옵는가.

구절 풀이

* **지곡총** :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 * **어사화** : 노를 저을 때 사람들이 힘을 쓰면서 내는 소리 * **적객심회(謫客心懷)** :

귀양가는 사람의 마음 * **회수장안(回首長安)** : 머리를 돌려 서울 쪽을 돌아봄 * **부운폐일(浮雲蔽日)** : 뜬 구름이 해를 가림, 흔히 고전시가에서 해를 가리는 뜬구름은 간신을 상징하나 여기서는 그러한 뜻이 없다 * **동남동녀(童男童女)** : 소년 소녀 * **방사(方士) 서시** : '서시'는 서복(徐福)이라고도 하며 중국 진(秦)나라 때 사람. 진시황의 명을 받들어 동남동녀 3천명을 데리고 불사약을 구하러 봉래산(蓬萊山)을 향하여 떠난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 함 * **조상군(弔湘君)** : 상군(湘君)을 조상(弔喪)함. 요임금의 딸 아황(娥黃)과 여영(女英)이 함께 순임금에게 시집갔다가 순임금이 창오(蒼梧)에서 죽자 상수에 빠져 죽어 상수(湘水)의 신(湘君)이 됨 * **전원(田園)이 장무(將蕪)하니** : 전원이 장차 황폐해지려하니. 중국 진(秦)나라의 도연명이 지은 귀거래사의 첫 부분 * **귀거래(歸去來)** : 관직을 물러나서 고향으로 돌아감

현대어 풀이

때마침 서북풍이 내 길을 재촉하는 듯, 뱃머리에 꽃힌 흰 깃발이 동남쪽을 가리키니 천석이나 실을 수 있는 큰 배에 쌍돛을 높이 달고 긴장한 선장이 뱃머리에 높이 서고 지곡총하는 뱃노래에 어사화로 화답하니 그 노래 마디마디가 처량하다. 귀양객의 마음은 어떠할까. 고개를 들어 서울장안을 돌아보니 뜬 구름에 해가 가려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로 무슨 일로 가는 길이고. 불로초 구하려고 삼신산(三神山)을 찾아가는가. 동남동녀(童男童女)도 아닌데 어찌 방사(方士) 서복(徐福)을 따라가라. 동정호 밝은 달에 악양루(岳陽樓)에 오르려고 하는가. 소상강 굽은비에 상군(湘君)을 조상하려 하는가. 전원(田園)이 장차 황폐해지려하니 고향으로 되돌아가려 함인가?

노어회 살렸으니 강동거 하옵는가. 오호주 흘러져서 명철보신 하라는가. 긴 고래 잠깐 만나 백일승천 하라는가. 부모처자 다 버리고 어드러로 혼자 가노. 우는 눈물 소이 되어 대해수를 보태인다. 어디서 일편흑운 홀연광풍 무삼일고. 산악같은 높은 물결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 조리 짓듯 오장육부 다 나온다. 천은 입어 남은 목숨 마자 진케 되겠구나. 초한건곤 한 영중에 장군기신 되려니와 서풍낙일 먹라수에 굴삼려는 불원이라.

구절 풀이

* **노어회(鱸魚膾)** : 농어회 * **강동거(江東去)** : 강동으로 내려감. 예전에 장한이란 벼슬아치가 벼슬을 사임하며 고향의 농어회가 먹고 싶어 고향인 강동으로 내려간다고 함 * **명철보신(明哲保身)** :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일을 잘 처리하여 자기 몸을 보존함 * **백일승천(白日昇天)** : 붉은 해가 하늘 높이 떠오름 * **소(沼)이 되어** : 연못이 되어 * **대해수를 보태인다** : 큰 바닷물에 더해진다 * **일편흑운(一片黑雲)** : 한 조각 검은 구름 * **홀연광풍(忽然狂風)** : 갑자기 부는 미친 듯한 바람 * **조리 짓듯** : 쌀을 일거나 물기를 뺄 때 쓰는 조리를 짓듯이 즉 큰 파도가 배를 이리저리 마음껏 흔들어대는 모양 * **마자 진(盡)케** : 그마저 끝나게 * **초한건곤(楚漢乾坤)** :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건곤일척의 큰 승부를 가름 * **한(漢) 영중(營中)** : (싸움에서 승리한) 한나라 군영 안의 * **장군기(將軍旗)** : 장군을 표시하는 깃발 * **서풍낙일(西風落日)** : 가을바람에 해는 떨어지고 * **굴삼려(屈三閭)** : 삼려대부의 벼슬을 하던 초나라의 시인 굴원(屈原) * **불원(不願)** : 원하지 않음. 즉 물에 빠져 죽고 싶은 마음이 없음

현대어 풀이

농어회가 살이 올랐으니 이제 그만 강동의 고향으로 내려가려 함인가. 오호에 배를 띄우고 물살 흐르는 대로 저어가며 명철보신(明哲保身)하려 함인가. 길다란 고래를 잠깐 만나 한낮에 하늘로 올라가려 함인가. 부모처자를 모두 버리고 어디로 혼자 가는가. 우는 눈물이 연못이 되어 큰 바닷물에 보태어지는구나. 어디서 한 조각 검은 구름과 문득 불어오는 미친 바람은 무슨 일인가? 산악과 같은 높은 물결이 뱃머리를 둘러치네. 크나큰 배를 마치 조리를 짓듯 흔들어대니 오장육부가 다 나오는 것처럼 토약질이 나오는구나. 임금의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이 그나마 다하게 되겠구나. 초(楚)와 한(漢)이 패권을 다투매 한(漢)나라 진영 안의 장군기가 될지언정 서풍에 해떨어질 때 먹라수에 빠져죽는 굴원이 되기는 원치 않다.

차역천명 할일 없다. 일생일사 어찌하니 출몰사생 삼주야에 노 지우고 닳을 지니 수로 천리 다 지내어 추자섬이 여기로다. 도중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 태심이라. 사면으로 돌아보니 날 알 이 뉘 있으리. 보이냐니 바다ियो 들리냐니 물소리라. 벽해상전 갈린 후에 모래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 생길 제는 천작지옥이로다. 해수로 성을 싸고 운산으로 문을 지어 세상이 끝쳤으니 인간은 아니로다. 풍도섬이 어디메뇨 지옥이 여기로다.

구절 풀이

* **차역천명(此亦天命)** : 이것 역시 하늘이 낸 운명이다 * **일생일사(一生一死)** : 죽고 사는 것 * **출몰사생(出沒死生)** : 죽음과 삶 사이를 헤매 * **삼주야(三晝夜)** : 3일 밤낮 * **도중(島中)** : 섬 안 * **태심(太甚)** : 아주 심하다 * **벽해상전(碧海桑田)**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 * **천작지옥(天作地獄)** : 하늘이 만든 지옥 * **운산(雲山)** : 구름과 산 * **끊졌으니** : 끊어졌으니, 단절되었으니 * **인간(人間)** : 인간세상 * **풍도(豐都)섬** :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지옥

현대어 풀이

이것 역시 하늘의 운명이니 어찌할 길이 없구나. 죽고 사는 것을 어찌하겠는가. 삼일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기를 여러 번 한 후에 노와 닳을 아래로 내리니 물길 천리를 다 지나고 추자섬이 바로 여기로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적막하기가 극히 심하구나. 사면을 돌아보니 나를 알 사람이 누가 있으랴. 보이냐니 바다요, 들리냐니 물소리라. 벽해(碧海)와 상전(桑田)이 나뉘어진 후에 모래가 모여 섬이 되니 추자섬은 하늘이 만든 지옥이로다. 바닷물로 성을 쌓고 구름산으로 문을 만들어 인간세상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인간세계가 아니로다. 가장 나쁜 지옥이라는 풍도(豐都)섬이 어디이나, 지옥이 바로 여기로다.

어디로 가잔 말고 뉘집으로 가잔말고 눈물이 가리우니 걸음마다 었더진다. 이 집에가 의지하자 가난하다 핑계하고 저 집에가 의지하자 연고 있다 칭탈하네. 이집 저집 아모덴들 적객주인 뉘 좋다고 관력으로 핍박하고 세부득이 말았으니 관차 더러 못한 말을 만만할손 내가 듣네. 세간 그릇 흘던지며 역정내어 하는 말이 저 나그네 헤어보소 주인 아니 불상한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 한두 집이 아니어든 관인네는 인정 받고 손님네는 혹언들어 구태어 내 집으로 연분있어 와 계신가. 내 살이 담박한 줄 보시다야 아니 알가. 앞뒤에 전답 없고 물 속으로 생애하여 앞 언덕에 고기 낚아 옷넙에 장사 가니 삼망 얻어 보리섬이 믿을 것도 아니로세.

구절 풀이

* **연고(緣故) 있다 칭탈(稱頌)하네** : 사정이 있다고 핑계를 대며 거절하네 * **아모덴들** : 어느 곳인들 * **적객주인(謫客主人)** : 귀양객을 받아들인 집의 주인 * **관력(官力)** : 관청의 위력 * **세부득이** : 형세가 부득이하야, 어쩔 수 없이 * **헤어보소** : 헤아려보시오, 생각해보시오 * **인정(人情)받고** : 뇌물을 받고 * **혹언들어** : 미혹된 말을 들어 * **살이** : 살림살이 * **담박(淡泊)** : 깨끗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음 * **물속으로 생애하여** : 물속에서 건져 내는 물고기 등으로 생활을 함 * **옷넙** : 윗동네 * **삼망** : 그물의 일종, 삼마이 그물이라고도 함

현대어 풀이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누구의 집으로 가자는 말인가. 눈물이 앞을 가리니 걸음마다 었어진다. 이집에 가서 의지하자하니 가난하다고 핑계를 대고, 저 집에 가서 의지하자하니 받지 못할 까닭이 있다며 핑계를 대네. 이집 저집 아무데인들 귀양객을 맡은 주인이면 누가 좋다고 할 것인가. 관청의 위력으로 핍박하니 형세가 부득이하야 말았으니 관차(官差)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불평의 말을 만만한 내가 듣게 되는구나. 세간그릇 흠어 던지며 역정 내며 하는 말이 “저 나그네 생각해보소. 주인인 내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이집 저집 잘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건만 관차들은 뇌물을 받고 귀양객 당신은 미혹(迷惑)된 말을 들어 구태어 내 집으로 무슨 연분이 있어 와 계신가. 내 살림살이가 깨끗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보면 모를까. 앞뒤에 전답(田畝)이 없고 물속에서 물고기 잡는 것으로 생활을 하여 앞 언덕바위에서 고기를 낚아 윗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니 삼망 그물로 얻은 보리 몇 섬 있는 것은 믿을 것이 아니로세.

신겸처자 세 식구의 호구하기 어렵거든 양식없는 나그네는 무엇 먹고 살려놓고. 집이라고 서 불손가 기어 들고 기어나며 방 한 칸에 주인들고 나그네는 잘 데 없네. 뉘자리 한 잎 주어 침하게 거쳐하니 냉지에 누습하고 증생도 하도할사. 발남은 구렁배암 뺨남은 청진이라 좌우로 돌렸으니 무섭고도 증그럽다. 서산에 일락하고 그믐밤 어두운데 남북촌 두세 집에 솔불이 흐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 내 근심 더하고 별표에 배 떠나니 노 짓는 소리로다.

구절 풀이

* **신겸처자(身兼妻子)** : 홀로 있는 몸이 아니고 세 식구(食口)임 * **호구(糊口)** : 입에 풀칠을 한다는 뜻으로, 겨우 끼니를 이어 감 * **뛰자리** : 갈대로 엮은 자리 * **침하계** : 처마 밑에 * **냉지(冷地)에 누습(漏濕)하고** : 찬 땅에 축축한 기운이 스며남 * **발남은 구렁배암** : 한 발이 넘는 구렁이 * **뺨남은 청진의라** : 한 뺨이 넘는 푸른 지네 * **별표** : 별의 표식

현대어 풀이

혼자도 아니고 처와 자식도 있으니 세 식구의 입에도 풀칠하기 어려운데 양식도 없는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는 고.” 집이라고 서 불손가 기어들어가고 기어나가며 방 한 칸에 주인이 들고 나그네인 나는 잘 데가 없네. 갈대로 엮은 자리 한 장 주어 처마 밑에서 거처하니 찬 땅에 습기가 축축하고 벌레들도 많기도 많구나. 한 발도 넘는 구렁이, 한 뺨도 넘는 푸른 지네라. 좌우로 빙 둘러 지나가니 무섭고도 징그럽다. 서산에 해는 지고 그믐밤은 어두운데 남북의 마을 두세 집에서 관솔 등불이 희미하다. 어디서 슬픈 소리는 내 근심을 돋우려고. 별의 표식에 따라 배가 떠나니 노 젓는 소리로다.

눈물로 밤을 새와 아침에 조반드니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땀이 한 종자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조 없어 굶을 적이 간간이라. 여름날 긴긴 날에 배고파 어려워라. 의복을 돌아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방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땀이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검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구절 풀이

* **덜 쓰른 보리밥에 무장땀이 한 종자라** : 아주 거친 밥과 반찬을 이름 * **무장** : 잘게 부순 메주를 연한 소금물에 담가 달이지 않고 담그는 날간장으로서 담수장(淡水醬)이라고도 한다 * **간간이라** : 간혹 있다 * **남방염천(南方炎天)** : 남쪽지방의 뜨거운 여름 * **덕석** : 명석을 말한다. 벧짚으로 만들어서 곡식을 말릴 때 주로 쓴다 * **내암새** : 냄새

현대어 풀이

눈물로 밤을 새고 아침에 밥을 먹으니 덜 익은 보리밥에 날간장 한 접시라. 한 술 떠서 보고 큰 덩이 내어놓고 그도 저도 아주 없어 굶을 때가 자주 있다. 여름날 긴긴 날에 배가 고파 어렵구나. 의복을 살펴보니 한숨이 절로 난다. 남쪽지방의 찌는 듯한 날씨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 땀이 올라서 굴뚝을 막아놓은 명석인 것처럼 더럽고 축축하다. 덥고 검은 것은 내놓고라도 냄새가 나는 것은 어찌하리. 아아! 내 신세야 가련하게도 되었구나.

손 잡고 반가는 집 내 아니 가옵더니 등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옥식진찬 어데 가고 맥반염장 대하오며 금의화복 어데 가고 현순백결 하였는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이다.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어와 보리 가을 되었는가 전산후산에 황금빛이로다.

구절 풀이

* **손 잡고 반가는 집** : 손잡고 반겨하는 집 * **등밀어 내치는 집** : 유배지에서 깃들여 사는 집을 말함 * **옥식진찬(玉食珍饌)** : 훌륭한 밥과 반찬 * **맥반염장(麥飯鹽醬)** : 보리밥에 소금과 간장, 즉 보잘 것 없는 식사 * **금의화복(錦衣華服)** : 비단옷과 화려한 옷 * **현순백결(懸鶉百結)** : 옷이 헤어져서 백 군데나 기웠다는 뜻으로, 누덕누덕 기워 짧아진 옷 * **도로혀** : 돌이켜 * **전산후산(前山後山)** : 앞산 뒷산

현대어 풀이

예전에 손을 잡고 반겨하는 집에도 내가 가지 않았었는데 오늘날에는 등을 밀어 내치는 집에 구차하게도 빌붙어 있으니 옥식(玉食)같은 좋은 밥과 진찬(珍饌)같은 훌륭한 반찬은 어디로 가고 보리밥에 소금장을 대하며 좋고도 비싼 옷을 어디로 가고 여기저기 기운 헌옷을 입고 있는가. 이 몸이 살아 있는가, 죽어서 귀신이 되었는가.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살아는 있으나 모양은 죽은 귀신이다. 한숨 끝에 눈물이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돌이켜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이 난다. 이 모양이 무슨 일이고 미친 사람이 다 되었구나. 아아! 보리를 거두는 가을이 되었는가. 앞산 뒷산에 황금 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구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에 굼일면서 한가히 뵈는 농부 문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 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이 풍년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썰어내어 일부는 밥쌀하고 일부는 술쌀하여 밥먹어 배부르고 술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하여 격양가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더면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이 즐거운 줄 청운이 알았으면 탐화봉접이 그물에 걸렸으랴.

구절 풀이

* 전간(田間)에 굼일면서 : 밭사이에서 폼지락거리며 일하는 * 깨연들 : (술에서) 깬들 * 연년(年年) : 해마다 * 일부(一分) : 일부분 * 함포고복(含哺鼓腹) : 배불리 먹어 배를 두드리며 흥겨워함 *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探花蜂蝶) : 꽃을 찾는 벌과 나비. 기생집을 드나들며 국고를 축내다 죄를 지은 자신을 가리킴 * 그물 : 법망에 걸림

현대어 풀이

남풍은 때때로 불어 보리물결 치는구나. 지계를 벗어 놓고 밭에서 꾸물거리며 한가하게 보이는 농부들아 내 물어보노라. 저 농부야 밥 위에 보리술을 몇 그릇이나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이 깬들 무엇하리. 해마다 풍년이 드니 해마다 보리를 베어 마당에서 두드려서 방아에 썰어내어 일부는 밥을 하고 일부는 술을 만들어,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를 부르니, 농부의 저런 흥미가 이렇게 좋은 줄을 알았더라면 공명(功名)을 탐하지 말고 농사나 힘을 쓸 것을, 흰 구름이 즐거운 줄을 푸른 구름이 알았다면 꽃 찾는 나비와 벌처럼 법망(法網)에 걸려 이 고생을 하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이야 윈 줄 아니 뉘우쳐 하는 마음 없어야 하라마는 범 물릴 줄 알았으면 깊은 댕에 올라가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할 줄 알았으면 잠간 루에 올랐으랴. 파선할 줄 알았으면 전세대동 실었으랴.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가 장기 벌었으랴.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 탐차 하였으랴. 산진매 수진매와 해동청 보라매가 심수총림 속여 들어 산계야양 차고 날제 아깝다 걸리었다 두 날개 걸리었다. 먹기에 탐심나서 형극에 걸리었다.

구절 풀이

* 윈 줄 : 그릇된 일인 줄 * 천동(天動) : 천둥 * 루(樓) : 높은 누각 * 파선(破船) : 배가 깨짐 * 전세대동 : 세금으로 걷은 쌀 * 내가 장기 : 내기장기(도박장기)인 듯 * 공명 탐차 : 공명을 탐하고자 * 산진매 : 야생으로 여러 해 된 매를 산진(山陳)이라 함 * 수진매 : 집에서 길들여 여러 해 된 매를 수진(手陳)이라 함 * 해동청 : 매의 일종으로 푸른빛의 매 * 보라매 : 그 해 봄에 나서 길들여 가을이 되매 사냥을 나갈 수 있는 매. '보라'는 몽고어로서 '가을'의 뜻임 * 심수총림(深樹叢林) : 깊은 숲속 * 산계야양(山鷄野羊) : 산에 사는 야생 닭과 산양 * 날제 : 날아갈 때 * 탐심(貪心) : 탐욕의 마음 * 형극(荊棘) : 가시나무, 여기서는 법망에 걸림

현대어 풀이

어제는 옳던 일이 오늘에서야 그른 줄을 아니 뉘우쳐하는 마음이 없다고야 하겠는가마는 호랑이에게 물릴 줄을 알았으면 깊은 산에 올라갈 것이며, 떨어질 줄 알았으면 높은 나무에 올랐으랴. 천동번개 칠 줄을 알았으면 높은 누각에 올랐

오라. 파선(破船)할 줄 알았으면 세금으로 걷은 쌀을 실었오라. 실수할 줄 알았으면 내기장기를 벌였겠느냐. 죄 지을 줄 알았으면 공명을 탐하고자 하였오라. 산진이 수진이 해동청 보라매가 깊은 숲속에 날아 들어와 산닭과 산양을 꿰차고 날아갈 제, 아깍다 걸리었다. 두 날개가 걸리었다. 먹는 일에 탐이 나서 가시나무에 걸리었구나.

어와 민망하다 주인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정에 욕설조차 비경하다. 혼자 말로 군말하듯 나 들오라 하는 말이, 건너집 나그네는 정승의 아들이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득죄하고 절도에 들어와서 이전 말은 하도 말고 여기 사람 일을 배와 고기 낚기 나무 베기 자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하여다가 주인양식 보태는데, 한 군대는 무슨 일로 하로 이틀 몇 날 되되 공한 밥만 먹으려노. 쓰자하는 열 손가락 꼼작이도 아니하고 걷자하는 두 다리는 움작이도 아니하네. 썩은 남게 박은 끝가 전당 잡은 촛대런가 종 찾으면 양반인가 빛 받으면 책주런가.

구절 풀이

* **주인박대** : 귀양지의 집주인이 박절하게 대함 * **헛 주정** : 술에 취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는 주정 * **비경(非輕)** : 일이 가볍지 않고 중대하다. 심각하다 * **군말** :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군더더기 말 * **건너집 나그네** : 건넌집에 들어와 있는 유배객 * **절도(絶島)** : 외딴 섬 * **이전 말** : 예전의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절의 이야기 * **자리치기** : 멍석, 돛자리 등을 만들기 * **신삼기** : 짚신 만들기 * **한 군대는** : (다른) 한곳에서는, 즉 우리 집에서는 * **하로 이틀 몇 날 되되** : 하루 이틀 몇 날이 되었으되 * **공한 밥** : 공짜 밥, 하는 일 없이 무위도식함 * **남게 박은 끝가** : 나무에 박은 끝인가. ‘끝’은 망치로 한쪽 끝을 때려서 나무에 구멍을 뚫거나 겉면을 깎고 다듬는 데 쓰는 연장 * **책주** : 채주(債主)인 듯, 빚을 받으려는 사람

현대어 풀이

아아! 민망하다. 주인 박대가 민망하다. 술 먹지도 않은 헛주정에 욕설조차 심하구나. 혼자말로 중얼거리듯 나에게 들으라는 듯 하는 말이, “건너집 귀양객은 정승의 아들이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에 죄를 얻어 이 절해고도(絶海孤島)에 들어와서 이전에 자기가 호사(豪奢)를 부리던 얘기는 하지도 않고 여기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을 배워 고기 낚기, 나무 베기, 돛자리치기, 짚신삼기, 보리동냥 등을 하여 주인집 양식을 보태는데, 한군대는(즉,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로 하루 이틀 몇 날이 되었으되 공짜 밥만 먹으려 하는가. 사용하라고 달려 있는 열 손가락은 꼼작도 하지 않고 걸으라고 있는 두 다리는 움작하지도 아니하네. 썩은 나무에 박은 끝인가 전당포에 잡힌 촛대이런가. 종을 찾으러 온 양반인가, 빛 받으러 온 채권자인가.

동이성의 권당인가 풋낫의 친구런가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인인가 반편인가 화초라고 두려 보며 괴석이라 놓고 볼까. 은혜 끼친 일이 있어 특명으로 먹으려나. 저 지은 죄 내 아던가 저의 서름 뉘 아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 지고 슬픈 소리 듣기에 즈글하고 보기에 귀찮하다. 한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키도 하다마는 풍속을 보아하니 해연이 막심하다. 인륜이 없었으니 부자의 싸움이요 남녀를 불문하니 계집의 등짐이라.

구절 풀이

* **동이성(同異姓)** : 성이 같거나 다른 * **권당(眷黨)** : 친척 * **풋낫의** : 얼굴 익힌 지가 얼마 되지 않은 * **병인인가 반편인가** : 병신인지 반편이인지 * **두려 보며** : 둘러두고 볼 것이며 * **괴석(怪石)** : 기이하게 생긴 완상용 수석 * **특명으로** : 특별한 명분으로 * **저 지은 죄 내 아던가** : 저(나)가 지은 죄를 내가 알 턱이 있는가? 즉 나와 관련이 없다는 말 * **즈글하고** : 지질하고, 싫증이 나고 * **귀찮하다** : 귀찮다 * **풍속(風俗)** : 유배지인 추자도의 풍속을 말함 * **해연(駭然)이 막심(莫甚)하다** : 놀랍고 이상스러운 점이 많다 * **계집의 등짐이라** : 여자들도 등짐을 하더라. 등짐 일을 하는 것은 당시에나 지금에나 거의 남자들의 몫임

현대어 풀이

성이 같거나 다른 친척인가 이제 막 얼굴을 툰 친구인가. 양반인가 상민인가 병든 사람인가 반편이인가. 화초(花草)라고 집 주변에 둘러두고 볼 것인가, 괴석(怪石)이라고 놓고 감상할까. 나에게 은혜를 끼친 적이 있어 특별한 명분으로

파먹으려 하는가. 제가 지은 죄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저의 서러움을 누가 알던가. 밤낮으로 우는 소리 한숨이 나오고 슬픈 소리 듣기에도 지질증이 나고 보기에도 귀찮구나. 주인의 이러한 궁성거리는 말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통분하기도 하지마는 이곳의 풍속을 보아하니 해괴망측한 일이 많구나. 인륜(人倫)이 없으니 부자(父子)간에 싸움질이요, 남녀의 분별이 없으니 계집들이 등짐을 지더라.

방언이 괴이하니 존객인들 아올소냐. 마만지 아는 것이 손꼽아 주인 험에 두 다섯 흠 다섯 못 다섯 꼽기로다. 포박과 탐욕이 예의염치 되었음에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 삼아있고 한들 공덕으로 지효로 알았으니 혼정신성은 보리 담은 대독이요 출필고반필면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왕화가 불급하니 견용의 행사로다.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라. 내 귀향 아니려면 이런 모양 보았으랴.

구절 풀이

* 방언 : 사투리 * 마만지 : 오직, 다만 * 다섯 꼽기 : 십진법이 아닌 5진법을 사용함 * 포박(暴薄) : 포악하고 박절함
효제충신(孝悌忠信) : 효도와 우애, 충성과 신의 * 혼정신성(昏定晨省) : 저녁에는 잠자리를 살피고, 아침에는 일찍이 문안을 드린다는 뜻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도리 * 대독 : 큰 향아리 *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 : '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뵈다'라는 뜻으로, 외출할 때와 귀가했을 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 왕화(王化) : 임금의 교화(教化) * 견용(犬戎)의 행사 : 오랑캐들의 행동, 오랑캐들의 습속 *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하라 : 사람들의 마음이 오랑캐처럼 막되어 먹은 판에 행동거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겠는가? * 귀향 : 귀양살이, 유배(流配)

현대어 풀이

그 지방 사투리가 괴이(怪異)하니 존객인들 알겠느냐.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주인의 셈법에 둘 다섯, 흠 다섯 등으로 모두가 오진법이다. 포악함과 박절함을 예의염치로 삼고 분전승합으로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삼으니 한두 가지 공덕을 쌓고 그것이 지극한 효도인 것으로 아니 혼정신성(昏定晨省)의 예절은 보리를 담은 큰 향아리 같이 불품없으며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고하는 법은 아예 없어 병어리처럼 말도 없다. 임금의 가르침이 미치지 못하니 하는 짓마다 오랑캐의 습속(習俗)이로다. 사람들의 기본 심성이 말이 아닌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냐. 내가 귀양살이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모양을 보았겠는가?

조그마한 실개천에 발을 빠진 소경농도 눈 먼 줄만 한탄하고 개천 원망 안하나니 임자 아녀 짓는 개를 꾸짖어 무엇하리. 아마도 할 일 없이 생애를 생각하고 고기 낚기 하자하니 물머리를 어찌하고. 나무 베기 하자하니 힘 모자라 어찌하며 자리치기 신삼기는 모르거든 어찌하리. 어와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탈 망건 갓 숙이고 흠 중치막 띠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세살 부채 차면하고 남초 없는 빈 담뱃대 소일 조로 가지고서 비속비속 걷는 걸음 걸음마다 눈물 난다.

구절 풀이

* 물머리 : 배 멀미 * 탈 망건 : 망건을 벗다 * 중치막 :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가 소창옷 위에 덧입던 옷 * 총 : 짚신이나 미투리 따위의 앞쪽의 우뚝 솟은 부분 * 세살 부채 : 가는 살을 붙인 부채 * 차면(遮面)하고 : 얼굴을 가리고 * 남초(南草) : 담배 * 소일 조로 가지고서 : 심심풀이삼아서 가지고

현대어 풀이

조그만 실개천에 발이 빠진 소경도 눈먼 것을 한탄하고 개천 원망 하지 않으니 주인이 아니어서 짓는 개를 꾸짖어서 무엇하리.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생계를 생각하고 물고기 낚기를 하자하니 배 멀미를 어찌하고, 나무를 베자하니 힘이 모자라 어찌하며, 돛자리치기와 신을 삼는 일은 할 줄 모르니 어찌하리. 아아! 할 일 없다. 동냥이나 하여보자. 망건을 벗고 갓을 숙여 쓰고 흠 중치막의 띠를 끄르고 총만 남은 헌 짚신에 가는살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담뱃대도 없는 빈 담뱃대를 심심풀이로 가지고서 비속비속 걷는 걸음에 걸음마다 눈물이 난다.

세상인사 꿈이로다 내 일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자요 오늘 아침 빈천자라. 부귀자 꿈이런가 빈천자 꿈이런가. 장주호접 황홀하니 어느 것이 정 꿈이고. 한단치보 꿈인가 남양초려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몽중흉사 이러하니 새벽 대길 하오리다. 가난한 집 지내치고 넉넉한 집 몇 집이고 사립문을 드자할가 마당에 섰자하라.

구절 풀이

* **내 일** : 나의 일, 내가 당한 현실의 상태 * **장주호접(莊周胡蝶)** :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 나비에 관한 꿈, 인생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 **정 꿈이고** : 진짜 꿈인가 * **한단치보** : 한단지몽(邯鄲之夢) * **남양초려(南陽草廬)** : 제갈량이 출사하기 전 머물렀던 남양의 초가집 * **화서몽(華胥夢)** : 옛날 황제가 낮잠을 자면서 화서(華胥)라는 무위자연의 나라를 꿈. 일장춘몽과 뜻이 통함 * **남가일몽(南柯一夢)** : 남쪽 가지에서의 꿈이란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한때의 헛된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 **몽중흉사(夢中凶事)** : 꿈속의 흉한 일. 꿈속에서 흉한 일을 당하면 현실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함 * **대길(大吉)** :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남 * **드자할가** : 들어갈까 * **섰자하라** : 서 있을까

현대어 풀이

세상의 인간사는 모두 꿈이로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도 더욱 꿈이로다. 옛그제는 부귀한 사람이었고 오늘 아침엔 빈천한 사람이라. 부귀했던 과거가 꿈이던가, 빈천한 오늘이 꿈이런가. 장자가 호랑나비 되는 꿈이 황홀하니 어느 것이 진정 꿈인가. 한단지몽이 꿈인가 남양에서 밭 갈던 삶이 큰 꿈인가. 화서몽, 칠원몽에 남가일몽 깨고 나서 꿈속에서 보이던 흉한 일이 이러하니 현실로 돌아온 새벽에는 크게 길할 것이로다. 가난한 집은 그냥 지나고 넉넉하게 잘 사는 집은 몇 집이나 되는가. 사립문 안에 들어가자고 할까 마당에 서겠다고 할 것인가.

철없는 어린 아해 소 같은 젊은 계집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향다리 온다하니 어와 고이하다. 다리 지칭 고이하다 구름 다리 징검다리 돌다리 토다리라 춘정일 십오야 상원야 밝은 달에 장안시상 열 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호금준은 다리다리 배반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웃다리 아래다리 석은다리 헛다리 철물다리 판자다리 두다리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 광통다리 굽은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 위 겹다리라. 도로 올라 중학다리 다리 내려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 수각다리 모든 다리 밝은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금시초문 귀향다리 수종다리 습다리나 천생이 병신인가.

구절 풀이

* **귀향다리** : 귀양객을 낮춰서 놀리는 호칭 * **춘정일 십오야** : 정월 15일 보름 * **상원야(上元夜)** : 음력 정월 보름날 밤 * **장안시상** : 서울 장안 거리의 * **옥호금준(玉壺金樽)** : 옥 술단지과 금 술잔 * **배반(杯盤)** : 술상에 차려 놓은 그릇. 또는 거기에 담긴 음식. 혹은 흥취 있게 노는 잔치 * **적성가곡** : 춘향가 속에 들어 있는 노래 적성가 * **수종다리** : 백수증(白水症). 다리가 부어올라서 점점 퍼지게 되는 수종

현대어 풀이

철없는 어린 아이와 소 같은 젊은 계집이 손가락질 가라치며 귀향다리 온다고 하니 아아! 괴이(怪異)하다. 다리라고 칭하는 것이 괴이하다. 구름다리, 징검다리, 흙다리라. 정월 15일 보름날 밝은 달에 서울 장안의 열 두 다리 다리마다 바람 불어 옥 술단지에 금 술잔마다 다리다리 배반(杯盤)이요, 적성가곡은 다리다리 풍류로다. 웃다리, 아랫다리, 썩은 다리, 헛다리, 철물로 만든 다리, 판자로 만든 다리, 사람의 두 다리로 돌아들어 중촌을 올라가 광통다리, 굽은 다리, 수표다리, 효경다리, 마전다리, 아량 위의 겹다리라. 도로 올라가 중학다리, 다리를 내려오니 향다리요, 동대문 안 첫다리며, 서대문 안 학다리, 남대문 안의 수각다리, 모든 다리를 밟고 온 다리, 이 다리 저 다리 다 들어봤지만 귀향다리는 금시초문이라. 다리가 부어올라 점점 퍼지는 수종다리이니 습다리인가, 천생이 병신인가?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하여 병든 다리 두 손길 느껴치면 다리에 가까오니 손과 다리 머다한들 그 사이 얼마치리. 한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나 하여주렴. 부끄럼이 묻저 나니 동냥말이 나오더냐. 장가락 입에 물고 아니 가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제는 공손한 인사로다. 내 허리 가이 없어 비부에게 절이로다. 내 인사 차서 없이 종에게 존대로다.

구절 풀이

* **느려치면** : 길게 늘어뜨리면 * **머दान들** : 멀다고 한들 * **손이라나 하여주렴** : 손이라고나 불러주렴, 손[手, 손님(客)] * **동냥말** : 동냥을 달라는 부탁의 말 * **장가락** : 장타령, 빌어먹는 거지들이 부르는 노래 * **비부(卑夫)** : 비천한 사람 * **차서(次序)** : 위아래의 분별이 없어, 위아래 구별하지 않고 * **존대(尊待)** : 높여 대하다

현대어 풀이

아마도 이 다리는 실족(失足)하여 병든 다리일 것이니, 두 손길을 늘어뜨리면 다리에 가까울 것이니 손과 다리 사이가 멀다 한들 그 사이가 얼마나 멀 것인가. 다리라고 부르지 말고 한 층을 조금 높여 손이라고 불러주렴. 부끄럼이 먼저 나니 동냥을 달라는 말이 나오더냐. 장타령을 차마 내뱉지도 못하고 잘 나오지도 않는 헛기침에 허리를 굽힐 때는 공손하게 인사할 뿐이로다. 내 허리가 가엾어서 비천한 것들에게 절을 하게 되도다. 나의 인사는 위아래가 없이 종에게도 존대를 하는구나.

혼자말로 중중하니 주린 중 들어온가 그 집사람 눈치알고 보리 한 말 떠서주며 가져가오 불상하고 적객 동냥 예사오니 당면하여 받을 제는 마지못한 치사로다. 그럭저럭 얻은 보리 들고 가기 어려우니 어느 노비 수운하리. 아모려나 저 보리라 갖은 숙여 지려니와 홀 중치막 어찌할고.

구절 풀이

* **중중하니** : 중얼중얼하니 * **주린 중** : 굶주린 스님 * **눈치알고** : 눈치로 알아차리고 * **예사오니** : 특별한 일이 아니고 예사로 있는 일이니 * **당면(當面)하여** : 바로 눈앞에 당함 * **치사(致謝)** : 고맙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함 * **수운(輸運)하리** : 물건을 나를 것인가 * **저 보리라** : 등에 물건을 지다

현대어 풀이

혼자말로 중얼중얼하니 굶주린 중이 들어왔는가. 그 집 사람이 눈치로 알아차리고 보리 한 말 떠서 주며 가져가시오, 불쌍한 귀양객들의 동냥질은 예사로 있는 일이라고. 막상 닥쳐서 동냥을 받을 때는 마지못해 치사하더라. 그럭저럭 얻은 보리를 들고 가기가 어려우니 어느 노비가 있어 운반하리. 아무튼 한 번 짐을 져보리라. 갖은 숙여지지만 입은 홀 중치막은 거추장스러워 어이할고.

주변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하라. 넓은 소매 구기질러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등 거리 제법이라 하 괴이치 아니하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움는 듯 아모리 굽히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머지 아닌 주인집을 천신만고 겨우오니 존전의 출입인가 한출침배 하는고야. 저 주인 거동보소 코웃음 비웃으며 양반도 할일 없네. 동냥도 하시었고 귀빈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었고 밥싼 노릇 하오시니 저녁 밥 많이 먹소.

구절 풀이

* **주변** :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함 * **변통(變通)** : 형편과 경우에 따라서 일을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함 * **긴등** : 길게 뻗어 나간 언덕의 등성이 * **하 괴이치** : 너무 괴이하지, 너무 이상하지 * **일마다** : 하는 일마다 * **등짐** : 등에 짐을 짊어짐 * **미움는 듯** : 미는 듯 * **굽히려도** : 등을 굽으려고 해도 * **머지 아닌** : 멀지 않은 * **존전(尊前)** : 신불(神佛)이나 존귀한 사람의 앞 * **한출침배(汗出沾背)** :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 **밥싼 노릇** : 밥 먹을 자격이 있는 행동

현대어 풀이

주변머리 좋은 것이 으뜸이라. 변통을 아니 할 것인가. 넓은 소매는 구겨 질러서 품속으로 넣고 보니 긴 언덕의 거리가

제법 되나 너무 괴이하게 보이지는 않구나. 아마도 꿈이로다. 하는 일마다 모두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미는 듯, 아무리 허리를 굽히려 해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멀지도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니 높은 상전(上典)집에 출입을 하는 것같이 등에서 땀이 나오는구나. 저 주인의 거동을 보소. 코웃음 치며 비웃으며 “양반도 참 할 일이 없네. 동냥질도 하시었으니 귀한손님이라도 어쩔 수 없나 보네. 등짐까지 지셨고 밥값을 하셨으니 저녁밥이나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 번이지 빌긴들 매양하랴.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진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삼 일을 하잔 말고 신삼기나 하자하고 짚 한단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조희 노도 모르거든 셋기꼬기 어이하리. 다만 한 발 다 못 꼬아 손가락이 부르트니 할 리 없어 내어 놓고 긴 삼대를 베껴내어 자리 노를 배와 꼬니 천수만한 이 내 마음 부칠 데 전혀 없어 노꼬기에 부치었다.

구절 풀이

* **빌긴들** : (양식을) 빌기 인들 * **매양(每樣)하랴** : 항상 하라, 늘 하라 * **신날** : 짚신이나 미투리 바닥에 세로로 놓은 날. 네 가닥이나 여섯 가닥으로 하여 삼는다 * **조희 노** : 종이로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 * **삼대** : 삼나무의 줄기 * **자리 노** : 돛자리를 만들기 위해 꼬는 줄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고 원망함. 또는 그런 슬픔과 한 * **부칠 데** : (취미나 마음을) 붙일 데가

현대어 풀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질 하는 것도 한 번이지 빌어먹는 일을 항상 할 것인가.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짚신 삼기나 하자하고 짚 한 단을 추려다가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 줄도 모르는데 새끼 꼬기를 어찌하리. 다만 한 발을 다 못 꼬고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그만 두고 긴 삼대를 베껴내어 돛자리 줄을 배워서 꼬니 근심 많고 한이 많은 이 내 마음 붙일 데가 전혀 없어 노를 꼬는 일에 붙였다.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낙엽하고 금풍이 소슬하니 하목은 제비하고 추운은 일색일 제 황국 단풍이 금수장이 되었으며 만산초목이 잎잎마다 추성이라. 새벽 서리치는 날에 외기리기 슬피 우니 고객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의 얼굴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지고. 낙락장송 바람 되어 불어가서 보고지고.

구절 풀이

* **오동이 낙엽하고** : 오동나무의 잎이 떨어지고 * **금풍(金風)** : 가을바람을 달리 이르는 말 * **소슬(蕭瑟)** :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하목(夏木)은 제비(諸飛)** : 여름의 무성한 잎이 한꺼번에 모두 떨어져 날아감 * **추운(秋塚)** : 가을의 언덕 * **황국(黃菊)** : 노란 국화 * **금수장(錦繡帳)** : 비단에 수를 놓아 만든 장막 * **추성(秋聲)** : 가을의 소리 * **고객(孤客)** : 외로운 나그네

현대어 풀이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이 되었는가. 오동잎이 떨어지고 금풍이 으스스하고 쓸쓸하게 불어오니 여름의 무성한 잎은 모두 떨어져 날아가고 가을의 언덕은 누렇게 한 빛깔일 때 노란 국화와 단풍잎으로 비단 장막을 이루었으며 온 산의 초목들은 잎사귀마다 가을소리를 내더라. 새벽 서리치는 날에 외기리기 슬피 우니 외로운 나그네가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롭게 나더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임의 얼굴이 보고 싶다. 날개 돌친 학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 싶다. 만리나 되는 넓은 하늘 구름 되어 떠나가서 보고 싶다. 낙락장송(落落長松)의 바람이 되어 불어가서 보고 싶다.

오동추야 달이 되어 비취어나 보고지고. 북벽사창 세우되어 뿌려서나 보고지고. 추월춘풍 몇몇 해를 주야불리 하옵다가 전신만수 머다 머되 소식조차 둔절하니 철석간장 아니어든 그리움을 견딜소냐. 어와 못 잇을다 임을 그려 못 잇을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까지 버히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데 이어 흐르나니 물 버히는 칼도 없고 정 버히는 칼도 없네.

구절 풀이

* **오동추야(梧桐秋夜)** :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 달밤 * **북벽사창(北壁絲窓)** : 북쪽으로 난 비단 휘장으로 된 창문 * **세우(細雨)** : 가느다란 비 * **추월춘풍(秋月春風)** : 가을의 달과 봄바람 * **주야불리(晝夜不離)** : 밤낮으로 떨어지지 않음 * **머다 머되** : 멀고도 멀되 * **둔절(遁絶)** : 소식이나 연락 따위가 영영 끊어짐 * **철석간장(鐵石肝腸)** : 굳센 의지나 지조가 있는 마음, 무정한 마음 * **용문검(龍紋劍)** : 용을 수놓은 검 * **태아검(太阿劍)** : 중국 초나라 보검(寶劍)의 하나. 구야자(歐冶子)와 간장(干將)이 함께 만든 것으로 용연(龍淵), 공포(工布)와 더불어 명검으로 불린다 * **버히어도** : (칼로) 베어도

현대어 풀이

오동잎 떨어지는 밤에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 싶다. 북벽으로 난 비단창문에 가는 비가 되어 뿌려나 보고 싶다. 추월춘풍 몇 년이나 밤이고 낮이고 이별 없이 지내다가 전신만수 멀다고 하되 소식조차 끊어지니 쇠나 돌로 된 간장(肝腸)이 아니거든 그리움을 견딜쏘냐. 아아! 못 잊겠다. 임이 그리워 못 잊겠다. 용문검, 태아검에 비수검을 손에 쥐고 청산리 벽계수를 힘껏 베어내도 끊어지지 않고 다시 한데 뭉쳐 이어져 흐르나니 물을 베는 칼도 없고 정(情)을 베어내는 칼도 없네.

물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 어이하리. 용문지적 가비업고 옥정지수 흐리오며 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길이 있을소냐. 내 이리 그리운 줄 임이 혈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도힐 때 있었으니 엄상이 차다한들 우로가 아니오라. 울음 울어 떠난 입을 웃음 웃어 만나고저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간장이 다 타오니 무엇으로 끄잔 말고. 끄기가 어려울 손 오장의 불이로다. 천상수 얻어오면 끝 법도 있건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서가 바타 말이 없네.

구절 풀이

* **혈마** : 설마 * **모도힐 때** : 모아질 때, 모일 때 * **엄상(嚴霜)** : 된서리 * **우로(雨露)** : 비와 이슬 * **가삼** : 가슴 * **오장(五臟)** :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천상수(天上水)** : 하늘 위의 물. 빗물 * **서가 바타** : 혀가 밟아서, 혀가 말라서

현대어 풀이

물을 끊기도 어려우니 마음 끊기를 어찌 할 수 있으리. 용문지적 가비없고 옥정의 물이 흐리니 입을 그리는 마음이야 변할 리가 있을소냐. 내가 이렇게 그리운 줄을 임이 설마 잊었으랴. 풍운이 흩어져도 모아질 때가 있으니 된서리가 차다한들 기껏 비와 이슬이 아니겠는가. 울음 울고 떠난 입을 웃음 웃고 만나고자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 속에 불이 난다. 간장(肝腸)이 다 타오르니 무엇으로 끈단 말인가. 끄기가 어렵기로는 오장(五臟)에 붙은 불이로다. 천상수를 얻어온다면 끝 법도 하다마는 알고도 못 얻으니 혀가 말라서 말이 없네.

차라리 쾌히 죽어 이 설움을 잊자하고 포구사변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망해투사 하려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적적중문 굳이 달고 천사만상 다 바리고 불식아사 하려함도 한 번 두 번 아니오며 일각삼추 더디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시비에 개 짓으니 나를 놓을 관문인가. 반겨서 바라보니 황어파는 장사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사문 갖은 관선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낚은 어선이라. 하로도 열두 시에 몇 번을 기다린가. 설움 모여 병이 되니 백 가지 병 한데 난다.

구절 풀이

* **포구사변** : 포구의 모래밭 * **망해투사(茫海投死)** : 망망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음 * **적적중문** : 고요하고 쓸쓸한 중문(中門) * **천사만상(千事萬象)** : 세상의 온갖 일과 사물 * **불식아사(不食餓死)** : 굶어서 죽음 * **일각삼추(一刻三秋)** :

일각(一刻) 은 지금 시간으로 15분. 일각이 삼년처럼 느껴짐 * 시비(柴扉) : 사립문 * 관문(官文) : 관청의 문서, 즉 공문서 * 황어파는 : 황어를 파는, 황어(黃魚)는 잉엇과의 민물고기이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많이 잡힌다 * 사문(赦文) : 나라의 기쁜 일을 맞아 죄수를 석방할 때에, 임금이 내리던 글 * 한데 난다 : (온갖 병이) 한꺼번에 난다

현대어 풀이

차라리 얼른 죽어 이 설움을 잊자하고 포구의 모래사장에 혼자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며 바다에 몸을 던져 죽자고 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며, 쓸쓸하고 고요한 중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온갖 것을 다 버리고 굶어죽자 하려함도 한 두 번이 아니니, 하루가 삼년처럼 더디게 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까. 사립문에 개가 짖으니 나를 그만 놓아주라는 관청의 공문서인가. 반가워 바라보니 황어를 파는 장사치로다. 바다에 배가 오니 나를 그만 석방하라는 문서를 갖고 오는 관선(官船)인가. 일어서서 바라보니 고기 잡는 어선이라. 하루도 열두 때 몇 번을 기다렸는가. 설움이 모여 병이 되니 백가지의 병이 한꺼번에 나는구나.

배고파 허기증과 몸추워 냉증이요 잠 못들어 현기나고 조갈증은 예증이라. 술로 드온 병이오면 술을 먹어 고치오며 임으로 든 병이오면 임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으로 든 병에는 공명하여 고치잔들 활을 맞고 놀란 새가 살바지에 앉자하라. 신농씨 꿈에 만나 병 고친 약을 물어 청심환 회심단에 강심탕을 먹었은들 천금준마 잃은 후에 외양집을 고침이라. 갓은 성냥 다 배호자 눈 어두운 모양이다. 어와 이 사이에 해 벌써 저물었다. 청추가 다 지나고 엄동이 되단말가.

구절 풀이

* 냉증 : 냉병(冷病). 하체를 차게 하여 생기는 병증 * 조갈증(燥渴症) : 입술이나 입 안, 목 따위가 몹시 마르는 느낌이나 증세 * 예증(例症) : 평소에 늘 앓는 병 * 살바지 : 화살처럼 곧게 생긴 나뭇가지 * 신농씨(神農氏) : 중국의 옛전설 속의 제왕으로 삼황(三皇)의 한 사람. 농업·의료·악사(樂師)의 신, 주조(鑄造)와 양조(釀造)의 신이며, 또 역(易)의 신, 상업의 신이라고도 한다 * 청심환(淸心丸) : 심경(心經)의 열을 푸는 환약 * 천금준마(千金駿馬) : 값이 비싸고 뛰어난 명마 * 성냥 : 쇠를 불에 불리어 재생하거나 연장을 만들 * 배호자 : 배우고 나자 * 눈 어두운 : 눈이 어두워지게 된, 눈이 멀게 된 * 청추(淸秋) : 맑게 갠 가을. 음력 8월을 달리 이르는 말

현대어 풀이

배고파서 허기증이 나고, 몸이 추워 냉증이 나고, 잠 못 들어서 현기증이 나며 조갈증은 늘상 있는 병이라. 술로 든 병이라면 술을 먹어 고치고 임 때문에 난 병이라면 임을 만나 고치나니. 공명(功名)으로 든 병에는 공명(功名)으로 고치자고 한들 화살을 맞고 놀란 새가 화살처럼 곧은 나뭇가지에 앉으려고 할 것이냐. 신농씨를 꿈에 만나 병을 고치는 약을 물어 청심환, 회심단, 강심탕을 먹는다한들 천금을 주고 산 비싼 말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라. 온갖 물건을 만드는 기술을 다 배우자마자 눈이 어두워 소경이 되는 격이라. 아아! 어느 사이에 해가 저물었다. 맑은 기운의 가을이 다 지나고 추운 겨울이 되었단 말인가.

강촌에 눈 날리고 북풍이 호로하여 산하 산상에 백옥경이 되었으니 십이루 오경을 일실로 통하도다. 저 건너 높은 뫼에 홀로 섰는 저 소나무 오상고절은 내 이미 알았나니 광풍이 아무런들 겁할 것이 없거니와 도채 맨 저 초부야 행여나 짝으리라. 동백화 피은 꽃은 눈 속에 붙었으니 설만장안에 학정홍과 의연하다. 옛그제 그런 바람 간밤의 이런 눈에 높은 절 고운 빛이 고침이 없었으니 춘풍에 도리화는 도로혀 부끄럽다.

구절 풀이

* 백옥경(白玉京) : 옥황상제가 산다는 천상의 궁궐 * 십이루(十二樓) : 중국 곤륜산에서 선인(仙人)이 산다는 열두 채의 높은 누각 * 오상고절(傲霜孤節) : 서릿발이 심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외로이 지키는 절개. 대개 국화를 그렇게 부름 * 도채 맨 : 도끼를 맨 * 초부(樵夫) : 나무꾼 * 설만장안(雪滿長安) : 눈으로 가득 찬 서울 장안 * 학정홍(鶴頂紅) : 국화 품종 중의 하나 * 높은 절(節) : 높은 절개 * 도리화(桃李花) : 복숭아꽃과 오얏꽃 * 도로혀 : 도리어

현대어 풀이

강촌(江村)에는 눈이 날리고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 산 밑과 산 위가 모두 백옥경이 되었으니 곤륜산의 신선들이 산다는 십이루의 누각과 오경이 일실로 통하는구나. 저 건너 높은 산에 홀로 서 있는 저 소나무야, 서릿발에도 굴하지 않는 외로운 절개가 있음은 내 이미 알았나니 광풍이 아무리 분다고 한들 겁날 것이 없거니와 도끼를 맨 저 나무꾼이 행여나 찍을까 두렵구나. 동백꽃은 눈 속에서 붉게 피었으니 눈 덮인 장안에 학정홍 국화꽃과 함께 의연하구나. 옛그제 그렇게 불던 바람과 간밤에 이렇게 내린 눈에 높은 절개와 고운 빛깔이 달라짐이 없으니 봄바람에 까불대는 복숭아꽃, 오얏꽃이 도리어 부끄럽다.

어와 외박하니 설풍에 어찌하리. 보선 신발 다 없으니 발이 시려 어이하리. 하물며 찬 데 누워 얼어 죽기 편시로다. 주인의 근력 빌어 방반간 의지하니 흙바람 발랐은들 종이 맛 아올손가. 벽마다 틈이 벌어 틈마다 벌레로다. 구렁 지네 섞여있어 약간 버레 저허하랴. 굵은 버레 죽어내고 적은 버레 던져주네. 대을 엮어 문을 하고 현 자리로 가리오니 적은 바람 가리온들 큰 바람 어찌하리. 도중의 나무 모와 조석밥 겨우 짓네.

구절 풀이

* 외박(外泊) : (방이 아닌) 밖에서 잠을 잠 * 편시(片時)로다 : 잠깐이다, 금방이다 * 근력 빌어 : 힘을 빌려 * 방반간 : 반 칸짜리 방 * 흙바람 : 흙벽 * 종이 맛 아올손가 : 종이를 바르지 않았음 * 벌레로다 : 벌레로다 * 구렁 지네 : 구렁내가 나는 지네, 노래기를 말함 * 저허하랴 : 두려워하랴, 무서워하랴 * 대을 엮어 : 대나무를 엮어서 * 현 자리로 : 낡은 돛자리로 * 도중의 나무 : 길가의 나무

현대어 풀이

아아! 한데서 잠을 자니 눈보라에 어찌 견디리. 보선과 신발이 다 없으니 발이 시려 어이 견디리. 하물며 찬 데 누워 얼어 죽기가 잠시로다. 주인의 힘을 빌려 반 칸짜리 방을 지어 의지하니 흙벽을 바른들 종이 바른 벽 같을까. 벽마다 틈이 벌어져 틈마다 벌레로다. 구렁내 나는 지네가 섞여있어 웬만한 벌레를 두려워하랴. 굵은 벌레는 죽여내고 적은 벌레는 던져버리네. 대를 엮어 현 자리로 가리니 적은 바람은 가린다 하더라도 큰 바람은 어찌하리. 길바닥의 나무를 주워와 아침 저녁밥을 겨우 짓네.

간난한 손의 방에 불김이 쉬울소냐. 섬거적 뜯어 펴니 선단 요히 되었거늘 개가죽 추켜 덮고 비단이불 삼았세라. 적무인 빈 방안에 게발 물어 던지드시 새우잠 곱송거려 긴긴밤 새와 날제 우흐로 한기들고 아래로 냉기올라 일흠도 온돌이나 한데만도 못하고야. 육신이 빙상되어 한전이 절로 날제 송신하는 솟대런가 과녁 맞은 살대런가 사풍세우 물풍진가 칠보광의 금나빈가 사랑 만나 안고 떠나 겁난 끝에 놀라 떠나 양생법을 모르거든 고치조차 무삼일고.

구절 풀이

* 손의 방에 : 손님(작자자신)의 방에 * 선단 : 홑두루마기의 앞섶이나 치마폭에 세로로 댄 단 * 요히 : 담요가 * 적무인(寂無人) : 적막하고 사람이 없음 * 곱송거려 : 몸을 잔뜩 움추려 * 우흐로 : 위로 * 일흠도 온돌이나 : 명색이 온돌 방이지만 * 빙상(氷像) : 눈사람 * 한전(寒戰) : 오한이 심하여 몸이 떨림. 또는 그런 증상 * 송신(送神) : ① 제사가 끝난 뒤에 신을 보내는 일. ② 마마가 나온 지 12일 만에 짚으로 만든 말 모양의 두신(痘神)을 강남으로 보내는 일 * 솟대 :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인다 * 사풍세우(斜風細雨) : 비껴 부는 바람과 가늘게 내리는 비 * 칠보광(七寶光) : 칠보의 화려한 빛. 칠보는 금·은·청옥·수정·진주·마노·호박 * 금나빈가 : 금으로 된 나비인가 * 양생법(養生法) :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관리를 잘하여 오래 살기를 꾀하는 방법 * 고치 : 벌레가 실을 내어 지은 집

현대어 풀이

가난한 귀양객의 방에 불을 넣어 따뜻하게 하기가 쉽겠느냐. 거적을 뜯어서 펴니 선단같은 담요가 되었거늘 개가죽을 추켜 덮고 비단이불로 삼았구나. 적막하고 사람이 없는 빈 방에 게발을 물어 던지듯이 새우처럼 잔뜩 몸을 움츠리고

긴긴밤을 새울 때에 위로는 한기(寒氣)가 들고 아래로는 냉기(冷氣)가 올라와 명색은 온돌이지만 한데만도 못하구나. 육신(肉身)이 눈사람이 되어 오한에 몸이 저절로 떨리니 송신(送神)하는 솟대인가, 과녁 맞은 화살대인가, 사풍세우에 떠는 문풍지인가, 칠보의 광채가 나는 나비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끌어안고 몸을 떨거나, 겁이 난 끝에 놀라서 몸을 떨거나 간에 양생법도 모르는데 누에고치마냥 몸을 움츠리는 일은 무슨 일인가.

눈물 흘려 베개 젖어 얼음조각 비석인가. 새벽닭 뉘뉘우니 반갑다 닭의 소리. 단봉문 대루원에 대개문 하던 때라. 새로 이 눈물지고 장탄식 하던 때에 동창이 이명하고 태양이 높았으니 게을리 일어 앉아 굽은 다리 펴올 적에 삭다리를 조기는 듯 마디마디 소리 난다. 돌담뱃대 앞난초를 쇠똥불에 부쳐 물고 양지를 따라 앉아 옷에 이 주어낼 제. 아니 벗은 힘은 머리 두 귀 밑을 덮어 있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려내어 보내고저.

구절 풀이

* 단봉문 : 대궐 문의 하나 * 대루원(待漏院) : 조선 시대에, 이른 아침에 대궐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곳 * 대개문 : 대궐 문을 열 * 동창(東窓)이 이명(已明)하고 : 동쪽 창문이 이미 밝았고 * 삭다리 :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 '삭정이'의 방언 * 조기다 : 마구 두들기거나 패다 * 옷에 이 주어낼 제 : 옷에 붙은 이(虱)를 잡아낼 때 * 아니 벗은 : 빗지 않은

현대어 풀이

눈물을 흘려 베개가 젖으니 얼음조각으로 된 비석인가. 새벽닭이 뉘뉘우니 반갑구나 닭 울음소리. 단봉문 대루원에서 대궐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새롭게 눈물이 떨어지고 장탄식 하는 차에 동쪽 창문이 밝아오고 태양이 높이 솟았으니 천천히 일어나 앉아 굽은 다리를 펴 올 적에 마치 삭정을 두들겨 패는 듯 마디마디에서 소리가 난다. 돌담뱃대에 앞담배를 넣고 쇠똥을 태운 불에 부쳐 물고 햇볕 쬐는 곳을 따라가며 앉아 옷의 이를 잡아낼 때 빗지 않은 헝클어진 머리가 두 귀 밑을 덮었네. 내 형상 가련하다 그림으로 그려내어 보내고 싶구나.

이 정이 깊은 정을 만에 하나 옮기시면 오늘날 이 고생은 몽중사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척서도 못 전하니 초수오산 천만 첩에 내 그림을 뉘 전하리. 사랑스럽다 이 별이야 열었던 몸 녹는고나. 백년골 쪼이온들 싫다야 하라마는 어이한 쪼각구름 이따금 그늘지니 찬바람 지나칠 제 별을 가려 아처롭다.

구절 풀이

* 몽중사(夢中事) : 꿈속의 일 * 척서(尺書) : 예전에 편지를 뜻하는 말 * 초수오산(楚水吳山) : 초나라의 강물과 오나라의 산 * 사랑스럽다 : 사랑스럽다

현대어 풀이

이 정경 중에서 하나라도 옮긴다면 오늘날 이 고생은 꿈속의 일이 되련마는 기러기 지난 후에 편지도 전할 수 없으니 초수오산을 그린 그림이 천만첩이 된다 하더라도 내 그림을 누가 전하리. 사랑스럽구나 이 햇별이여, 열었던 몸이 녹는구나. 백년을 계속 쪼인단들 싫다고 하겠는가마는 어찌한 쪼각구름에 이따금씩 그늘이 지니 찬바람 지나칠 때 별을 가려서 안타깝구나.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셤고. 이 밤을 지내온 후 오는 밤을 어찌하리. 잠이라 없거들랑 밤이나 짜르거나. 하고 한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이 생각하고 살뜰히 애석일 제 목숨이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만물 생긴 중에 날날이 헤어 보니 모질고 단단한 이 날 밖에 또 있는가. 심산중 백악호가 모질기 날 같으며 독 깨치는 철몽동이 단단하기 날 같으랴. 가슴이 터지오니 터지거든 굵기를 뚫어 고모 창자 세살 창자 완자창을 갖초 내어 이같이 답답할 제 여달혀나 보고지고. 어와 어찌하리 혈마한들 어찌하리. 세상귀향 나뿐이며 인간이별 나 혼자랴. 소무의 복해고 생 돌아올 때 잊었으니

구절 풀이

* 짜르거나 : 짧거나 * 하고 한 : 많고도 많은 * 헤어 보니 : 헤아려 보니 * 날 밖에 : 나 외에 * 심산(深山)중 : 깊은 산중 * 백악호(白惡虎) : 흉악한 흰 호랑이 * 굴기 : 구멍 * 세살 창자 : 가는 살을 붙여 만든 창문 * 완자창(完字窓) : 창살을 완자형 또는 거꾸로 된 완자 모양으로 만든 창문 * 혈마한들 : 설마한들 * 소무(蘇武) : 중국 전한 때의 명신. 선우에게 붙잡혀 복속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아 복해(바이칼호) 부근에 19년간 유폐되었으나 굴복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 귀국했다

현대어 풀이

오늘도 해가 지니 이 밤을 어찌 지새울까. 이 밤을 지낸 후에 다가오는 밤은 또 어찌할 것인가. 잠이 없거든 밤이나 짧거나, 많고도 많은 밤이 오고 밤마다 잠 못 들어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고 살뜰하게도 애석해 할 때 목숨을 부지하여 밥 먹고 살았으니 인간 만물 생긴 것 중에서 날날이 헤아려보니 모질고도 단단한 것이 나 밖에 또 있는가. 깊은 산중 흉악한 백호가 모질기가 나와 같을 것이며, 독을 깨는 철몽둥이가 단단하기가 나와 같으랴. 가슴이 터지니 터지거든 구멍을 뚫어 고모장지 세살장지 완자창을 갖추어 이처럼 답답할 때 여달혀나 보고 싶다. 아아!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찌하리. 세상에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 나 뿐이며, 인간세상 이별한 이가 나 혼자이랴. 소무도 19년간이나 복해에 갇혔으나 돌아올 때가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을 귀불귀 혈마하랴. 무삼 일로 마음 붙여 이 설움 잊자하리. 자른 낫 손에 쥐고 뒷동산 올라가서 풍상이 섞여친데 만목이 소슬하고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베어 내어 가리쳐 다듬으니 발 가웃 낚시대라 좋은 품이 되리로다. 청울치 꼬은 줄이 낚시 메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희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새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 때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파립을 갖게 쓰고 망혜를 조여 쓰고 조대로 나가나니.

구절 풀이

* 귀불귀(歸不歸) : 돌아가지 못함 * 자른 낫 : 짧은 낫 * 만목이 소슬하고 : 온갖 나무가 으스스하고 쓸쓸하다 * 천고절(天高節) : 하늘이 높은 계절 * 봄빛이 혼자로다 : 홀로 봄날인 듯 푸르다 * 가리쳐 : 가지를 쳐서 다듬어 * 발 가웃 : 한 발 가웃이 되게, 한발 반이 되게. '발'은 어른 키 정도의 길이 * 청울치 : 침의 속껍질로 끈 노 * 새바람 : 샛바람. 뱃사람들의 은어로, '동풍'을 이르는 말 * 파립(破笠) : 헤어진 갓 * 갖게 : 뒤로 자빠지게 * 망혜(芒鞋) : 짚신 * 조대(釣臺) : 낚시터

현대어 풀이

나 홀로 이 고생을 하며 돌아가지 못하고 설마 그대로이랴. 무슨 일로 마음을 붙여 이 서러움을 잊자하리. 짧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바람과 서리가 섞여 친 곳에 모든 나무가 쓸쓸하고 하늘이 높은 계절인 이 가을에 푸른 대 나무는 혼자서 봄빛이로다. 곧은 대를 베어내어 가지를 쳐서 다듬으니 한발 반이 넘는 낚시대라. 좋은 품의 낚시대가 되겠구나. 침 속껍질로 노를 꼬아 낚시줄을 만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 날씨 좋구나. 샛바람이 불지 않고 물결이 고요하여 고기가 물 때로다. 낚시질 함께 가자. 찢어진 갓을 뒤로 자빠지게 쓰고 짚신을 조여 신고 낚시터로 나아가나니

내 놀이 한가롭다 원근산천이 흥일을 띄었으니 만경창파에 오로지 금빛이라. 낚시를 들이치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와 무는구나. 구타야 취어하랴 자취를 취함이라. 낚시대를 떨떠리니 잠든 백구 다 놀란다. 백구야 나지마라 너 잡을 내 아닐다. 네 본대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를소냐. 평생에 괴던 임을 천리에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못 이기니 수심이 첩첩하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없는 일간죽을 실없이 던졌으니.

구절 풀이

* 흥일(紅日) : 붉은 해 * 은린옥척(銀鱗玉尺) : 물고기를 아름답게 이르는 말 * 구타야 : 구태여 * 취어(取魚)하랴 : 물고기를 잡으랴 * 자취(自趣) : 스스로의 흥취. 스스로의 재미 * 떨떠리니 : 떨어뜨리니 * 괴던 : 사랑하던 * 수심(愁

心) : 근심스러운 마음 * 일간죽(一竿竹) : 낚싯대 하나

현대어 풀이

나의 놀이가 한가롭다. 멀고 가까운 산천(山川)에 붉은 해를 띄웠으니 만경(萬頃)이나 되는 푸른 물결에 오로지 금빛이 로다. 낚시를 던져놓고 무심히 앉았으니 크나큰 은빛 물고기가 저절로 와서 무는구나. 구태여 물고기를 잡아가라. 오직 스스로 흥겨워함을 위한 낚시로다. 낚싯대를 떨어뜨리니 잠든 갈매기가 다 놀라는구나. 갈매기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로다. 네 본래 영물(靈物)이니 내 마음을 모르겠는가. 평생에 사랑하던 입을 천리 밖으로 이별하니 사랑함도 좋거니와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니 근심의 마음이 첩첩하게 쌓여 마음을 둘 데 없어 흥(興)이 없는 낚싯대 하나를 실없이 던졌나니.

고기도 물잡거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러도 모르거든 내게 있는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붉은 마음 내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하마 거의 알리로다. 공명도 다 던지고 성은을 값으려니 성세에 한민되어 너 좇아 예 왔노라. 날보고 나지마라 네 벗이 되오리라. 백구와 수작하니 낙일은 창창하다. 낚대의 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 주인집 찾아오니 문 앞에 짓던 개는 날보고 꼬리친다.

구절 풀이

* 한민(閭民) : 한가로운 사람 * 낙일(落日) : 떨어지는 해, 지는 해 * 수작(酬酌) : ①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②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③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낚잡아 이르는 말. 여기서는 ②의 뜻임 * 낙일(落日) : 떨어지는 해 * 창창(愴愴)하다 : 갈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아득하다

현대어 풀이

물고기도 물지 않는데 하물며 너를 잡으랴. 그래도 모르거든 너의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붉은 마음 내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거의 알 것이로다. 공명(功名)도 다 던지고 임금의 은혜를 값으려하니 번창하고 태평한 이 시대에 한가로운 사람이 되어 너를 좇아 여기에 왔노라. 나를 보고 날지 마라. 너의 벗이 되리로다. 갈매기와 말을 주고받으니 떨어지는 해는 아득하구나. 낚싯대의 줄을 거두어 낚은 고기 꿰어 들고 강촌으로 돌아들어가 주인집을 찾아오니 문 앞에서 짓던 개는 나를 보고 꼬리친다.

난감한 내 고생이 오랜 줄 가지로다. 짓던 개 아니 짓고 임자도 되시고나. 반일을 잇은 시름 자연히 고쳐나니 아마도 이 내 시름 잇을 길 어려워라. 강천에 월락하고 은하수 기우도록 방등은 어디 가고 눈을 감고 앉았는고. 참선하는 노승인가 통경하는 맹인인가.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 소경 누가 본가. 누은들 잠이 오며 기다린들 임이 오랴. 내 험이 무삼 험고 이다지 많삽더고. 남경장사 남경 가니 반전장사 밋졌는가.

구절 풀이

* 가지(可知)로다 : 가히 알 수 있다 * 강천(江天) : 강가의 하늘, 바닷가의 하늘 * 월락(月落) : 달이 짐 * 방등(房燈) : 방안의 등불 * 통경(通經) : 불경, 경서에 통달함 * 누가 본가 : 누가 보았는가 * 무삼 험고 : 무슨 생각인가 * 많삽더고 : 많았더라 말인가 * 남경 : 중국의 도시 남경 * 반전(半錢) : 아주 적은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밋졌는가 : 손해를 보았는가

현대어 풀이

처지가 어려운 내 고생이 오래 될 것임을 나는 아노라. 예전에 짓던 개도 이제는 짓지 않고 개주인도 되는구나. 반일(半日)동안 잇었던 시름이 저절로 다시 나니 아마도 이 내 시름 잇을 길이 어렵구나. 강 하늘에 달이 지고 은하수 기울도록 방안의 등불은 어디 두고 눈을 감고 앉았는가. 참선하는 노승인가, 불경 읽는 맹인(盲人)인가. 팔도강산 어느 절에 중이면서 소경인 사람을 누가 보았는가. 누웠다 한들 잠이 오며, 기다린다 한들 임이 오랴. 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이다지도 많았던가. 남경장사가 남경으로 장사를 가서 푼돈밖에 못 벌고 손해를 보았는가.

이 햄 저 햄 아무 햄도 그만 하면 다 해려니. 해다가 다 못 해니 무한한 햄이로다. 갓없는 미친 설움 놀 찾아 한잔말고. 남초가 벗이 되니 내 설움 위로하니 먹고 떨고 담아 부쳐 한 무릎에 사오대라. 현기나고 두통하니 설움 잠깐 잊히 온들 오래기야 오랏손가. 홀연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삼 일고. 내 몸 어이 여기 온고. 변화고향 어데 두고 적막절도 들어온고 오랑각 어데 두고 두옥반간 의지하고 안팎 장원 어데 가고 죽창문 달았으며

구절 풀이

* 갓없는 : 끝없는 * 놀 찾아 한잔말고 : 누구를 찾으려 한단 말인가 * 남초(南草) : 담배 * 먹고 떨고 담아 부쳐 : 담배를 붙여 무는 과정 * 한 무릎에 사오대라 : 연속적으로 4-5대의 담배를 펴 * 적막절도(寂寞絶島) : 적막한 외딴 섬 * 오랑각(五樑閣) : 다섯 개의 도리로 짠 지붕틀로 지은 집. 즉 자기가 근무하던 대궐 * 두옥반간(斗屋半間) : 아주 작은 집과 방 * 장원(莊園) : 중국에서, 한(漢)나라 이후 근대까지 존속한 궁정·귀족·관료의 사유지 * 죽창문 : 대나무로 만든 초라한 창문

현대어 풀이

이 생각 저 생각 아무 생각이라도 그만 해아리면 다 해아려질 것인데 해아리다가 다 못 해아리니 무한(無限)한 해아림이로다. 끝 없는 미친 설움 누구를 찾아가자는 것인가. 담배가 내 벗이 되니 나의 설움을 위로하고 피우고 재를 떨고 담뱃대에 담아 불을 붙여 한 번에 서너 대씩 피우는구나. 현기증이 나고 두통이 나니 설움은 잠깐 잊는다 한들 오랫동안 안이나 잊을 수 있을 것인가. 홀연히 다시 생각하니 이 일이 무슨 일인가. 내 몸이 어찌 여기에 온 것인가. 변화한 고향을 어디 두고 적막하고 외로운 섬에 들어왔는가. 내가 봉직(奉職)하던 대궐을 어디 두고 좁디 좁은 반 칸짜리 집에 의지하는가. 안팎 장원(莊園)은 어디로 가고 초라한 대나무 창문을 달았는가.

서화도벽 어찌하고 흠바람벽 되었으며 산수병풍 어데 가고 갈 발 한 떼 돌렸으며 각장장판 어데 가고 갈자리를 깔았으며 경주탕건 어데 가고 봉두난발 되었으며 안팎보선 어데 가고 다목발이 별거하며 녹피당혜 어데 가고 육총짚신 신었으며 조반점심 어데 가고 일중하기 어려우며 사환노비 어데 가고 고공이가 되단말고. 아침이면 마당쓸기 저녁이면 불때히기 별이 나면 쇠똥치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들어가면 집지키기 보리명석 새날리기 거쳐변화 의복사치 나도 전에 하였더니

구절 풀이

* 서화도벽(書畫塗壁) : 서화를 바른 훌륭한 벽 * 흠바람벽 : 흠벽 * 갈 발 한 떼 돌렸으며 : 갈대로 엮어 벽에 둘러침 * 각장장판(角壯壯版) : 각장으로 바른 장판. 각장(角壯)이란 보통 것보다 폭이 넓고 두꺼운 장판지 * 갈자리 : 갈대로 엮은 돛자리 * 경주탕건 : 경주에서 만든 탕건 * 봉두난발(蓬頭亂髮) : 머리털이 쑥대강이같이 험수룩하게 마구 흐트러짐 * 녹피당혜(鹿皮唐鞋) : 사슴가죽으로 만든 고급 가죽신 * 육총(六總)짚신 : 허술한 짚신, 주로 스님들이 땅에 기는 생물을 밟아도 죽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신었다 * 일중 : 일중식 (日中食). 가난한 사람이 아침과 저녁은 굶고 낮에 한 번만 먹음 * 고공(雇工)이 : 머슴, 일꾼 * 새날리기 : 새를 쫓는 일 * 거쳐변화(居處繁華) : 거처하는 곳이 변화함 * 의복사치(衣服奢侈) : 사치스러운 의복을 입는 것

현대어 풀이

그림과 글씨로 치장한 벽은 어디로 가고 흠벽이 되었으며 산수를 그린 병풍은 어디로 가고 갈대로 엮은 돛자리를 둘러쳤으며 각장으로 바른 장판은 어디로 가고 갈대 자리를 깔았으며 경주에서 나는 질 좋은 탕건은 어디로 가고 쑥대머리 되었으며 안팎보선 어디로 가고 다목발이 따로 따로 놀며 사슴가죽으로 만든 당혜는 어디 가고 허술한 짚신을 신었으며 꼬박꼬박 먹던 아침, 점심밥은 어디로 가고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려우며 사환과 노비는 다 어디로 가고 내가 머슴이 되었던 말인가. 아침이면 마당 쓸기, 저녁이면 불 때기, 별이 나면 쇠똥 치우기, 비가 오면 도랑치기, 집지키기, 모리 명석에 내려앉는 새 날리기, 화려한 곳에 거처(居處)하고 의복 사치 부리기는 나도 전에 하였더니

좋은 음식 맛난 맛은 아마 거의 잊었세라. 설움에 쌓였으니 날 가는 줄 모르더니 헤엄없는 아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한 밤 자면 제덕 오니 떡국 먹고 노자네. 아해 말을 신청하라 여풍다이 들었더니 남녁 이웃 북녁 집에 나병소래 들리거늘 손을 꼽아 해어보니 오늘 밤이 게석일다. 타향의 봉가절이 이 뿐이 아니로다. 상빈명조에 또 한 해 되는고나. 송구영신이 이 한 밤뿐이로다. 어와 상풍 그렇던가 저녁 밥상 그렇던가. 예 못 보던 네모반에 수저 갖춰 장 김치에 나락밥이 돈독하고 생선 토막 풍성하다.

구절 풀이

* 제덕, 게석 : 제석(除夕), 제야(除夜)가 아닌가 함 * 신청(信聽)하라 : 믿고 곧이들겠느냐, 주의를 기울여서 신중히 들겠는가 * 여풍(如風)다이 : 바람결같이, 즉 흘러들음 * 나병(糯餅) 소래 : 찰떡 치는 소리. '나병(糯餅)'은 찰떡 * 봉가절(逢佳節) : 명절을 맞이함 * 상빈명조(常貧明朝) : 항상 가난한 중의 내일 아침 * 나락밥 : 쌀밥 * 돈독하고 : 도탑고 성실하고. 수복하게 쌓여 있고

현대어 풀이

좋은 음식의 아름다운 미각은 아마 거의 잊었도다. 설움에 쌓였으니 날이 가는 줄을 모르더니 생각 없는 아이들은 묻지도 않은 말을 한다. 하룻밤만 지나면 선달그믐이 되니 떡국 먹고 놀자고 하네. 아이들 말에 신경 쓰랴. 바람결에 들었더니 남북(南北)의 이웃집에서 찰떡 치는 소리가 나거늘 손을 꼽아 해아리니 오늘 밤이 선달 그믐날이로다. 타향에서 명절을 맞이함이 이 뿐이 아니로다. 가난한 중에 내일이면 또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송구영신이 오늘 밤이로다. 아아! 항상 그렇던가, 오늘 저녁 밥상만 그렇던가. 예전에 못 보던 네모진 상에 수저까지 갖추고서 김치에 쌀밥이 수복하고 생선토막도 풍부하구나.

그러도 설이로다 배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로 알았더니 내 이별 내 고생이 격년사 되었구나. 어와 섭섭하다 정초문안 섭섭하다. 북당쌍친이 백발이 더 하시고 공규화조는 얼마나 늦었는고. 오세에 떠난 자식 육세아 되었고나. 내 아녀 임이라도 내 설움은 설다하리. 천리이별에 해 벌써 바뀌도록 일자가신을 꿈에나 들었을까. 운산이 막혔는 듯 하해가 가렸는 듯 의창전 한매소식 물어볼 길 전혀 없네.

구절 풀이

* 격년사(隔年事) : 지난해의 일 * 북당쌍친(北堂雙親) : 북당에 거처하시는 두 부모 * 공규화조(空閨花鳥) : 텅 빈 아녀자 방의 꽃과 새 * 천리이별(千里一別) : 한 번 이별하여 천리에 떨어져 있음 * 일자가신(一字家信) : 한 글자의 집안 소식 * 의창전 : 작자가 근무하던 관청이름 * 한매(寒梅)소식 : 겨울에 피는 매화 소식

현대어 풀이

아무리 그래도 설이로다. 배가 부르니 설이로다. 고향을 떠나온 지 어제인줄 알았더니 내 이별과 내 고생이 일 년 전의 일이 되었구나. 아아! 섭섭하다. 정초의 문안인사가 섭섭하다. 북당(北堂) 부모님의 백발이 얼마나 더 느셨고 아내의 텅 빈 방안의 화조(花鳥)는 얼마나 늦었는가. 다섯 살에 떠난 자식 여섯 살이 되었구나. 내가 아니고 임이라도 내 서러움을 보면 서럽다 할 것이다. 한번 천리 밖으로 이별하여 벌써 해가 바뀌도록 한 글자의 집안 소식을 듣지 못하여 행여 꿈에서나 들었을까. 구름과 산이 막힌 듯 강과 바다가 가린 듯 의창전의 매화(梅花)소식 물어볼 길이 전혀 없구나.

바닷길 일천리가 머다도 하려니와 약수 삼천리에 청조가 전신하고 은하수 구만리에 오작이 다리 놓고 북해상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나니 내 가신 어이 하여 이다지 막혔는고. 꿈에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의 잠이 올 제 꿈인들 아니 꾸랴. 흐르나니 눈물이요 지어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이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내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으며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니

구절 풀이

* 청조(靑鳥)가 전신(傳信)하고 :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고. 푸른 새가 온 것을 보고 동방삭이 서왕모의 사자라고 한 한

무(漢武)의 고사에서 유래 * 오작(烏鵲) : 까마귀와 까치 * 상림원(上林苑) : 중국 장안(長安)의 서쪽에 있었던 궁원(宮苑) * 가신(家信) : 집안 소식을 전하는 편지

현대어 풀이

바닷길 천리가 멀다고도 하겠지만 그 무엇도 다 가라앉힌다는 약수(弱水) 삼천리에 파랑새가 편지를 전하기도 하고, 구만리의 은하수가 막혔어도 까막까치가 다리를 놓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기도 하고, 소무(蘇武)가 갇혀 있던 북해(北海)의 기러기는 상림원에 날아오기도 하는데 나의 집안 소식은 어이하여 이다지도 막혔는가. 꿈에서나 혼자 가서 고향을 보련마는 원수 같은 잠이 올 때 꿈인들 꾸지 않을까. 흐르나니 눈물ियो, 짓나니 한숨이라. 눈물인들 한도가 있고 한숨인들 끝이 있지 나의 눈물이 모였으면 추자섬이 생겼을 것이요, 이 한숨이 쌓였으면 한라산을 덮었으리라.

해안에 낙조하고 어촌에 연기 날 제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산상구적 소리는 소 모는 아해로다. 자는 새는 투림하여 옛집으로 날아드니 금수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 알았는가. 사람은 무삼일로 돌아갈 줄 모르는고. 뵈는 것이 다 설오고 듣는 것이 다 슬프니 귀먹고 눈 어두워 듣고 보지 말고라지. 이 설음 오랏 줄을 분명히 알 양이면 할 일은 결단하여 만사를 잊으리니 나 죽은 무덤 위에 눈을 갈지 받을 갈지 일도 혼백이야 있을런지 없을런지.

구절 풀이

* 산상구적(山上口笛) : 산 위에서 부는 휘파람 * 투림(投林) : 수풀 속으로 날아들 * 설오고 : 서럽고 * 말고라지 : 말 것이다 * 일도혼백(一到魂魄) : 한번 가버린 혼백

현대어 풀이

바닷가에 해가 떨어지고 어촌에 연기가 날 때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여 있는가. 산 위에서 부는 휘파람 소리는 소를 모는 아이들이 내는 소리로다. 새는 잠을 자러 숲속으로 뛰어들어 옛 보금자리로 날아드니 금수(禽獸)도 집이 있어 돌아갈 줄을 안단 말인가. 그런데 사람은 무슨 일로 돌아갈 줄을 모르는가. 보이는 것이 모두 서럽고 듣는 것이 모두 슬프니 귀먹고 눈 어두워 아예 듣도 보도 말고 싶구나. 이 서러움이 오랏 줄을 분명히 안다면 해야 할 일은 결단코 만사를 잊는 것뿐이라. 나 죽은 무덤 위에 눈을 갈지 받을 갈지, 한 번 가버린 혼백(魂魄)이야 있을지 없을지 내 어찌 알겠는가.

시비분별이야 없을런지 있을런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서리 칠지 의의천의를 알기가 어려워라. 촌촌간장이 구비구비 썩는구나. 간밤에 부던 바람 천산에 비 뿌리니 구심동군이 춘광을 자랑는 듯 미쁠손 천지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나무 잎이 피고 가지가지 꽃이로다. 방초는 처처한 데 춘풍소리 들리거늘 눈 씻고 일어 앉아 객창을 열쳐 보니 창전에 수지화는 웃는 듯 하였고나. 반갑다 저 꽃이여 예 보던 꽃이로다.

구절 풀이

* 의의천의(疑義天意) : 의심스럽거나 불분명(不分明)한 하늘의 뜻 * 촌촌간장(寸寸肝腸) : 마디마디의 창자 * 춘광(春光) : 봄의 햇빛 * 미쁠손 : 믿음성이 있구나 * 천지(天地)마음 : 천지의 마음, 자연의 운행 * 처처한 데 : 곳곳에 있는데 * 창전(窓前) : 창문 앞 * 수지화(樹枝花) : 나뭇가지와 꽃

현대어 풀이

옳고 그름을 분별함도 있을지 없을지,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바람 불어 서리가 칠지 모호한 자연의 뜻을 알기가 어렵구나. 마디마디의 간장(肝腸)이 굵이굵이 썩는구나. 간밤에 부던 바람 천산에 비를 뿌리니 구심동군이 봄빛을 자랑하는 듯. 믿음직하구나! 천지의 마음. 봄을 절로 알게 하니 나무마다 잎이 피고 가지마다 꽃이로다. 꽃처럼 아름다운 풀은 곳곳에 자라고 봄바람소리가 들리거늘 눈을 씻고 일어나 앉아 객창(客窓)을 열고 보니 창문 앞의 나뭇가지와 꽃은 웃는 듯하구나. 반갑다 저 꽃이여 예전에 보던 꽃이로다.

낙양성중에 저 봄빛 한 가지요 고향원상에 이 꽃이 피었는가. 간 해 오늘날에 웃음웃어 보던 꽃은 청준의 술을 부어
꽃격어 험을 놓고 장진주 노래하여 무진무진 먹자할 제 네 변화 질김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 이 날에 눈물 뿌려
보는 꽃은 아침에 나쁜 밥이 낮 못되어 시장하니 박잔에 흐린 술이 값없이 쉬울손가. 내 고생 슬픔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전년 꽃 올해 꽃은 꽃빛은 한가지나 전년 사람 올해 사람 인사는 다르도다.

구절 풀이

* 고향원상(故鄉園上) : 고향의 동산 * 장진주(將進酒) : 정철(鄭澈)의 사설시조 장진주사를 엮어 부르는, 여창 가곡의 한 변형곡 * 네 변화 질김으로 : 예전 변화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 낮 못되어 :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 박잔 : 보잘 것 없는 싸구려 술잔 * 값없이 : 술값이 없이 * 쉬울손가 : (마시기가) 쉬운가. 즉, 술값이 없어 술을 마시지도 못한다.

현대어 풀이

낙양 성중의 봄빛도 저것과 한 가지일 것이요, 고향 동산에도 이 꽃이 피었는가. 작년 이맘때 활짝 웃던 꽃은 맑은 잔
에 술을 부어 꽃가지 꺾어 헤아리며 장진주(將進酒) 노래하며 한없이 먹자고 할 때 예전 변화한 상태에서 즐거운 마음
으로 저 꽃을 보았더니 올해의 이 날에 눈물 뿌리며 보는 꽃은 아침에 먹은 허술한 밥이 낮이 되기도 전에 시장하니
싸구려 술잔의 탁한 술이라도 술값이 없으니 마시기가 쉬울손가. 내가 고생하니 슬픈 마음으로 저 꽃을 다시 보니 작
년의 꽃과 올해의 꽃은 색깔은 같으나 작년의 사람과 올해의 사람은 다르구나.

인생고락이 수유잠의 꿈이로다. 이렇저렇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 두고 의복 그려 하는 설움 목전 설움 난감하다.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춘하추동 다 진하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없으리. 여름에 하 더울 제 겨울을 바랐더니
겨울이 하 치우니 도로 여름 생각하네. 쓰오신 망건인가 입으신 철갑인가 사시에 하동없이 춘추만 되었고저. 발꿈치 드
러나니 그는 족히 견디어도 바지 밑 터졌으니 이 아니 민망한가. 내 손수 깎자하니 기울 것 바이 없네.

구절 풀이

* 수유(須臾)잠 : 잠시 동안 자는 잠 * 하동(夏冬)없이 : 여름이고 겨울이고 없이 * 의복 그려 : 제 철에 맞는 의복이
아쉬워 * 목전(目前) : 바로 앞의 * 진(盡)하니 : 하염없이 입으니 * 하동(夏冬)없이 : 여름과 겨울이 없이 * 바이 없네
: 전혀 없네

현대어 풀이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잠시 동안의 꿈이로다. 이런저런 허튼 근심 모두 다 던져두고 제철에 맞는 의복을 그
리워하는 눈앞의 설움이 난감하구나. 한 벌 의복 입은 후에 사계절을 내내 입으니 아마도 이런 옷은 내 옷밖에 또 있
겠는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겨울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더니, 겨울이 하도 추우니 도로 여름 생각이 나네. 쓴 것이 망
건인가, 입은 것이 철갑인가. 사계절에 여름겨울이 없이 봄가을만 있기를. 발꿈치 들어나니 그것은 능히 견딜지라도
바지 밑이 터졌으니 그 아니 민망한가. 내 손수 깎자 해도 기울 것이 전혀 없네.

애국은 실이로다 이리 얽고 저리 얽고 고기 그물 걸어맨 듯 꿩의 눈 찍어낸 듯 침재도 그지없고 수품도 사치롭다. 좀
전에 적던 식량 크기는 어쩐 일고 한 그릇 담은 밥은 주린 범의 가재로다. 초반석죽이면 부가용 부러하랴. 아침은 죽이
더니 저녁은 그도 없네. 못먹어 배고프니 허리띠 닳이런가. 허기져 눈 깊으니 뒤쪽도 거의로다. 정신이 아득하니 운무
에 쌓였는가. 한 되 밥 쾌히 지어 슬카지 먹고파져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천고만상을 아모런들 어찌하
리. 의복이 족한 후에 예절을 알 것이고 기한이 작심하면 염치를 모르나니 공무소불위함은 옛사람의 이른 바라.

구절 풀이

* **침재(針才)** : 바느질 솜씨 * **수품(手品)** : 솜씨 * **식량** : 음식을 먹는 양 * **조반석죽(朝飯夕粥)** : 아침에 밥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음 * **부가옹(富家翁)** : 부잣집 늙은이 * **그도 없네** : 그것도 없네 * **뒤꼭도 거의로다** : 눈이 들어가 거의 뒤통수로 나올 듯함 * **천고만상(千古萬象)** : 오래 전부터의 온갖 것들 * **기한(飢寒)이 작심(作甚)** : 춥고 굶주림이 심하게 됨 * **궁무소불위(窮無所不爲)** : 궁하면 하지 못하는 바가 없음, 배 고르면 무슨 짓이든지 함

현대어 풀이

애꿎은 실이로다. 이리 얽고 저리 얽어 고기 잡는 그물을 걸어 맨 듯, 꿩의 눈을 찍어 낸 듯 바느질도 한심하고 솜씨도 사치스럽다. 좀 전에 적었던 밥 먹는 양이 크게 되기는 어떤 일인가. 한 그릇 담은 밥은 굶주린 범이 가재를 먹는 것처럼 되었구나. 아침 밥 저녁 죽(粥)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부잣집 늙은이를 부러워하라. 아침은 죽(粥)이더니 저녁에는 그것도 없네.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니 허리띠의 탓이던가. 허기져서 눈이 들어갔으니 거의 뒤통수에 닿을 듯하더라. 정신이 아득하니 구름과 안개에 쌓여 있어서인가. 한 되의 밥을 얼른 지어 실컷 먹고 싶구나. 이러한들 어찌하며 저러한들 어찌하리. 오래 전부터의 온갖 것들이 아무런들 어찌하리. 의복이 풍족한 후에라야 예절을 알 것이고 추위와 배고픔이 극심하면 염치를 모르게 되느니, 궁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옛 사람들이 이르던 말이다.

사불관면은 군자의 예절이요 기불탁속은 장부의 염치로다. 질풍이 분 연후에 경초를 아홉나니 궁차의견하여는 청운에 뜻이 없어 삼순구식을 먹으나 못 먹으나 십년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염치를 모를 것가 예절을 바랄 것가. 내 생애 내 벌어서 구차를 면차하니 처음에 못 하던 일 나중은 다 배운다. 자리치기 먼저 하자 틀을 꽃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드놓을 제 두 어깨 문어지고 팔과 목이 부러진다. 명석 한 잎 들었으니 돈 오분이 값이로다.

구절 풀이

* **사불관면(辭不觀面)** : 사양하여 체면을 돌보는 일 * **기불탁속(飢不啄粟)** : 봉(鳳)은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은 먹지 아니 한다 * **경초(勁草)** : 역센 풀이라는 뜻으로, 지조(志操)가 깨끗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窮且益堅(궁차의견)** : 가난할수록 더욱 굳세어진다 * **삼순구식(三旬九食)** : 삼순(三旬), 곧 한 달에 아홉 번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집안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다는 말 * **십년일관(十年一冠)** : 십년 동안에 관(冠) 하나로 지냄, 구차한 생활을 이룸 * **구차를 면차하니** : 구차함을 면함 * **배운다** : 배운다 * **바디** : 베틀, 가마니틀, 방직기 따위에 딸린 기구의 하나 * **드놓을 제** : 들거나 놓을 때 * **문어지고** : 허물어져 내려앉고 * **돈 오분** : 다섯 푼의 돈

현대어 풀이

사양하여 체면을 돌보는 일은 군자들의 예절이요, 봉황은 아무리 굶주려도 좁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대장부의 염치로다. 질풍이 분 후에 역센 풀인지를 알게 되니 가난할수록 더욱 굳세어져 출세에는 뜻이 없이 삼순구식(三旬九食)으로 먹거나 못 먹거나 십년 내내 갓 하나로 지내거나 간에 염치를 모르겠는가, 예절을 바라겠는가. 내 생애 내 스스로 벌어서 구차함을 면하고자하니 처음에는 못하던 일도 나중에는 다 배우는구나. 먼저 돛자리치기를 하여보자. 틀을 꽃아 내려놓고 바늘대를 뽐내면서 바디를 들고 놓을 때 두 어깨가 무너져 내려앉고 팔과 목이 부러지는 것처럼 아프구나. 명석 값으로 한 잎을 들여 다섯 푼을 받고 팔았구나.

약한 근력 강작하여 부지런을 내자하니 손뿌리에 피가 나서 조희 골모 얼리로다. 실 같은 이 잔명을 끊음즉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인명이 지중함을 이제와 알리로다. 누구서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도 내 설움 오렐사록 화약이나 아니 될가. 날이 지나 달이 가고 해가 지나 돌이로다. 상년에 비던 보리 올해 고쳐 비어 먹고 지난 여름 낫던 고기 이 여름에 또 낫으니 새 보리밥 담아 놓고 가삼 맥혀 못 먹으니

구절 풀이

* **강작(強作)** : 억지로 기운을 냄 * **조희 골모** : 종이로 된 골무 * **얼리로다** : (피가) 물들게 하다 * **잔명(殘命)** : 남은 목숨 * **오렐사록** : 오래될수록 * **상년(上年)** : 지난해

현대어 풀이

힘도 약한데 억지로 힘을 내어 부지런을 떨려고 하니 손가락에 피가 나서 종이 골무에 피가 어리게 하도다. 실 같은 남은 목숨 끊음직도 하다마는 아마도 모진 목숨 내 목숨뿐이로다. 사람의 목숨이 지극히 중함을 이제야 알겠도다. 누가 이르기를 세월이 약이라 하나 내 설움은 오래될수록 화약(火藥)처럼 되지나 않을까. 날이 지나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나고 돌이로다. 작년에 베던 보리 올해에 다시 베고, 작년 여름에 낫던 고기 올 여름에 또 낫으니 새 보리밥을 담아 놓고 가슴이 막혀 못 먹으니

뛰든 고기 회를 친들 목이 메어 들어가랴. 설워함도 남에 없고 못견뎌도 별로하니 내 고생 한 해 함은 남의 고생 십년 이라. 흥즉길함 되올는가 고진감래 언제 할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설은 원정 비나이다. 책력도 해 묵으면 고쳐 쓰지 아니하고 노호염도 밤이 자면 풀어져서 버리나니 세사도 묵어지고 인사도 묵었으니 천사만사 탕척하고 그만 저만 서용하사 끊쳐진 옛 인연을 고쳐 잇게 하옵소서.

구절 풀이

* **뛰든 고기** : 뛰던 고기, 싱싱한 물고기 * **별로하니** : 남과 다르니 * **흥즉길함** : 흥(凶)한 것이 곧 길(吉)한 것으로 변함 * **원정(怨情)** : 원망하는 심정 * **책력(冊曆)** : 달력 * **노호염** : 노여움 * **세사(歲事)** : 그 해에 일어났던 일 * **인사(人事)** : 사람의 일 * **탕척(蕩滌)** : 죄를 씻어 줌 * **서용(恕容)** : 용서

현대어 풀이

펄펄 뛰던 물고기 회를 친다한들 목이 메어 들어가겠는가. 설움도 남에게는 없는 것이고 못 견뎌도 남과 다르니 나가 일 년 고생 하는 것이 남의 고생 십년 하는 것과 같도다. 흥(凶)한 것이 길(吉)하게 되려 하는지, 고진감래 언제 할까. 하나님께 비나이다. 서러운 원정(冤情)을 비나이다. 달력도 해가 지나면 다시 쓰지 아니하고 노여움도 밤이 지나면 풀어져버리나니 세사(歲事)도 세월이 흘러 묵은 일이 되고 사람의 일도 묵은 일이 되었으니 죄를 모두 씻어 주어 이제 그만 용서하사 끊어진 옛 인연을 다시 잇게 하옵소서.

▣ 작품 해설

- **제목 알기** : ‘만언(萬言)’은 ‘많은 말’이라는 의미로 유배지에서의 고초를 길게 풀어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 해제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안조환이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에 귀양 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은 **유배가사**이다. 작품은 2음보 1구로 쳐서 총 3,510구의 장편 가사로, 전·후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편 ‘만언사’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겪는 모멸감을 자학과 해학을 섞어서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후편 ‘만언사답(萬言詞答)’은 이웃 사람이 작가를 위로하는 내용인데, 사대부 취향의 관념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타이른다. 이 작품에는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이 씌직한 표현과 정서가 많아 생생하고 절절하다.

● 핵심정리

- ▶ **지은이**: 정조 때의 안조환(安肇煥) 혹은 안도환.
- ▶ **갈래** : 유배가사,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된 장편가사
- ▶ **성격** : 사실적, 애상적, 한탄적
- ▶ **구성** : <만언사>라는 주가사와 <만언사답(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됨
- ▶ **주제** :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유배 생활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 ▶ **화자의 정서와 태도** : 어렵고 힘든 유배생활에서 겪었던 고생담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죄를 뉘우치는 애절한 심정을 노래함.
- ▶ **표현** : 양반들의 점잖음이 아닌, 눈앞의 현실과 고통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어조를 사용함.
- ▶ **의의** :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

● 구성

서사	귀양 가는 신세에 대한 한탄
본사 1	공무를 잘못 처리하여 유배를 가게 된 과거 회상
본사 2	부모 친척과 이별하고 유배지로 가게 된 과거 회상
본사 3	유배지에서 궁핍한 생활상 묘사
결사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함
만언사 답	이웃 사람이 자결하려는 화자를 타이르며 위로함

● 이해와 감상

유배 가사의 하나로,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안조환이 지은 가사로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작자가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에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었다.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일화도 있다.

조위의 <만분가>, 김진형의 <북천가> 등과 아울러 유배문학에 속하는 가사이나, 다른 가사와는 달리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표백하여 놓은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된다.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된 장편가사로, 3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 만언사는 주가사와 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되어 있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3,500여구에 달한다.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며, 2·4조와 2·3조등도 보인다. 11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10여년간 외가에 의탁하였다가 후에 계모를 맞아 효행을 다하였던 일과 혼인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면서 행락에 빠지기도 하였던 일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벼슬하여 부귀가 변화하다가 유배형을 받게 된 일과, 유배길에 강두에서 부모친척과 이별하고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 다시 전라도의 여주, 익산, 전주, 정읍, 나주, 영암을 거치면서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

다음에는 유배지의 물과 더위로 인한 고초와 보리밭과 소금과 장으로 연명하는 굶주림 등을 묘사하였다. 김진형이 지

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

■ 다른 유배 문학 작품들과의 차이점

이 작품은 같은 유배 문학에 속하는 정철의 ‘사미인곡(思美人曲)’, ‘속미인곡(續美人曲)’, 조위의 ‘만분가(萬憤歌)’, 김진형의 ‘북천가(北遷歌)’ 등과 내용상 구별된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하거나, 당시 모순된 정치 현실을 비판적으로 제시한 여느 작품과는 달리, 유배 생활을 하며 겪었던 고생담,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한 등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임금을 그리워하는 서정성이 약화되어 있는 반면, 유배 생활에서 느끼는 슬픔과 회한이 전형적인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배 가사	≠	만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연한 태도 ▪ 억울함 호소 ▪ 연군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과 뉘우침의 태도 ▪ 고통스러운 삶의 사실적 묘사 ▪ 연군지정의 약화

■ 작품의 구조

귀양 가서 겪었던 갖은 고생과 자신의 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주가사인 ‘만언사’에 ‘만언사답’이란 제목의 작은 글이 첨가되어 있는 특이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만언사’는 서사에서 귀양가는 신세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하여, 본사에서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지낸 일, 혼인 후 향락적인 풍류에 탐닉하게 된 일, 공무를 잘못 처리하여 유배를 가게 된 과거사를 회상하고, 유배지로 가는 노정(路程)과 유배지에서의 간난신고(艱難辛苦)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죄를 회개한 후, 결사에서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같은 ‘만언사’의 답가 형식으로 구성된 ‘만언사답’은 귀양살이의 괴로움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는 화자용 이웃 사람이 타이르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작가가 누군가에게 위로받고자 한 심리가 반영된 것인 듯하다.

만언사	+	만언사답
궁핍한 유배 생활로 인한 자기 한탄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이웃 사람들이 자결하려는 화자를 타이르며 위로함

■ 체험과 감정의 숨김없는 표출

이 작품은 유배 문학에 속하는 다른 가사들에 비해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사실적으로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 이 작품의 작가는 당쟁과는 관계없이 공무상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 유배되었기 때문에 유배 생활의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임금에 대한 그리움이나 충성심이 작품의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다만 유배지에서의 궁핍한 생활상과 그 속에서 느끼는 고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데에 치중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어조 면에서 양반들의 점잖음 또는 의연한 태도 같은 것이 눈에 띄지 않으며, 절절한 신세 한탄에서 회한의 어조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즉, 허식과 과장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성격이 강한 유배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 평민적인 사실성을 보이는 데 근접한 작품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과 감정의 사실적 제시 ▪ 궁핍한 유배 생활의 구체적 묘사 ▪ 회한의 어조
↓
평민적 사실성

■ 이해와 감상

조선 정조 때의 문신 안조환이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에 귀양 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은 유배가사이다. 작품은 2음보 1구로 쳐서 총 3,510구의 장편 가사로, 전 · 후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편 ‘만언사’는 귀양살이를 하면서 겪는 모멸감을 자학과 해학을 섞어서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후편 ‘만언사답(萬言詞答)’은 이웃 사람이 작가를 위로하는 내용인데, 사대부 취향의 관념적인 말을 늘어놓으면서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참으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옳다고 타이른다. 이 작품에는 하층민이나

부녀자들이 씩씩한 표현과 정서가 많아 생생하고 절절하다.

■ 이해와 감상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大殿別監)이던 안조환(安肇煥)이 지은 유배 가사의 하나로, <만언사(謾言詞)>,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작자가 주색에 빠져서 국고를 횡령하여 추자도(楸子島)에 유배되어 굶주림과 추위, 집주인의 학대와 조롱 등에 시달리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다. 일설에 의하면 이 노래가 멀리 한양에 전하여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 글을 읽는 궁녀들의 눈물을 자아내었다한다. 조위(曹偉)의 <만분가(萬憤歌)>, 김진형(金鎭衡)의 <북천가(北遷歌)> 등과 아울러 유배문학(流配文學)에 속하는 가사이나, 가사의 성격은 다르다. 대부분의 유배가사는 고위관리를 지내다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당한 고위관료의 울분의 심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의 작자는 하급벼슬아치로서 자신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받는 처지이며 따라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지 자신을 조롱하고 학대하는 유배지의 인물들에 대한 분노와 쓸쓸한 감정이 대신하고 있다. 명분과 체면, 이상을 추구하는 당시의 지배적 계급이 아닌 보다 서민층에 가까웠던 작자의 인생에 걸맞게 현실의 세세한 묘사가 자못 사실적이며 현장감이 넘친다. 전편(前篇)과 속편(續篇)을 합하여 모두 3500여구로 된 장편가사로, 3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한글로 씌어져 있다.

■ 이해와 감상

유배 가사의 하나로, 조선 정조 때 대전별감이던 안조환이 지은 가사로 <사고향(思故鄉)>이라고도 한다. 작자가 주색에 빠져서 국고금을 축낸 죄로 34세 때 추자도에 귀양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을 애절하게 읊었다.

이것이 임금에게 알려져 유배에서 풀려났다는 일화도 있다.

조위의 <만분가>, 김진형의 <북천가> 등과 아울러 유배문학에 속하는 가사이나, 다른 가사와는 달리 자신의 체험과 감정을 고스란히 표백하여 놓은 사실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재평가된다.

전편 2,916구, 속편 594구로 된 장편가사로, 3종의 필사본이 전하는데,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 만언사는 주가사와 만언답사, 사부모, 사처, 사자, 사백부로 구성되어 있다. 2음보 1구로 계산하여 총 3,500여구에 달한다.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주조를 이루며, 2·4조와 2·3조등도 보인다. 11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고, 10여년간 외가에 의탁하였다가 후에 계모를 맞아 효행을 다하였던 일과 혼인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면서 행락에 빠지기도 하였던 일을 노래하였다.

이어서 벼슬하여 부귀가 변화하다가 유배형을 받게 된 일과, 유배길에 강두에서 부모친척과 이별하고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 다시 전라도의 여주, 익산, 전주, 정읍, 나주, 영암을 거치면서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였다.

다음에는 유배지의 물과 더위로 인한 고초와 보리밥과 소금과 장으로 연명하는 굶주림 등을 묘사하였다. 김진형이 지은 장편 유배 가사인 <북천가>와 더불어 쌍벽을 이룬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교재 수록 부분)

인간이별 만사중에 독수공방 더욱 싫다.(임을 그리워 하며 독수공방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가 단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

임 못 보아 그리운 이내 심정을 누가 알리.

맺힌시름 허튼 근심 다 후리쳐 던져두고[맺힌 시름 흐트러진 근심 다 팽개쳐 던져두고]

자나깨나 깨나자나[오매불망(寤寐不忘)으로 비슷한 말로전전반측(輾轉反側), 전전불매(輾轉不寐), 오매사복(寤寐思服), 사복(思服), 주사야몽(晝思夜夢), 주사야탁(晝思夜度); 존념(存念), 연연불망(戀戀不忘)이 있고, 그 뜻은 자나깨나 잊지 못함을 말함, 어휘의 배치를 달리하여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음] 임 못 보니 가슴 답답

어린 양자(樣姿 : 임의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제시함, 앓된 얼굴) 고운 소리 눈에 암암('어린 양자'에 대응) 귀에 쟁쟁('고운 소리'에 대응)

보고지고[보고싶다] 임의 얼굴(시각적 심상) 듣고지고[듣고 싶다] 임의 소리(청각적 심상)

▶ 서사 : 독수공방하는 화자의 처지와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

비나이다 하느님(기원의 대상으로 천지신명을 말함)께 임 생기라 비나이다

전생차생[전생과 금생] 무슨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잊지말자 처음 맹세 죽지말자 백년기약[금석지약(金石之約)으로 비슷한 말은 굳은 언약, 맹약(盟約), 금석상약(金石相約), 금석뇌약(金石牢約)이 있고, 행복했던 임과의 과거의 상황으로 현재와 대조적임]

천금같이 믿었는데 세상일에 마(魔 : 일이 잘되지 아니하게 해살을 부리는 요사스러운 장애물)가 많다

근원흘러 물(충만한 사랑)이 되어 깊고 깊고 다시 깊고[AABA구조]

사랑모여 뉘(깊어진 사랑)가 되어 높고 높고 다시 높아(대구와 반복을 통한 강조)

[임에 대한 사랑]무너질줄 모르거든 끊어질줄 제 뉘알리(임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조물이 샘을 내는지 귀신이 장난질하는지

일조낭군 이별후에 소식조차 둔절하니[하루 아침에 편지나 소식 따위가 딱 끊어짐]

오늘올까 내일올까 그린지도 오래거라

무정한 세월이 절로가니 옥안은발 공로로다[옥같이 곱고 해 맑은 얼굴과 삼단 같은 검은 머리 아무 일도 해놓은 것 없이 헛되이 늙는구나]

오동(梧桐) 야우(夜雨)[오동 나무에 밤비] 성긴 비에[드물게 내리는 비에] 밤은 어이 더디 가고

녹양방초(綠楊芳草)[푸른 버들과 향기로운 풀] 저문 날에 해는 어이 수이 가도

이내 상사(相思)[그리워함] 아르시면 임도 나를 그리리다

적적(寂寂)심야(深夜)[적막한 깊은 밤] 혼자 앉아 다만 한숨 내 벗이라

일촌(一寸) 간장(肝腸)[한토막 간장이, 간과 대장이] 구비 썩어 피어나니 가슴 답답

우는 눈물 받아 내면 배도 타고 아니 가랴 [눈물이 배를 탈 수 있는 만큼 많이 흐른다(과장법)]

피는 불이 일어나면 임의 옷에 당기리라[대구법, 과장법]

사랑 계워[이기지 못해] 우던 울음 생각하니 목이 메고

교태 계워 웃던 웃음 헤아리니 더욱 싫다

지척(咫尺) 동서(東西) 천 리[가까운 거리가 천리가 되니(이별로)] 되야 바라보니 눈물이고

만첩(萬疊) 상사(相思)[겹겹이 둘러싸인 듯한 그리움] 그려 낸들 한 붓으로 다 그리라

날개 돌힌 학이 되야 날아가다 아니 가랴 [임에게 가고 싶은 시적 화자의 마음을 형상화함]

산은 첩첩하여 고개되고 물은 흘러 소(沼)가 된다.[임을 만나기 위한 상황이 매우 어려움을 나타낸 말로, 이를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할 '고개'와 건너야 할 '소'는 '산'과 '물'보다 그 정도가 더 심한 장애물이다. 이것은 결국 임에 대한 그리움이 그만큼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인간이별 만사중에 나 같은이 또 있을까[세상의 많은 이별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바람불어 구름되어 구름끼어 저문날에

나며들며 빈 방으로 오락가락 혼자 앉아 [일없이 빈방에 혼자 오락가락하고 앉아서]

임 계신데 바라보니 이내 상사 허사로다[임 계신 곳을 바라보니 나의 그리워함은 헛된 일이다.]

공방미인[독수공방과 유사한 의미] 독상사[독수공방하며 임 생각에 몸부림치는 일]가 예로부터 이러한가

▶ 본사 : 소식 없는 임을 그리워하며 외로움만 깊어감.

나 혼자 이러한가 남(다른 여인)도 아니 이러한가

노류장화[길가의 버들가지와 담장 위의 꽃송이라는 말로 화류계의 여인으로 질투의 대상] 꺾어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기쁜 빛으로 다니는가 / 바람을 피우는가]

날 사랑 하던 끝에 남을 사랑 하시는가

산계야목[산평과 들오리로 성미가 괄괄하여 잡기가 어려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여기서는 임을 뜻함] 길을 들여 돌아 올줄 모르는가(산계야목 길을 들여 놓을 줄을 모르는가)

노류장화[길가의 버들가지와 담장 위의 꽃송이라는 말로 화류계의 여인으로 질투의 대상] 꺾어쥐고 춘색으로 다니는가 [기쁜 빛으로 다니는가 / 바람을 피우는가]

날 사랑 하던 끝에 남을 사랑 하시는가

가는 길 자취없어 오는 길이 무딤거다(더디리라/ 무디리라)(가는 꿈이 자취되면 나에게 오는 길이 무디리라)

한번 죽어 돌아가면 다시 보기 어려우니[임을 다시 보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

▶ 결사 : 임의 마음을 궁금해하며 임이 돌아오기를 기원함.

▣ 작품 해설

▣ 핵심정리

■ 연대 : 미상

■ 작자 : 미상

■ 성격 : 애상적

■ 어조 : 여성적, 독수공방의 처지를 한탄하는 어조

■ 특징

* 4음보 연속에 의한 운율 형성

* 서민적 어휘와 양반층의 어휘가 혼재

* 남녀간의 연정을 임금에 대한 충정의 우의적 표현으로 사용한 전기가사와는 달리 이념적 틀에서 벗어난 남녀간의 순수한 연정을 표출

*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함

■ 제재 : 떠난 임과 독수공방의 처지인 '나'

■ 형식 : 196구의 가사로 가창가사의 특징을 나타냄

■ 주제 : 남녀사이의 연정

★작품에 나타난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과거⇒ 나와 임은 잊지 말자고 죽지 말자고 백년 가약을 약속했던 관계

현재⇒ 임이 떠나고 나만 그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 때문에 전생에서부터 이어 저온 임과의 인연마저 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화자의 심정은 싫다, 가슴 답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괴로움이며, 보고지고, 듣고지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임에 대한 그리움이다. 그러나 떠난 임은 소식이 없으며, 그럴수록 임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깊어 간다. 화자는 그러한 상황을 자연물의 심상을 통해 전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 하고 있다. 이 역시 임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가를 반어적으로 보여 주는 심리이다.

미래⇒ 화자가 비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미래에는 임과의 재회를 통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 이해와 감상

12가사 중의 하나로 18세기의 만언사와 19세기의 한양가에 이 작품의 제목이 인용되고 있어, 18세기에는 가창(歌唱)으로 존재했으며, 19세기에도 대표적인 잡가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구영언 등의 가집과 '증보신구잡가'를 비롯한 각종 잡가집, 그리고 소설 '부용의 상사곡' 등에 전한다. 각 이본들 사이에는 표현상에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크게 다른 점은 없다. 그 중 '남훈태평가'에 전하는 이본을 보면, 4음보 1구로 계산하여 전체 49구이며, 율격은 4음보 4보격 무제한 연속체로써 가사의 율격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가끔 음보의 추가와 결손 현상을 상당히 보여 가창 가사의 특징을 나타낸다. 내용은 인간의 이별 만사중에 독숙공방(獨宿空房)이 더욱 싫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기다리는 마음과 상사(相思)하는 마음을 여러 각도로 묘사한 다음, 한번 죽어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니. 옛정이 있거든 다시 보게 태어나길 기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남녀 사이의 순수한 연정을 주제로 한 이러한 상사류의 가사 가운데 전형성을 보이는 작품으로 이 작품의 문학사적 위치를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상사류의 가사는 조선 전기의 사대부 가사 가운데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는 '사미인곡(思美人曲)' 계열의 가사를 계승한 것이지만, 후자에 있어서 남녀간의 연정은 신하(여성화자)가 임금(임)을 흠모하는 충정의 우의(寓意)라는 점에서 주자주의(朱子主義)라는 이념의 고리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상사류는 그러한 이념적 질곡에서 벗어나 남녀간의 순수한 연정을 무한정 표출한다는 점에 그 특성이 있다. 상사별곡의 음악적 형식은 각 절의 길이가 서로 다른 11개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절은 ' 仲 林 仲 仲 太 黃 黃 黃'이라는 반복되는 종지형에 의하여 구분되며 맨 마지막 절의 종지형은 다르다. 한편, '자나 깨나 ~부터 ~귀에 쟁쟁'까지의 내용을 '가삼이 답답'에서 나누어 전체를 12절로 표시하고 있다. 장단은 5박, 구성음은 黃·太·仲·林·南, 음의 장식 기법은 계면조적이다. 또한 창법은 가성을 많이 쓰며 음을 요성(搖聲)할 때에는 궁중 음악계

통의 특징과 민속음악적인 특징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전성기법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경과적인 장식음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퇴성(退聲)은 임종에서 중려로 하행진행할 때 태주에서 황종으로 하행진행할 때와 거의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악의 종지형에 근거한 장별 구분 및 사설은 위의 본문 일부와 같다.

▣ 본문 해설 (교재 수록 부분)

사람들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고 있네. [대조,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 질타]

[이 시는 가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임하기 위해 지어진 것으로 가마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가마꾼들의 고통을 모르고 즐겁게 가마를 타는 사람들

가마 메고 험한 산길 오를 때면,

빠르기가 산 타는 노루와 같고 [직유법]

가마 메고 비탈길 내려올 때면,

우리로 돌아가는 염소처럼 재빠르네.

가마 메고 깊은 골짜기 건너갈 때면,

다람쥐도 덩달아 같이 춤추네.

[작자는 가마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의 노동을 고역으로만 보지 않는다. 가마를 메면서 민중들이 느끼는 노동의 흥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민중의 삶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위 옆을 지날 때에는 어깨 낮추고,

오솔길 지날 때에는 종종걸음 걸어가네.

검푸른 저수지 절벽에서 내려다볼 때는,

놀라서 혼이 나가 아찔하기만 하네.

[가마꾼들이 가마를 메고 산 길을 지날 때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다.]

평지를 밟듯이 날쌔게 달려

귀에서 바람 소리 뽕뽕 난다네.

▶ 산길을 재빠르게 오르내리는 가마꾼들의 모습 (역동적 이미지)

이 산에 유람하는 까닭인즉슨

이 즐거움 맨 먼저 손꼽기 때문 [권력층의 가마를 타는 즐거움]

근근히 관첩[官帖지방의 호장에게 주던 나라의 임명장]을 얻어만 와도

역속(役屬)[하급 관리-가마꾼을 억압하는 존재, 관리는 높으나 낮으나 가마꾼을 억압함.]들은 법대로 모셔야 하는데
하물며 말타고 행차하는 한림(翰林)[권력층, 높은 벼슬-가마꾼을 억압하는 존재]에게

누가 감히 못 하겠다 거절하리오. [설의법]

고을 아전[하급 관리]은 채찍 들고 감독을 맡고,

수승[首僧중의 우두머리]은 격식 차려 맞을 준비하네.

높은 분 영접에 기한을 어길쏘냐,

엄숙한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네.

▶ 가마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없이 산길에서 가마 타는 일을 즐기는 권력층의 행렬이 이어짐.

가마꾼 숨소리 폭포 소리에 뒤섞이고

해진 옷에 땀이 베어 속속들이 젖어 가네
 외진 모퉁이 지날 때 옆엿놈 뒤쳐지고,
 험한 곳 오를 때엔 앞엿놈 허리 숙여야 하네.
 밧줄에 눌리어 어깨에 자국 나고,
 돌에 채여 부르튼 발 미쳐 낫지 못하네. [가마꾼들의 고된 노동과 고통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
 자기는 병들면서 남을 편케 해 주니,
 하는 일 당나귀와 다를 바 하나 없네.
 너나 나나 본래는 똑같은 동포이고,
 한 하늘 부모삼아 다 같이 생겼는데, [인간평등사상, 신분제의 모순 지적]
 너희들 어리석어 이런 천대 감수하니, [반어적 표현 - 표면적 : 가마꾼을 나무람, 이면적 : 작자의 연민과 안타까움]
 내 어찌 부끄럽고 [양반으로서의 부끄러움] 안타깝지 않을쏘냐.
 나의 덕이 너에게 미친 것 없었는데, [양반으로서의 반성]
 내 어찌 너의 은혜 혼자 받으리.
 형 [지배층]이 아우 [피지배층]를 사랑치 않으니,
 자애로운 아버이 [임금] 노하지 않겠는가.

▶ 고된 노동을 하는 가마꾼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

[신분의 차이를 두고 형과 아우라고 비유한 것이라면, 작자는 형의 입장에서 가마꾼의 노고를 감사해 하고 그들을 아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신분제의 모순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평민들의 형으로서 사대부가 지켜야 할 태도라는 점에서 선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들은 그래도 나은 편이요.
 영하호 [嶺下戶 관인들의 행차 때 가마를 메어 주는 의무를 지고 사는 마을.] 백성들은 가련하고나.
 큰 깃대 앞세우고 쌍마(雙馬) 수레 타고 오니,
 촌마을 사람들 모조리 동원하네.
 닭처럼 개처럼 내몰고 부리면서,
 소리치고 꾸중하기 범보다 더 심하네.
 예로부터 가마 타는 자 지킬 계율 있었는데, [가마꾼의 노고에 감사하며 그들의 삶을 배려하고 보살핌]
 지금은 이 계율 흠같이 버려졌네.
 발 갈다가 징발되면 호미 내던지고
 밥 먹다가 징발되면 먹던 음식 뺏어야 해.
 죄 없이 욕 먹고 꾸중 들으며,
 일만 번 죽어도 머리는 조아려야.
 병들고 지쳐서 험한 고비 넘기면,
 그 때야 비로소 포로 신세 면하지만,

[실제의 포로가 아니라 관리에게 붙잡혀 일을 해야 하는 신세를 비유한 말]

사또는 일산(日傘) [양산] 쓰고 호연(浩然)히 가 버릴 뿐,
 한 마디 위로의 말 남기지 않네. [권력자의 부정적인 모습]
 기진 맥진하여 눈발으로 돌아오면
 지친 몸 신음 소리 실낱 같은 목숨이네.

▶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가마꾼으로 징발하는 부당한 행태

이 가마 메는 그림 그려
 임금님께 돌아가서 바치고 싶네.

[가마를 메는 사람과 가마를 타는 사람의 관계를 유추하여 백성과 임금의 관계에까지 연결짓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

가 엿보인다. 또한 임금이 관리들의 횡포를 막아 주길 바라고 있다.]

▶ 가마 노역으로 백성들이 부당하게 고통받는 모습을 임금께 고하고자 함.

▣ 작품 해설 1

▣ 핵심 정리

- 연대 : 조선 순조, 1832년
- 갈래 : 한시(漢詩)
- 성격 :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풍자적
- 제재 : 가마꾼으로 징집당한 백성들
- 주제 : 부당한 사회 현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고발과 비판
- 출전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갈래 : 칠언배율
- 구성 : 내용 전개상 전4단락으로 구분

- 제1단락(1~14행)은 가마꾼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른다'는 내용의 "人知坐輿樂(인지좌여락)/不識肩輿苦(불식견여고)"로 시작해 가마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제2단락(15~24행)에서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말하고 있다. 지체높은 관리들의 영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가마를 메야 하는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 제3단락(25~42행)은 가마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고 있다. '가마꾼 숨소리 폭포소리에 뒤섞인다'는 내용의 "喘息雜湍瀑(천식잡단폭)"으로 시작해 당나귀와 다를 바 없이 천대 당하는 가마꾼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하며, 관리들의 행차 때 가마를 메야 하는 영하호(嶺下戶) 백성들이 가련하다고 노래한다. 여기서 작가는 사람은 모두 같은 하늘을 부모 삼아 생겨났음을 상기시키며, 신분제의 모순을 부분적으로나마 지적함으로써 시대를 앞서가는 선진의식을 보여준다.
- 제4단락(43~60행)에서는 관리들의 부도덕성과 대비되는 가마꾼들의 고충을 고발하고 있다.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징발하는 관리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면서 가마꾼들의 힘겨운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임금에게 보이고 싶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다.

★ 작품에 대한 평가

이 시는 관리가 타는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영하호(嶺下戶)'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는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을 역설적으로 비판한 풍자적 성격이 강한 작품이다. 당대의

제1단락(1행~14행)	가마꾼의 고통스런 생활
제2단락(15행~24행)	백성들의 고단한 삶
제3단락(25행~42행)	가마꾼과 백성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제4단락(43행~60행)	관리의 부도덕성과 백성들의 고충

사회상을 시의 소재로 택해 신분제도의 부당함을 부각시킨 점에서 실학자 정약용의 진보적인 의식을 엿볼 수 있으며, 형식적인 면에서도 우리말 노래의 특성을 살리고자 노력한 점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 기본 대립을 이루는 존재 및 행위

- 존재 : 관리(임금)↔백성

- 행위 : 가마 타기↔가마 매기

★ 정약용은 '조선시(朝鮮詩)'를 주창한 바 있다. '가마꾼'에 나타난 조선시적인 요소

⇒ 당대의 현실에 대한 충실성

※ 정약용의 조선시(朝鮮詩) 운동

정약용은 시를 짓되 까다로운 규범을 버리고 떠오르는 느낌대로 나타내야만 시적 진실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我是朝鮮人 甘作朝鮮詩(나는 조선사람이어서 조선시를 즐겨 짓는다.)'라고 하면서 정통 한시에서 벗어나 우리말 노래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조선시'란, 중국 전래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소재나 표현이 시대의 요구에 합당한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한시를 말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선시의 특징을 이루는 것은 당대 현실에 대한 충실성이다. 정약용이 당대의 현실을 정면에서 다루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시들에는 모두 풍자적 특질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 실례로 '용산리', '타맥행' 등을 들 수 있다.(출처 : 오세영·서대석 저 문학-천재교육-)

다산의 문학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의 하나는 그의 시가 강한 민족 주체 의식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당시 민족 또는 국가란 개념은 중국과의 관련하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중국의 문자인 한자로 시를 쓰면서 민족 주체 의식을 담는다는 일이 언뜻 모순되는 말인 것 같지만, 다산은 그 나름대로 중화주의의 절대적 권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노력의 결과가 그의 조선시 선언으로 응축된다.

■ 이해와 감상

전체 60행으로 이루어진 장시(長詩)로, 정통 한시의 격식에서 벗어나 시의 소재와 표현에서 독특한 성격을 이루고 있다. 시의 제재는 '가마꾼'으로 징집 당한 백성들이며, 주제는 부당한 사회현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모순된 시대 현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태도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작가는 먼저 관리의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영하호(嶺下戶)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괴로움은 모르는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을 강하게 질타한다. 이런 비판 속에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작자의 진보적인 의식이 숨어 있다. 작가는 이러한 논리를 임금에게까지 적용시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가마 매는 괴로움을 강요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작품 해설 2

1. 감상의 길잡이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나 향리로 돌아와 있을 때(1832년) 지은 작품으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풍자성이 강하게 나타나 모순된 시대 현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태도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2. 핵심정리

▶ 작가 : 정약용(丁若鏞)

▶ 갈래 : 한시, 장시

▶ 연대 : 1832년

▶ 배경 : 조선 후기 영하호(嶺下戶) 마을

▶ 제재 : 가마꾼으로 징집당한 백성들

▶ 성격 : 비판적, 사실적

▶ 구성 : 60행으로 이루어짐

제 1단락 : 가마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 (1~14행)

제 2단락 : 어쩔 수 없이 가마를 메어야 하는 백성들의 딱한 사정 (15~25행)

제 3단락 : 가마꾼들의 천대에 대한 부당성을 고발하고 가마를 메야 하는 영하호 백성들이 가련하다고 노래함(26~42행)

제 4단락 : 백성들을 근거 없이 가마꾼으로 징발하는 관리들의 부도덕성을 고발하면서 가마꾼들의 힘겨운 모습을 그려 임금에게 보이고 싶다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43~끝행)

▶ 주제 : 관리들의 횡포를 비판, 부당한 사회 현실과 관리들의 횡포에 대한 비판과 고발

▶ 출전 :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3. 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약용이 귀양에서 풀려나 향리로 돌아와 있을 때(1832년) 지은 작품으로, 백성들의 삶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와 함께 풍자성이 강하게 나타나 모순된 시대 현실에 대한 정약용의 비판적 태도를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담긴 작품으로 작자는 먼저 관리의 가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영하호(嶺下戶)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후,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메는 괴로움은 모르는 관리들의 도덕적 무감각을 강하게 질타한다. 이런 비판 속에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부당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작자의 진보적인 의식이 숨어 있다. 작자는 이러한 논리를 임금에게까지 적용시킨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금이야말로 백성들에게 가마 메는 괴로움을 강요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강렬한 절규적 어조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모순형용(임의 부재, 죽음의 상황을 더욱 강하게 암시/ 죽은 입을 부르는 처절함)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시적 상황제시, 탄식의 어조(돈호법), 시상의 점층적 고조

⇒ 육신 없는 이름을 부름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 사랑한다는 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아쉬움의 빠져린 후회의 정서 = 서정주 '귀족도'

(신이나 삼어줄 걸 슬픈 사연의 / 울울이 아로새긴 육날 메투리 / 은장도 푸른 날로 이냥 베혀서/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 드릴 걸)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지금도 사랑하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님의 상실에 따른 절망감, 사상을 고백하지 못하는 회한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감정이입의 대상('사슴'을 통해 슬픔의 비장미(悲壯美)로 승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 공간적 배경 : 거리감, 죽은 자와 산자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최대 근접점, 밝음과 어둠의 점점, 화자가 삶과 죽음을 느끼게 해주는 공간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 시적 자아의 슬픔이 세계로 확대된 연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반복 → 강조(간절하고 절실함)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 공감각(청각 → 시각) 공허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 임이 없는 이 세상의 텅빈 것같은 공허감 (임과 나, 죽음과 삶의 거리, 절망적 거리, 소리의 지속적 여운)

⇒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비탄과 허무감이 드러남

★ 3, 4연 : 슬픔을 객관화된 풍경을 노래 , 광막한 공간, 어둠 앞에 선 허무감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임의 상실을 상실로 보지 않겠다는 결의 (님이 죽은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님이 꼭 돌아와야만 한다는 의지의 응결체, 슬픔이 좌절로 화하지 않고 결연하고 과격하기까지 한 의지로 나감)

(돌)→비원을 품은 한의 응결체

⇒ 슬픔의 응집, 안타까움과 미련이 망부석으로 비유됨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시적 자아와 시적 대상 사이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한 땔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

■ 시어 시구 풀이

■ 초혼(招魂) : 민간에서는 사람의 죽음이 곧 혼의 떠남이라고 믿어,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이다. 사람이 죽은 직후에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세 번 부르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 이름에 주인이 없다는 것은 모순된 진술'. 임'의 죽음에 대한 절망. 시적 자아는 자신의 초혼 행위가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고 있지만, '임'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죽음과 삶 사이에 가교를 놓으려고 절망적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 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 : '사랑한다'는 한 마디

■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고백 못한 사랑에 대한 자책과 회한. 월명사의 '제망매가'를 연상케 함.('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가는가')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마음속에 남아 있는 '말 한 마디'가 바로 이 말로 시적 자아의 애절한 심정이 느껴진다.

■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허탈한 마음을 강조하는 배경. '붉은 해'의 붉은 색은 이 시 전체를 지배하는 비감한 정조와 불길하고 절망적인 느낌을 암시하는 색조이다. 아울러 시간적 배경인 저녁 무렵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으로 시적 자아가 생(明界)과 사(幽界)의 경계선에 서 있음을 암시한다.

■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은 죽은 자의 세계와 산 자의 세계가 가장 근접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연의 '하늘과 땅'은 각각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암시하는데, '떨어져 나가 앉은 산'은 바로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이다. 따라서, 시적 자아가 이 산 위에서 초혼을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좀더 가까이 가려는 '나'의 간절한 염원 때문이다.

■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만~너무 넓구나 : '하늘'은 죽음의 세계를, 그리고 '땅'은 삶의 세계를 각각 암시한다. 임을 부르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삶과 죽음의 절대적 거리를 뛰어넘지 못한 채 헛되이 허공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 본문 해설 2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 강렬한 절규적 어조
허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 모순형용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1연 : 육신 없는 이름을 부름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 사랑한다는 말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 : 아쉬움의 빠져린 후회 =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지금도 사랑하는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2연 : 님의 상실에 따른 절망감, 사상을 고백하지 못하는 회한

: 저녁 무렵(밝음과 암흑의 경계,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허무, 석양 무렵 - 슬픔을 고조시키는 시간적 배경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감정이입의 대상

떨어져 나가 앓은 산 위에서 : 공간적 배경-거리감, 죽은자와 산자가 가까이할 수 있는 최대 근접점.

밝음과어둠의 접점, 내가 갈 수 있는 한의 저승의 문턱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3연 : 시적 자아의 슬픔이 세계로 확대된 연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 반복 → 강조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 공감각(청각 → 시각) 공허감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 •임이 없는 이 세상의 텅빈 것같은 공허감 •임과 나, 죽음과 삶의 거리, 절망적 거리 •소리의

지속적 여운

4연 :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비탄과 허무감이 드러남

3, 4연 : 슬픔을 객관화된 풍경을 노래 , 광막한 공간, 어둠 앞에 선 허무감

•임의 상실을 상실로 보지 않겠다는 결의 •님이 죽은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

•님이 꼭 돌아와야만 한다는 의지의 응결체 •슬픔이 좌절로 화하지 않고 결연하고 과격하기까지 한의지로 나감

, 정읍사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응어리진 슬픔 •한의 응축•슬픔의 극한에 달한 심정 •망부적 모티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시적자아와 시적 대상 사이에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할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분리가 불가능한 떨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5연 : 슬픔의 응집, 안타까움과 미련이 망부적으로 비유됨

▣ 작품 해설 1

▣ 핵심 정리

★ '招魂'의 의식

⇒ 사람의 죽음이 곧 혼의 떠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으로서, 사람이 죽은 직후에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초혼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일종의 '부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 시작 동기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 성격 : 애상적. 감상적. 전통적. 제의적, 격정적

■ 어조 : 의지적이며 절규적 어조

■ 고복의식 : 죽은 이의 이름을 부름 - 1, 2, 5연에 걸쳐 세 번 부름

■ 표현 : 자아 내면의 간절한 절규가 애절하게 표출됨

■ 특징

■ 반어법을 통하여 슬픔을 승화시킴

■ 설화적 모티프. 반복과 영탄을 동반한 강렬한 어조

■ 반복 영탄을 동반한 감정의 직설적 표출

■ 전통적 성격(율격 7.5조 3음보의 전통적 민요조 리듬, 정서 -한)

■ 설화의 차용

■ 3연 1, 2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탄형으로 종결됨(시적 화자가 감정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있음을 보여줌)

■ 존재의 無化, 즉 무(無)의 발생을 통해 무의 극복을 이루는 과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줌

■ 제재: 사별한 님

■ 주제 : 그리움 사별한 입에 대한 그리움 입을 잃은 처절한 슬픔

■ 구성

■ 제1연 : 육신없는 이름을 부르는 슬픔

■ 제2연 :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회한

- 임의 상실로 인한 충격이 시적 자아까지 확대

- 산에서 입을 부르는 것은 임의 무덤가에서 임의 혼을 부르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음.

■ 제3~4연 : 광막한 공간, 허무감

- 임의 상실로 인한 시적 자아의 절박한 상황

■ 제5연 : 슬픔의 극한 상황 표출

- '돌' : 슬픔의 극한적 심정이 담겨 있음

★ '초혼'의 시대적 상황과 시의 주제

⇒ '초혼'은 소월의 다른 시 '옛 입을 따라 가다가 꿈깨어 탄식함이라'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부모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갔다가 시어미의 시샘으로 죽은 여인의 이야기인 이 시에서의 여인의 비극적 운명과 서정적 자아의 애상은 '초혼'에서의 임의 상실과 그 입을 부르는 행위로 연결된다.

소월의 시에서 '임'은 국가를 상실한 식민지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임은 잃어버린 조국이며, 입을 부르는 행위는

상실된 조국을 되찾으려는 염원과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역사주의적 비평) 입을 부르는 애절한 통곡의 목소리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소리이며 '선 채로 돌이 되어도' 끝끝내 버릴 수 없는 민족애의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 붉은 해&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공통점

⇒ 배경을 통해 시적 화자의 허탈한 모습이 나타난다. 허무적 배경을 통해 생사의 영원한 갈림길을 제시

◇ 차이점

- 붉은 해⇒ 허무, 석양 무렵 - 슬픔을 고조시키는 시간적 배경
-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저녁 무렵(밝음과 암흑의 경계, 산 자와 죽은 자의 세계를 가르는 경계)

★ 심리적 추이

- 충격과 슬픔 → 허무와 좌절 → 미련과 안타까움
- 님의 죽음 → 나의 죽음 → 인간의 숙명 (죽음을 긍정하고 마침내 허무의 초극을 이루게 됨)

▣ 이해와 감상

이 시에서 초혼은 '고복(梟復)'이라고도 하는 전통적인 장례 절차의 하나이다. 고복 의식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의 한 표현으로 혼을 불러들이는 일종의 '부름의 의식'이다. 반복되는 감탄사와 상대방을 부르는 어조가 이러한 고복 의식을 수용한 것으로, 이는 감정의 격앙 상태를 나타낸다.

1연의 네 시행은 점층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화자의 강렬한 감정의 폭발을 나타내고 있다. 2연은 자신의 격앙된 감정이 다소 가라앉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3연은 배경과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화자의 감정이 다소 정돈되어, 자신의 위치와 행동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감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4연에서 자신의 소리가 남에게 도달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한 다음, 5연에서 다시 입을 부르는 처절한 외침으로 끝나고 있다.

▣ 참고 1: '초혼'의 의미

소월 시의 주류(主流)는 임과의 이별을 여성적인 목소리로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소월 시에서 절창(絶唱)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초혼'은 세상을 떠난 임을 애타게 부르는 남성의 노래이다. '초혼'이라는 제목에 이 시 이해의 단서가 있다. 혼을 부르는 행위는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 다시 소생하게 하려는 간절한 소망에 의한 것이다. 이 시는 이처럼 죽은 사람을 소생시키려는 전통적 고복 의식(梟復儀式)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떠난 임을 부르는 이 시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바탕은 그 시대가 국권을 상실당한, 즉 우리 민족 모두가 상실감에 젖어 있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린 국권, 상실한 땅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 시를 비롯한 몇몇 시들에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 의식과 사회 의식에 구현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 참고 2: 소월 시의 한(恨)과 민요와의 관계

소월 시의 저변에 흐르는 한(恨)은 한민족의 심층에 깔린 정서이다. 이것은 고려속요나 시조에서 살펴볼 수 있거니와, 그 외에도 구전(口傳)하는 민요나 민담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것들이다. 여러 민요를 살펴보면 소월이 그의 시에서 노래한 이별의 한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민요에 내포된 한의 정서는 특히 비기능요(非機能謠)-노동요 같은 어떤 기능성을 띤 노래가 아닌 민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한국 민요의 정서가

소월 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은 여러 평가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 참고 3: 김소월의 시사적(詩史的) 위치

김소월의 시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정서와 민요적 울격에 밀착되어 있다. 표면에 그리움, 슬픔, 한(恨) 등 비극적 사랑의 정감이 있으면서도 이면에는 존재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을 담고 있으며, 그 심층에는 험난한 역사와 현실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고자 하는 초극(超克)의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 참뜻이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소월 시는 서구 편향성의 초기 시단 형성 과정에 있어서 한국적인 정감과 가락의 원형질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민족시, 민중시의 소중한 전범(典範)이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향토성(鄕土性) : 그의 시는 거의가 향토적인 풍물, 자연, 지명을 소재로 삼고 있다.

(2) 민요풍(民謠風) : 오랜 세월 동안 겨레의 정서 생활의 가락이 되어 온 민요조의 리듬 으로 이루어졌다.

(3) 민족 정서(民族 情緒) : 시의 주제와 심상은 민족의 설움과 한(恨)의 정서를 활용, 민족의 보편적 감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작품 해설 2

[개관정리]

◆ 성격 : 전통적, 민요적, 걱정적, 애상적, 여성적

◆ 표현 : 3음보의 민요적 율격

심리적 추이에 따른 시상 전개(충격과 슬픔 → 허무와 좌절 → 미련과 안타까움)

반복과 영탄을 적절히 배합하여 시적 정서를 생생히 표현함

강렬한 어조와 감정의 직접적 표출

◆ '招魂'이라 불리는 이 의식은 사람의 죽음이 곧 혼의 떠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으로서, 사람이 죽은 직후에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초혼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일종의 '부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 고복의식 : 죽은 이의 이름을 부름 - 1, 2, 5연에 걸쳐 세 번 부름

◆ 존재의 無化, 즉 무(無)의 발생을 통해 무의 극복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줌

◆ 특징 · 강렬한 어조 · 감정의 직설적 표출 · 전통적 성격(율격 7·5조, 정서 -한)

◆ 3연 1, 2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탄형으로 종결됨(시적 화자가 감정을 여과 없이 토로하고 있음 보여줌)

◆ 동기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 비극적 세계관의 태도 : 님의 죽음 → 나의 죽음 → 인간의 숙명 (죽음을 긍정하고 마침내 허무의 초극을 이루게 됨)

◆ 심리적 추이 : 충격과 슬픔 → 허무와 좌절 → 미련과 안타까움

◆ 중요 시어 및 시구풀이

* 1연 → 임의 부재(죽음) 상황을 제시함.

영탄적 어조로 '이름이여'를 반복함으로써, 죽음에의 절규가 나타남.

*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었다 → 허무적 배경. '죽음'의 심상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 슬픔을 비장미로 승화시킴.

* 하늘과 땅 사이 → 임과의 절망적인 거리감

*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 망부석 = 영원한 사랑의 상징물

시적 자아의 확고한 결의 표명(임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와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김.)

◆ 주제 ⇒ 죽은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절규

임을 잃은 처절한 슬픔

◆ 제목 : 전통적 상례의 한 절차인 '고복의식'을 가리키는 말

※ 고복의식(梟復儀式)

'招魂'이라 불리는 이 의식은 사람의 죽음이 곧 혼의 떠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으로서, 사람이 죽은 직후에 그 사람이 생시에 입던 저고리를 왼손에 들고 지붕이나 마당에서 북쪽을 향해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초혼은 죽은 사람을 재생시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일종의 '부름의 의식'이라 할 수 있다.

[시상의 흐름(짜임)]

◆ 1연 : 육신없는 이름을 부르는 슬픔

◆ 2연 : 사랑을 고백하지 못한 안타까움

◆ 3연 : 충격적 슬픔의 확산 및 처절한 허무감

◆ 4연 : 이어질 수 없는 절망적 거리감

◆ 5연 : 임을 향한 슬픈 사랑(슬픔의 응집-망부석)

[이해와 감상의 길잡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들여 다시 살려 내려는 의식이 고복의식, 곧 초혼이다. 이 시에 나타난 이별은 뜻밖의 죽음이 가져다 준 운명적 결별이다. 더욱이 가슴 속에 남아 있는 마지막 말 한 마디조차 전하지 못한 이별이기에 시적 자아는 그 이름을 부르다가 삶을 다하는 것이 임을 잃은 자로서의 속죄의식인 셈이다. 그러기에 해가 지도록 산마루에 올라 임을 부른다. 그러나 임의 혼이 올라간 천상의 세계와 현실과는 너무나 넓고도 아득하여 살아 있는 자로서도 도저히 죽은 임과의 만남이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설움은 마지막 연에서 '돌'로 응축된다. 돌(망부석)은 생자와 망자의

양면성으로 현실로는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삶을 영위함으로써 마음만은 죽은 임의 곁에 있다는, 현실 부정과 초월 의지의 형상물이라 여겨진다. 이제 임을 부르다 부르다 시름에 지친 시적 자아는 영원한 '도의 몸짓으로 임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리라.

<초혼>은 소월의 다른 시 <옛 임을 따라 가다가 꿈 깨어 탄식함이라>를 원형으로 하고 있다. 부모의 강요로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갔다가 시어미의 시샘으로 죽은 여인의 이야기인 이 시에서의 여인의 비극적 운명과 서정적 자아의 애상은 <초혼>에서의 임의 상실과 그 임을 부르는 행위로 연결된다. 소월의 시에서 "임"은 국가를 상실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임은 잃어 버린 조국이며, 임을 부르는 행위는 상실된 조국을 찾으려는 염원과 이상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임을 부르는 애절한 통곡의 목소리는 일제에 대한 항거의 소리이며, '선 채로 돌이 되어도' 끝끝내 버릴 수 없는 민족애의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볼 거리]

1. 우리의 전통적 장례 의식의 한 절차인 초혼(招魂) 또는 고복의식(梟復儀式)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시오.
→ 전통적인 장례의 한 절차인 초혼(고복의식)은, 죽음이 혼의 떠남이라는 믿음에 근거하여, 이미 떠난 혼을 불러들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 내 보려는 간절한 소망이 의례화된 것이다. 임종 직후에 북쪽을 향해서 망자(亡者)의 이름을 세 번 부르는 행위가 중심을 이룬다.
2. 제3연의 '붉은 해는 서산 마루에 걸리었다 /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는 구절이 내포하는 시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님을 상실한 주체는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이다. 따라서 이 구절은 님 상실의 충격이 '나'를 거쳐 '세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시적 자아와 님(세계)과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을 찾아 쓰시오.
→ 제4연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4. 이 시의 마지막 연에 나타난 시적 자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자아와 세계와의 단절이 비록 너무 극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아배요 아배요

내 눈이 티눈인걸→ 문맹인 것을

아배도 알지려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궁핍한 삶

축문이 당한기요.

→ 표면적으로 격에 맞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의 한이 느껴짐

눌러 눌러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묵고 가이소.

→ 제사상에 차린 음식(만술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

윤사월 보릿고개

아배도 알지려요.

간고등어 한 손이믄

아배 소원 풀어들이련만

→ 궁핍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제사상에 간 고등어 하나 올리지 못 하는 아들의 죄송한 마음과 한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묵고 가이소

→ 만술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한

여보게 만술 아버지

니 정성이 엄첩다.

→ 시적화자가 바뀌어 만술 아버지의 지극한 정성과 애뜻한 사랑에 대하여 망령이 감복함 위로하는 말 - 니 정성이 기특하니 아버지도 그 마음에 감동 받을 것이다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도 응감(應感)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 죽은 아버지 마음에 응하여 느끼는 것(감동받은)

니 정성 느껴 세상에 는 굶은 밤이슬이 온다.

→ 죽은 아버지의 눈물(만술 아버지의 정성에 감복)

⇒ 만술 아비에 대한 위로

▣ 본문 해설 2

아배요 아배요 [아버지의 경상도 사투리 - 애뜻한 토속적 정감 부각]

내 눈이 티눈[문맹-축문을 못 쓰는 처지]인 걸

아배도 알지리요. [알지요]

등잔불도 없는 제사상에 [가난한 가정 형편]

축문[제사 때 읽는 추모글]이 당한기요. [당키나 한가요, 당치 않아요]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단어의 반복- 정성과 애뜻함 강조]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묵고 가이소. [가난한 살림- 죽은 아버지에 대한 정성]

윤사월 보릿고개 [윤사월 보릿고개 춘궁기, 힘겨운 시기, 쌀은 떨어지고 보리는 수확되기 이전인 힘든 시기]

아배도 알지리요.

간고등어[선친이 좋아하던 음식] 한 손[두 마리]이믄

아배 소원 풀어들이러만

저승길 배고플라요.

소금에 밥이나 많이 묵고 묵고 가이소. [죽은 아버지에 대한 정성]

▶ 1연 : 아버지에 대한 가난한 아들의 축문-아들의 독백

여보게 만술아비

니 정성이 엄청나다 [엄청나다- 정성에 대한 아버지의 감탄]

이승 저승 다 다녀도

인정보다 귀한 것 있을락꼬,

망령(亡靈)[죽은 아버지의 혼]도 감응(感應)하여, [정성에 신도 감동하여] 되돌아가는 저승길에

니 정서 느껴 느껴[중의적, 자식의 정성을 느낌/ 정성이 신령에게 통하여 흐느낌] 세상에는 굶은 밤이슬[죽은 아버지의 눈물]이 온다.

▶ 2연 : 하늘마저 감동한 정성 - 제 3자의 평가

▣ 작품 해설 1

■ 성격 : 서정적, 토속적, 민속적

■ 표현

• 연에 따라 시적 화자를 다르게 설정

(앞연-만술 아비가 아버지 제사상에서 아버지에게 하는 말

뒷연-만술 아비의 아버지가 만술 아비의 정성과 사랑에 감복하여
대답하는 말)

• 사투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한을 드러내고
아버지에 대한 끈끈한 정을 보여준다

• 대화체형식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남

• 동일한 어휘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이 애뜻함을 강조

• 구어체의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하고 정감있는 느낌을 살림

• 축약적인 표현을 통해 하층민의 궁핍상을 사실적으로 그림

■ 어조 : 대화체의 어조

■ 제재 : 아버지 제사

■ 주제

• 죽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정성과 애뜻한 사랑

• 이승과 저승을 잇는 인정의 고귀함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현세적 삶을 넘어서서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오가는 인정의 교감을 다루었다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적 속신(俗信)에 바탕을 둔 인정의 세계는 ‘한(恨)’의 정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시의 주제는 시행에 명확히 제시된 대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는 인정(人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각 행을 나누어 그 내용을 간추린다면, 1-2행에서는 시적 화자의 문맹(文盲)을, 3-4행에서는 제사상에 촛불조차 없음을, 5행에서는 제문(祭文)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은 6-7행의 제사상에 차린 음식에서, 8-11행까지 아무것도 없다고 노래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12-13행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사랑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만술 아비는 아주 가난하여 제사상에 그저 소금과 밥 한 그릇만을 올려놓았을 뿐이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난 그 정성에 망령(亡靈)은 감복(感服)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작품 해설 2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율격 : 내재율

◆ 성격 : 토속적, 민속적, 향토적

◆ 표현 및 특징

① 사투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한(恨)을 드러내고 아버지에 대한 끈끈한 정(情)을 보여 준다.

② 1연과 2연의 화자가 다른 인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명의 화자를 내세워 대화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경상도 방언의 사용으로 토속적 정감과 인물의 소박한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 어조 : 대화조의 어조 / 아버지와 아들 간의 정감어린 어조

◆ 제재 : 아버지의 제사, 축문

◆ 주제 : 아버지에 대한 사랑

◆ 출전 : <경상도의 가랑잎>(1968)

시의 짜임

◆ 1연 : 죽은 아버지의 제사상을 차리는 가난한 만술 아비의 정성

◆ 2연 : 만술 아비의 정성에 대한 죽은 아버지의 감응

관련작품

◆ 삶과 죽음의 의미

고은 '문의 마을에 가서' / 황동규 '풍장' / 이형기 '풍장' / 천상병 '귀천' / 박두진 '묘지송' / 김남조 '목숨' / 신동집 '목숨' / 조지훈 '꿈이야기' / 박재삼 '봄 바다에서' / 김수영 '병풍'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연민의 정을 노래한 시

김종길 성탄제 / 고은 성묘 / 박재삼 '추억에서' / 기형도 '엄마 걱정' / 이성복 '또 비가 오면' / 이용악 '달있는 제사', '풀벌레 소리 가득차 있었다' / 강우식 '어머니의 물감상자' / 정한모 어머니 / 정인보 자모사 / 김상훈 아버지의 창 앞에서 / 나희덕 '못 위의 잠' / 박목월 '만술 아비의 축문'

◆육친과의 사별의 아픔

송수권 '산문에 기대어' / 기형도 '가을무덤-제망매가' / 박목월 '하관' '후일음' / 김광균 '은수저' / 정지용 '유리창' / 김현승 '눈물' / 이성교 '밤비1' / 이성복 또 비가 오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 이용악 '달 있는 제사' '풀벌레 소리 가득차 있었다'

알아 두기

◆'만술 아비의 축문'의 시상 전개

◆ 1연 - 만술 아비의 축문 : 제사상에 밥 한 그릇만 올려 놓는 것에 대한 회한

◆ 2연 - 망령의 감응 : 가난한 가운데 제사상을 마련한 만술 아비의 정성에 감동

이 시는 경상도 방언의 어조를 도입하여 두 사람의 대화를 엮어 나가고 있는데, 1연은 가난하게 살다 죽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가난하여 제사상에 밥과 소금밖에 올려놓지 못하는 현실에 슬퍼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2연에서는 아들의 지극한 정성을 감지한 망자의 혼령이 아들에게 말한 내용이다. 아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아버지의 망령도 눈물을

비치고, 세상의 망령들도 감응하여 굶은 밤이슬이 맺힌다고 했다. 이 밤이슬은 소금과 밥밖에 올려놓지 못한 만술 아버지의 슬픔이자, 그 정성에 감동한 아버지의 눈물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소금에 밥이나마 많이 묵고 가이소'에서 알 수 있는 의미를 두 가지 쓰시오.

☞ 아들의 정성 / 가난한 형편

2. 이 시에서 아들의 정성에 아버지가 감동하여 흘린 눈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시어를 찾아 쓰시오.

☞ 밤이슬

★ 주의! 이 작품은 교재에 따라 2연의 화자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주로 오래된 교재에서는 2연의 화자를 만술 아버지의 아버지로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의 교재들은 2연의 화자를 제 3자로 설명하고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떨어지는 오동잎'(자연 현상)	⇒('A는 B다' 형식의 은유적 구조에 의한 의인화)	'님의 발자취'(근원)
∴ 모든 현상들의 뒤에 있는 근본 원인 →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인화한 시적 표현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지리한 장마	검은 구름	푸른하늘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 보내는 시간	세속적 번뇌와 고통	오묘한 진리와 청정한 님의 모습
깨달음의 순간에서 님(절대자)의 신비한 모습을 인지(認知)하고 있다.		

꽃도 잎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
김**입니까

<후각을 통해 오묘한 님의 향기를 느끼고 있다. 님의 입김은 너무나 향기롭기에 시간적 확대('옛 탑')와 공간적 확대('나무', '이끼')를 가능하게 하며 가깝고도 절실함을 느끼게 한다.>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불도의 광대 무변(廣大無邊)한 진리에 대한 감동과 인간의 제한된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밝은 대낮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 님과의 이별의 순간

저녁

끝없는 하늘	떨어지는 해	저녁 놀
광대 무변의 공(空)의 세계	아름다움으로 단장되었지만 동시에 공허감을 느끼게 하여 경건함과 숙 연함을 나타낸다.	절대자의 '시'이며 더없이 아름답고 정화 된 종교적, 예술적 경지를 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천지에 충만함을 보이고 있다. (비극적 황홀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행) · 이육사의 절정(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 비극적 황홀감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 지키는 약 한 **등불**입니까

<p>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p>	<p>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p>
<p>어두운 세상에서 나서 자신을 태워 불을 밝혀서 세상을 부정해 버림으로써 진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 불태움으로 님이 사라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려 한다.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 나면 재가 되어 버리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부정, 기름이 되게 함으로써 끊임 없이 등불을 켤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을 통해 긍정에 이르고 이를 다시 부정함으로써 더 큰 긍정에의 길을 준비하는 불교적 변증법'의 논리가 깔려 있다.</p>	<p>계속 반복되는 '누구'는 서정적 자아가 그리워하는, 한용운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님'이다. '밤'은 이러한 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간, 모든 아름답고 참된 것들이 사라진 괴로운 시대에 해당한다. 즉 님이 사라진 시련의 시대, 정의의 원리가 가려진 식민지의 억압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님을 향한 사랑, 그리움의 등불은 약하나마 계속 켜 채 지키고 있겠다는 것이다.</p>
<p>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무(無)와 유(有)가 동일함을 보이고 있다. '약한 등불'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여 님이 부재(不在)하는 암울한 현실인 '밤'을 지키려는 희생 정신과 구도 정신을 엿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밤으로 상징되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정적 자아의 의지 •직설적 화법 (제 5행까지의 심상들을 종합하여 결론) → 님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 •작가의 세계관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부분 	

■ 비유적 대응관계

오동잎/푸른 하늘/향기		발자취/얼굴/입김
시내/저녁놀	⇔	노래/시
재/가슴		기름/등불

■ 절대자의 모습 -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 본문 해설 2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垂直)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모습** ∴ 모든 현상들의 뒤에 있는 근본 원인

→ 모든 가치의 원천이 되는 것을 의인화한 시적 표현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 불교 -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 보내는 시간 : 불교- 번뇌

꽃도 잎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塔) 위의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 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님은 나에게 점점 가깝게 느껴짐

밝은 대낮

이육사의 절정(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갯가 보다) - 비극적 황홀감

: 비극적 황홀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행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이 없는 바다를 밟고 옥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詩)**입니까 : **님과의 이별의 순간**

저녁

: 밤으로 상징되는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서정적 자아의 의지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어둠의 시대에 '나'는 자신을 태워서 어둠과 싸우며, '님'이 사라진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한다. 그 불태움의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칠 줄 모르는 지속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 불교의 윤회 사상

·작가의 세계관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부분

- : ·어둠의 시간
- :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진 괴로운 시대
- : ·식민지적 억압시대

→ 이 어둠의 시대에 자기 자신을 태워 어둠과 싸우며 '누구'가 사라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려 함

직설적 화법 (제 5행까지의 심상들을 종합하여 결언하고 있음) → 님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

▣ 작품 해설 1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산문시
- * 성격 : 명상적, 신비적, 관조적, 관념적, 구도적, 역동적, 역설적
- * 사상 : 불교적 초월 사상. 윤회 사상
- * 어조 :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 * 표현
 - 1) 여성편향의 고백적 연가풍(戀歌風)의 호소와 경어체로 경건하고 겸허한 심정을 격조 높게 표현.
 - 2) 상징법, 은유법, 설의법, 반복법을 구사.
 - 3)의문형 - 자연에 대한 탐구 의지,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통한 님의 존재 제시
- * 특징
 - ① 경어체 사용과 어구의 반복
 - ② 자연적 심상(현상)의 의인화
 - ③ 상상력의 비약을 통한 의미의 심화
 - ④ 섬세하고도 순수한 우리말을 구슬처럼 엮어서, 선(禪)의 세계를 바탕으로한 구도적(求道的) 염원을 나타냄.
- * 구성 : 1-4행/ 낮 → 5행/ 저녁 → 6행/ 밤
 - 1행 떨어지는 오동잎 …발자취 …… 없음[無爲]으로 보이는 현상계의 움직임[有爲]
 - 2행 푸른 하늘 ……얼굴 …… 권태와 공포의 순간순간 드러나는 진리의 표상
 - 3행 알 수 없는 향기 …입김 ……오묘하고 고풍(古風)스런 진리의 표상
 - 4행 흐르는 작은 시내 …노래 ……신비한 연원(淵源)의 표상
 - 5행 저녁 놀 ……시(이별의 순간) …… 온 누리에 충만한 인연의 표상
 - 6.7행 타는 나의 가슴 …약한 등불 ……불멸의 사모(思慕), 고독한 진리의 빛
- ①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통한 님의 존재(모습) 제시(1-5행)
- ② 님에 대한 끊임없는 정진(또는, 절대자를 향한 신앙의 고백)(6-7행)
- * 핵심어 : 누구
- * 제재 : 신비한 자연.(자연 현상)
- * 주제 : 절대자를 향한 구도적(求道的) 염원.(님에 대한 동경과 구도 정신)

▣ key point

1. '어떤 비극적인 황홀함'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시행을 찾아 쓰라.
 - ▶ 연꽃
 2. 이 시에는 불교적 명상이 드러나 있다. ㉠'지리한 장마'와 ㉡'검은 구름'이 상징하는 의미를 각각 쓰라.
 - ▶ ㉠ '지리한 장마'- 깨닫지 못하는 중생이 보내는 시간 ㉡ '검은 구름'- 번뇌
 3.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는 무슨 뜻인가? 100자 정도로 설명해 보아라.
 - ▶ 어둠의 시대에 '나'는 자신을 태워서 어둠과 싸워서 '님'이 사라진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자 한다. 그 불태움의 행위는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칠 줄 모르는 지속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4. 각 행의 심상을 이루는 기본요소를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됨
 - ▶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시내, 저녁 놀
- ☆윗시의 의인법이 가져오는 효과를 묻는 문제가 출제됨
- 암시된 대상이 인격적 존재임을 알게 한다.

5.공간적 깊이와 시간적 깊이를 함께 느끼게 하는 행, 어떤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행을 찾아 쓰는 문제가 출제됨→마지막 행

▣ 작품 해설 2

- ◆ 어조 :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 ◆ 표현 : 상징법, 반복법, 은유법
- ◆ 특징 ①경어체 사용과 어구의 반복 ②자연적 심상의 의인화 ③상상력의 비약으로 의미의 심화
- ◆ 주제 · 님에 대한 동경과 구도 정신 · 절대자에 대한 신비감
- ◆ 절대자의 모습 - 오동잎, 푸른 하늘, 향기, 작은 시내, 저녁놀
- ◆ 의문형 - 자연에 대한 탐구 의지, 신비하고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통한 님의 존재 제시
- ◆ 오동잎/푸른 하늘/향기 - 발자취/얼굴/입김

시내/저녁놀 - 노래/시

재/가슴 - 기름/등불

비유적 대응관계 형성

- ◆ 성격 : 구도적, 역설적, 명상적, 관념적, 신비적
- ◆ 표현 : 산문적 리듬과 경어체의 사용(유원하고 심오한 동경을 표현하기에 적절)
각운적 요소(~입니까?), 설의적 표현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A는 누구의 B입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낮→저녁→밤), 비유적 대응관계 형성

◆ 중요시어 및 시구풀이

- * 누구 → 님, 절대자.
- * 1행 → 신비로운 자연을 통해 임의 의지를 드러냄.
'수직의 파문'은 심안으로만 볼 수 있는 파장으로, 시인의 직관력이 돋보이는 표현.
- * 2행 → 깨달음의 순간에 임의 신비한 모습을 인식함.
'검은구름(세속적 번뇌와 고통)'을 벗어나 '푸른하늘(님의 오묘한 진리와 깨달음)'을 만남.
- * 3행 → 님의 향기를 느낌
님의 입김은 너무나 향기로워, 시간적 확대(옛 탑)와 공간적 확대(나무, 이끼)를 가능하게 함
- * 4행 → 불도의 광대무변한 진리에 대한 감동과 인간의 한정된 세계 속으로 들어온 님의 모습.
- * 5행 → 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온 천지에 충만함을 노래함.
저녁놀은 절대자의 시이며, 더없이 아름답고 정확된 종교적·예술적 경지를 암시.
- * 6행 → 화자의 끝없는 구도정신과 신앙적 고백이 나타남.

* 타고 남은 재가 기름이 됩니다 → 윤회사상. 부정을 통해 긍정에 이르는 불교적 변증법

소멸해 버린 어떤 것의 소생에 대한 신념

타고남은 재 : 비생명, 무(無), 소멸해 버린 것, 상실한 주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형이상학적 존재

기름 : 생명의 상태, 유(有)

*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 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잃지 않고 밤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밤 : 님이 없는 상황의 어두움, 주권상실의 현실, 절대자가 불신받는 현실

약한 등불 : 자신을 무화(無化)시켜서 님을 존재하게 하는 거룩한 존재

경건하고 절대적인 신앙의 등불

조국의 재생을 기다리는 새벽을 위해서 타는 등불

[이해와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은 문장 구조가 같은 질문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질문은 한결같이 "A는 누구의 B입니까?"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일견 단순해 보이는 이 질문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세밀한 관찰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는 '나'의 모습이라곤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오직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자일 뿐이다. 이 자연 현상이 '님'의 현신임은 말할 나위 없다. '나'는 자연 현상 속에 드러나 보이는 '님'의 모습을 통해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삼는다. 이렇게 의문형으로 끝나는 몇 개의 행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한 행에서는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라는 진술이다. 이것은 이 작품 전체에서 유일하게 의문형으로 끝맺지 않은 문장일 뿐만 아니라 이 시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누룩 한 덩이가
술을 빚는 발효제, 민중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발효하는, 썩는
() 말을 거는 형식으로 친밀감 표현
<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
발효 전의 누룩의 모습
< >무력감에 빠진 민중의 모습
알맞은 바람 만나
누룩을 일깨우는 긍정적인 소재
살며시 더운 가슴,
발효하는 누룩, 민중의 연대감, 열망을 지닌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새로운 역사와 민중에 대한 사랑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누룩이 끓는 모습
민중의 현실적 고난으로 인한 눈물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민중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연대감)
엄동철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혹한 속의 별 >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는 민중의 상징
< > 연대를 통해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민중에 대한 기대감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시련 고통속에서도
의인법으로 정서를 드러냄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누룩 끓는 소리

누룩이 겪는 고통과 시련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고통에 대한 인내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누룩의 발효 과정
< >새로운 시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민중의 모습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누룩의 희생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발효하기 위한 조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고난을 감내하던 민중의 모습(연대감 유대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민중의 죽음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옴(역설법)

누룩의 발효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 확산

누룩 냄새의 확산

▣ 본문 해설 2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누룩을 이용하여 술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를 민중의 연대와 사랑,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들의 저항과 실천에 연결시키고 있다. 누룩은 그 자체로 나약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꺾박받는 존재인 민초를 가리킨다. 민초는 고통과 꺾박 속에서 누룩처럼 썩어가지만, 절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각자 나름대로의 응어리진 기다림을 추구한다. 그러다가 이들이 좋은 기회를 만나 서로 뭉치고 연대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은, 스스로 썩고 희생하며 서로 뭉쳐 싸워나가는 민중에 의해 실현된다는 시인의 믿음이 표현되어 있다.

누룩이 기본적으로 썩어서 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민중들의 아픔과 시련이 오히려 그들을 성장시키며 결국 새로운 역사의 진보를 만들게 한다는 사실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현재의 시련과 고난은 보다 나은 시대를 위한 통과의례인 셈이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썩는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민중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김수영의 <풀>에서 바람은 민중을 억압하는 존재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누룩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소재로 작용함.

살며시 더운 ㉔가슴,

현실에 대한 분노와 민중에 대한 사랑,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을 지닌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새로운 역사와 민중에 대한 사랑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표면적으로는 누룩이 끓는 모습임. 함축적으로는 민초의 현실적 고난으로 인한 눈물

지 혼자서 찾는 ㉕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길’은 민중이 바라는 새로운 시대로 가는 길.(방향)/결국 민초

엄동철한 ㉖칼별은 알고 있나니.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알려 줌. ‘칼별’이므로 시련의 현실에 대한 저항의 길을 상징함.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시련, 고통을 통한 희망)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누룩 끓는 소리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며 고통을 인내하는 민중의 모습)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고난을 감내하던 민중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저항하는 모습을 형상화함)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표면적으로는 술이 되어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중의 모습을 상징)

[A]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민중의 희생과 연대에 의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저항의 모습을 형상화함. 또한 민중에 대한 기대감 나타남.

▣ 작품 해설 1

-주제 : 자기 희생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민중의 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성격 : 저항적, 유추적, 선동적, 예지적

-특징 :

자연물의 속성을 이용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누룩을 의인화함)

누룩 : 발효(알맞은 바람/물을 통해 썩게 됨, 죽음/자기 희생)⇒술(다른 사람을 덩달아 끓게 하고, 기쁘게하고, 춤추게 함)

강한 물음을 통해 현실 각성의 촉구, 민중의 희생적 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강조함. ('-느냐'의 반복적 의문형 표현)

이미지 대립 :

-구성

1연 : 누룩의 사랑에 대한 인식

2연 : 고통을 이겨 내려는 강인한 의지

3, 4연 : 미래를 위한 누룩의 희생의지

5연 : 누룩에 대한 기대와 신뢰

■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술을 빚는 데 사용하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해답을 누룩의 속성에서 찾는다. 즉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맞은 바람'을 만나면 사랑을 내어 보이는 누룩은 고통과 찢박을 이겨 내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인의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이해와 감상 2

이 작품은 고통과 찢박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민중의 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누룩처럼, 민중은 '엄동설한'이라는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서는 무력함과 부대낌 속에서 울고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듯, 오가는 사람들 만나듯,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듯' 뜨거운 사랑에 의한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쁨의 시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성부 시인은 <벼>에서처럼 연대의식에 의한 투쟁을 강조하고 있으며, 민중에 대한 긍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어머니, : 함축적 의미 유사

저 재를 넘어가는 저녁 해의 옅은 광선들이 섭섭해합니다. / 어머니, 아직 촛불을 켜지 말으셔
요 / 그리고 나의 작은 명상의 새새끼들이 / 지금도 저 푸른 하늘에서 날고 있지 않습니까? (신
석정 : 아직 촛불을 켤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 자연 친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목가적 공간, 이상향

깊은 삼림대(森林帶)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 잊지 말아야 하는 것 : 함께 가는 것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 상징성 - 평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언저리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로이 풀 뜯고,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 오는 : 그 먼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이 암시됨.
현실의 애상 투영, 이국적 정서 표출, 청각적 심상, 비애미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 상징 - 순수(순결)

/한가롭고 순수한 삶

어머니,

모성으로서의 대지, 현실적 갈등을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 평화 안식, 구원의 대상, 빼앗긴 조국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 그 먼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슬픔이 암시됨

핑 소리로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능금을 더욱 똑 따지 않으렵니까? : 상징 - 풍요

/풍요로운 삶

▣ 시대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주제 의식에 대한 상반된 입장

▣ 시적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 : 아무런 갈등도 싸움도 없는 평화 의 세계

▣ 배경 사상 : 노장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현실적인 이상향을 설정한 현실 도피적인 시 (일제 강점기의 저항적 시에 견준다면 더욱 그렇다) •현실이 아닌 다른 '먼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시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소극적 저항이다.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서정적 자아의 낭만적인 동경이, 문명화되어 가는 현실 세계에 대한 거부 의지이며, 시적 화자가 꿈꾸는 세계는 일제 강점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므로 조국의 미래 즉 광복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시어 : 비둘기, 어린 양

★ 출제요소

1.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됨→일제 치하의 암울한 시대

2.㉠(㉡새빨간 능금) 의미하는 바에 대해 출제됨→자유에의 해방 의지

▣ 본문 해설 2

슬픈 목가(牧歌)속에 산 사색의 일생
흠에 살다 흠에 묻힌 고고(孤高)한 서정(抒情)

어머니,

평화 안식의 대상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순수한 자연, 평화로운 이상향(아래에서 구체화)

시적 허용, 반복>구조적 통일성 경어체->간절하고 부드러운 어조

깊은 **산림 지대**를 끼고 돌면

현실과 이상세계의 경계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평화로운 색채대조(청과 백)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아름다움(시각적, 계절감)

멀리 노루 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자유로움, 현실과 대조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순수한 곳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상향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의 동경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산비탈 **넌즈시** 타고 내려오면

가만히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풀 뜯고

전원적 목가적

길 솟는 옥수수밭에 해는 저물어저물어

먼 바다 물 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낭만적, 이국적, 애상적(이상향에 이르지 못하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세요.

그 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니다.

순결, 순수, 사랑의 상징

순결한 삶의 동경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오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출출히 비가 내리면,

차분하고 쓸쓸한 분위기

평소라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다.

서리 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가을 까마귀, 산국화(계절감)

노오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현장감 구체성

나와 함께 그 ①**새빨간** **능금**을 ②**또옥뚝** 따지 않으렵니까?

①풍요로운 결실, 진정한 자유와 해방

②현장감 구체성

풍요로운 삶의 동경

■ 작품 해설 1

- * 시적 화자의 태도 : 이상적인 세계를 동경한다.
- * 성격 : 전원적, 목가적, 낭만적, 상징적
- * 어조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한 권유
② 나직하고 속삭이는 듯한 경어체의 어조.(호소하는 듯한 어조) ③ 여성적
- * 표현적 특징
 - 간절한 소망형 어조
 - 부분적으로 4음보의 율격
 - 동일한 통사적 구조의 반복적 사용(시행 반복의 형식)
- * 제재 : 이상향에의 귀의
- * 주제 : 이상향에의 동경, 이상향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동경

■ 이해와 감상

현실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할 때 사람들을 때때로 실재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를 마음 속에 그린다. 이 작품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먼 나라' 또한 그와 같은 이상향의 하나이다.

작품은 제1연~3연, 제4연~6연, 제7연~9연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각 부분의 첫째 연은 한결같이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로 되어 있고, 가운데 연은 그 이상향의 모습을, 마지막 연은 그 나라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누릴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무런 갈등도 싸움도 없는 평화의 세계이다. 이 점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한 차례 살펴보면 명백하다. 거기에는 고요한 호수, 흰 물새, 들장미, 노루 새끼, 흰 염소, 옥수수, 바다 물 소리, 어린 양, 꿩, 서리 까마귀, 산국화, 은행잎, 과수원, 꿀벌, 새빨간 능금 등이 어울려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들은 모두 현실의 시끄러움과 어수선함을 벗어난 세계의 사물들이다. 둘째 연에 보이듯이 그는 '깊은 산림 지대'를 돌아 놓인 '고요한 호수'를 이 세계의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이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현실의 갈등을 벗어난 근원적 평화의 상징이다. 그가 그리는 이상향에 어머니만을 부르는 것은 곧 그가 사람의 세계를 싫어할 뿐 아니라 일체의 인간적 관계로부터도 떠나고 싶어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살펴본 여러 자연물들은 혐오스런 인간의 문명에 대립하는 자연 세계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에 어울리게 작품 전체의 어조는 간절한 호소의 나지막함을 가지고 있다. 그가 노래한 이상향은 현실의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이기에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끝내 동경으로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드러운 말씨에 담긴 소망의 목가적 분위기는 어떤 감미로움을 느끼게 한다.

- 김흥규 : [한국의 현대시] -

■ 작품 해설 2

<요점 정리>

성격 : 전원적, 목가적, 낭만적,

어조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한 권유

② 나직하고 속삭이는 듯한 경어체의 어조.(호소하는 듯한 어조)

특징 : 형식- 동일 시행의 반복, 노장(老莊) 사상, 도연명의 전원애 연상

구성 : ①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제1-4연)

② 순수한 자연 세계에 대한 동경(제5-7연)

③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제8-10연)

제재 : 이상향에의 귀의

주제 : 이상향에의 동경

<이해와 감상>

이 시는 혹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피안(彼岸)의 세계, 즉 이상향을 꿈꾸는 시인의 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시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는 시인의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이상의 세계이다. 그 곳은 '비둘기가 날고', '어린 양'이 살며 '능금'이 수확되는 평화와 안식의 공간이다.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상향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는 것이다. 이 때 '그 먼 나라'에 대한 그리움은 그 나라를 잃어버린 데 대한 상실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심각할 때 사람들을 때때로 실재하지 않는 이상의 세계를 마음 속에 그린다. 이 작품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먼 나라' 또한 그와 같은 이상향의 하나이다.

작품은 제1연~4연, 제5연~7연, 제8연~10연의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뉜다. 각 부분의 첫째 연은 한결같이 '어머니 /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로 되어 있고, 가운데 연은 그 이상향의 모습을, 마지막 연은 그 나라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누릴 평화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아무런 갈등도 싸움도 없는 평화의 세계이다. 이 점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사물들을 한 차례 살펴보면 명백하다. 거기에는 고요한 호수, 흰 물새, 들장미, 노루 새끼, 흰 염소, 옥수수, 바다 물 소리, 어린 양, 꿩, 서리 까마귀, 산국화, 은행잎, 과수원, 꿀벌, 새빨간 능금 등이 어울려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이들은 모두 현실의 시끄러움과 어수선함을 벗어난 세계의 사물들이다. 둘째 연에 보이듯이 그는 '깊은 산림 지대'를 돌아 놓인 '고요한 호수'를 이 세계의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그것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상상의 세계이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현실의 갈등을 벗어난 근원적 평화의 상징이다. 그가 그리는 이상향에 어머니만을 부르는 것은 곧 그가 사람의 세계를 싫어할 뿐 아니라 일체의 인간적 관계로부터도 떠나고 싶어 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 살펴본 여러 자연물들은 혐오스런 인간의 문명에 대립하는 자연 세계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에 어울리게 작품 전체의 어조는 간절한 호소의 나지막함을 가지고 있다. 그가 노래한 이상향은 현실의 어느 곳에서도 없는 것이기에 이 작품이 지향하는 바는 끝내 동경으로 그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부드러운 말씨에 담긴 소망의 목가적 분위기는 어떤 감미로움을 느끼게 한다. [해설: 김흥규]

<참고 자료>

'어머니'의 상징성 이 시에서 '어머니'는 현실의 갈등을 벗어난 근원적인 평화를 상징한다. 이는 군국주의 파시즘의 파괴적이고 약탈적인 지배가 횡행하는 193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킬 때 그 반대 상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폭력이 남성적인 데 대해 평화와 안식을 뜻하는 모성인 것이다. 또한 어머니는 '그 먼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시적 자아와 함께 '그 먼 나라'로 갈 수 있는 절대적인 존재이다. '나=현실'이라면 '어머니'는 곧 구원을 상징한다.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 상황의 꽃(극악한 상황이 꽃으로 환치된 역설), 전쟁은 멈추었지만, 더욱 깊어진 증오심으로 대치되어 있는 분단의 모습 상징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전쟁 상징 : 남북이 서로 대치해서 원수처럼 적대시하는 자세,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닌 분단 상황을 비아냥의 어조로 이야기함
쓰는가. : 의문형-우리의 각성 촉구

남북 분단의 어두운 현실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高句麗) 같은 정신**도
: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정신 : 중국 대륙을 차지하려던 기백
신라(新羅)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우리
: 위급을 당했을 때 고구려 또는 백제에 도움을 청했던 화해 정신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意味)는 여기에 있었던가. : 우리 조국, 국토는 하나. 팽팽한 긴장으로 대립하는 남과 북의 현실, 통일의 당위성

민족의 적이 되어 대치한 불안한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廣場).
: 6·25 남북의 대치 상태가 언제 전쟁으로 터질 지 몰라 불안한 현실 상황<조국>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休息)인가, 야위어가는 이야기뿐인가.
민족의 정기<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단절된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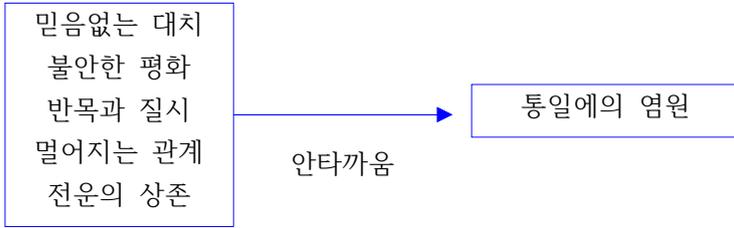
나무 하나 서 있지 못할 광장(분단의 의미 재조명) 2,3,4연
- 전쟁이나 애국시가 보여주는 감정의 발산이 억제됨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 같은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거**
: 전쟁 :전운
우살이를 또 한 번 겪어야 하는가. 아무런 죄(罪)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 대치의 현실 상황의 꽃
자리에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뿐인가.

언제 한번은 불고야 말 징그러운 바람(전쟁)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火山)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姿勢)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남북 분단의 어두운 현실



휴전선

▣ 본문 해설 2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남북 대립의 현실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전쟁 암시 예상하면서도 서로 대치하는 자세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전쟁에 시달려야하는 우리 겨레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지켜가려는 존재 즉 우리 겨레

저어 서로 응시하는 쌀쌀한 풍경. 아름다운 풍토는 이미 고구려 같은

남북이 서로 대립하는 현실 강산

정신도 신라 같은 이야기도 없는가.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

고구려와 신라 때와는 달리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런 잘못 조국은 하나인데 땅은…,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

나인데… 우리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휴전선

모든 유혈(流血)은 꿈같이 가고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6.25는 일단 끝났지만 나무 한 그루조차 언제 전쟁이 터질지 불안해 함

못할 광장. 아직도 정맥은 끊어진 채 휴식인가 야위어 가는 이야기

뿐인가. 핏줄 휴전 계속되어 가는 분단의 상황

6.25로 인한 민족사의 쇠퇴.몰락 암시

언제 한 번은 불고야 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너도 이

전쟁에 대한 공포

미 아는 모진 겨우살이를 또 한 번 겪으라는가. 아무런 죄도 없이 피 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
서 얼마를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겨레 증오와 불신으로 마주선 자리

이뿐인가.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 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수미 상응→ 분단된 조국의 운명을 강조함

■ 작품 해설 1

-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 율격 : 내재율(산문적 리듬)
- * 성격 : 상징적
- * 어조 : 분단 극복을 열망하는 목소리
- * 제재 : 휴전선
- * 주제 : •동존 상잔의 전쟁 후 분단으로 인해 갈등하는 민족의 현실
 - 분단의 현실과 우리의 자세(분단의 현실 인식을 통해 우리의 각성 촉구)
 - 남북 분단 상황의 비극과 그 극복의 촉구
- * 시적 화자의 태도 : 민족 분단의 암울한 상황을 고발하면서 전쟁이 아닌, 민족의 대화와 화해만이 공존의 길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상호간의 적대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완곡어법(의문형)을 구사하여 분단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이지적 자세를 보임
- * 화자의 현실 인식 태도 : 화해와 공존

■ 이해와 감상

1956년<조선일보>신춘 문예에 당선된 작품이다. 남북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고 대치해 있는 휴전선의 긴장을 제재로 삼은 것으로, 당시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던 불안과 긴장과 절망감이 호소력 있게 표현되고 있다. 특히 전체적으로 ‘~는가’와 같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역사 현실에 대한 지은이의 강한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더욱 절실히 유도해 내고 있다.

물론, 이 작품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시이다. 그런데 이 시의 주제 의식은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도 신기할 것도 없다. 요즘에야 남북 정상이 만나고 민족 화해에 기초한 통일 논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를 치른 직후인 1950년대의 사정은 지금과는 현격하게 달랐다. 이 무렵은 철저한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통일관이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여진 시기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의 의의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남북의 자세 변화를 촉구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이 시가 씌어졌다는 사실 자체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대적인 억압을 뛰어넘으려는 시인의 용기와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를 선취(先取)한 시인의 자유롭고 활달한 상상력이다.

아울러, 남북이 증오와 대립의 자세를 고수할 경우 또다시 전쟁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화해를 위한 자세의 전환을 촉구한 이 시의 예언자적, 선지자적 목소리가 적절한 비유적 형상과 어우러지면서 자아내는 시적 감동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작품 해설 2

1. **지은이** : 박봉우(朴鳳宇 1934-1990) 시인. 광주(光州) 출생. 1959년 전남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52년 <문학예술>에 “석상의 노래” 당선. 195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휴전선” 당선. 1958년 전남문화상 수상. 1962년 제8회 현대문학상 수상. 시집으로는 <휴전선>(1957), <4월의 화요일>(1962), <황지(荒地)의 풀잎>(1976), <서울 하야식(下野式)>(1985), <딸의 손을 잡고>(1987), <나비와 철조망>(1991) 등이 있음

2. **이해와 감상**

이 시는 6.25 이후 민족 분단의 아픔을 격정적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다. 각 연마다 의문사로 종결하면서 안타까움의 심정을 영탄적으로 표출한다. 더구나 사투리를 직접 써서 삶과 밀착된 정서를 대변한 것이 특징이다.

‘산’은 국토의 대유(代喻)이며, ‘얼굴’은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마주 향한 산과 산은 그대로 국토 분단의 적대적 상황을 뜻한다. 이 분단 상황에서 민족은 분열되어 서로 절실하고 대결한다. 그러한 상황은 민족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며, 이 부정 속에서는 언젠가 커다란 분쟁이 일어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대로 불안 속에 안주(安住)하고 있어서 되는가 하고 안타까워한다.

‘꽃’은 연약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순간 피었다 결국 지고 마는 것으로 그려졌다. 그러므로 ‘꽃’은 일시적 평화 상태나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 놓인 한시적인 삶을 뜻한다.

서로 질시(嫉視)하는 음산한 풍경, 이제 고구려인들이 가졌던 진취적 정신은 사라졌는가? 신라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들은 이제 없어지고 말았는가? 옛날에는 동쪽끼리 반목과 질시에만 젖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의 상황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별들은 흩어져 있어도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 민족을 품은 조국은 그렇지 못하다. 불안한 얼굴로 살아야만 하는 의미, 그런 이념 따위는 애초에 이 국토 안에 있었던가?

꿈만 같았던 전쟁은 가고, 나무 한 그루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허망한 공간으로 현실을 인식한다. 우리를 지켜 줄 울타리 하나 없이 모두 알몸을 드러낸 채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을 ‘광장’이라 표상한다. 정맥이 끊어진 것과 같은 역사의 피해함, 인간성의 상실과 파괴의 상흔(傷痕)은 아직도 가시질 않았는데, 여전히 절망만 존재하는 시대 현실과 삶의 고단함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탄한다.

휴전 상태인 지금은 겉으로는 조용한 듯하지만 언젠가는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야 말 전운(戰雲)이 늘 감돈다. 지난날 한 번 겪었던 그 참담함을 다시 겪으라는가? 그저 이념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생겨 버린 이 불안한 상황을 얼마나 더 지내야 하는가. 우리의 길은 이 밖에는 또 없는가 하고 가슴을 친다.

불신으로 마주한 이 불안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다시 터질 전쟁을 예상하면서 연약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삶에 안주해서 되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3. **시구 풀이**

- ①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 ‘화산’으로 연상되는 불의 이미지를 통해 남북 간의 충돌에 의해 빚어질 또 다른 전쟁을 암시한다.
- ②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 : ‘요런 자세’는 남북한의 적대 관계를 바라보는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시구이다. 여기서 ‘꽃’은 중요감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을 상징한다.
- ③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끝끝내 하나인데.....** : 남북 분단의 안타까움을 표현한 구절로,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과 대조된다.
- ④ **모든 유형은 ~ 이야기뿐인가.** : 한국 전쟁 직후의 황폐한 현실, 또는 현실의 불모성을 노래한 부분으로, 전쟁이 가져온 피해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분단에 대한 화자의 인식**



5. **표현상의 특징**

- ① 화자는 휴전선이라는 역사적인 산물을 시상 발흥의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감정, 바람을 격정적인 어조로 노래했다.

- ② 전체적으로 '~는가'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을 구사하여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독자들의 정서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산문 율조의 형식과 1연을 결미에 다시 배치하는 수미 쌍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비슷한 통사 구조의 문장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암시적인 시어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감정의 과도한 분출을 억제하고 있다.

6. 핵심 정리

- ①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참여시
- ② 율격 : 내재율(산문적 리듬)
- ③ 성격 : 상징적
- ④ 어조 : 분단 극복을 열망하는 목소리
- ⑤ 제재 : 휴전선
- ⑥ 주제 : 민족 화해와 분단 극복에 대한 열망. 분단의 비극과 그 극복 의지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문 열자 [선뜻!]

봄눈을 보는 놀라움(화자의 느낌, 영탄법)

[] 봄에 대한 놀라움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눈내린 산이 눈앞에 보인다
감각적(공감각, 시각의 촉각화)

문 열자 보이는 먼산

우수절(雨水節) 들어

봄비가 내리는 때

바로 초하루 아침,

시간적 배경

우수절 초하루의 아침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와

봄의 생명력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
산꼭대기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서늘하고 이마로 부딪침, 바로 앞에 있다
눈덮인 산이 이마에 닿을 듯 가깝게 보여 서늘한 기운이 느껴진다

가깝게 느껴지는 눈덮인 산

얼음 금 가고 바람 새로 따르거니

얼음이 녹고 바람이 분다(변화하는 자연의 모습)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감각적(공감각, 시각의 후각화)
< > 봄을 맞는 반가움

봄이 오는 자연의 모습

용송그리고 살아난 양이

추위에 움츠리다가 봄을 맞아 살아난 생명
추위를 이기고 다시 찾아 온 봄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

꿈만 같아 서럽다
꿈만같다 낯설다
영탄법

봄을 맞는 화자의 기쁨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돌고

옴짓 아니 기던 고기 입이 오물거리는,

봄날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시각적, 감각적)

생동감 넘치는 봄날의 자연

꽃 피기 전 철 아닌 눈에

겨울 뜻밖의 눈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싫어라>.

겨울옷

봄기운을 느끼고 싶은 마음
겨울이 가는 아쉬움

차가운 눈 속에서 더 선명하게 봄을 느끼고 싶음

▣ 작품 해설 1

어구풀이

- * 서늘옹고 : 서늘하고
- * 이마받이 : 이마를 부딪치는 짓
- * 웅숭그리고 : 궁상스럽게 몸을 웅그리고
- * 아니기던 : 아니하던
- * 핫옷 : 솜을 두어서 지은 옷

■ 구절 풀이

- (1) 선뜻! : 아침이 되어 문을 열었다. 봄 날씨라고 생각했던 화자는 의외의 추위를 느낀다. 그러한 추위가 의외임이 '선뜻'이라는 어휘 뒤의 느낌표를 통해 드러난다.
- (2) 먼 산이 이마에 차라 : 먼 산은 시각적인 심상이다. 이마에 차다는 것은 촉각적 심상이다. 뒤이어지는 내용을 고려해볼 때 먼 산꼭대기에 춘설이 내려 쌓여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화자의 몸에서 산꼭대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마이다. 산꼭대기에 눈이 쌓인 모습을 보니 내 머리 꼭대기인 이마가 다 차가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
- (3) 雨水節 들어 / 바로 초하로 아츰 : 우수절은 24절기중 하나이다. 2월 19일경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뜻의 입춘과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뜻의 경칩 사이에 있는 시기이다. 봄비가 내려 물기운이 가득찬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작품의 시간적 배경이다.
- (4) 새삼스레 : 7연에 나오는 '철 아닌 눈'과 의미상 통한다.
- (5) 이마받이하다 : 실제로는 멀리 있는 산과 이마받이한다고 하는 것은 곧 거리의 소멸을 의미한다. 산과 나의 거리를 과감히 생략시켜 버리고 차가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느끼는 차가움이라기보다 내적 감각으로 느낀 차가움이다. 이와 같은 차가움은 이후 봄의 생동감으로 연결된다.
- (6) 여름 글가고 바람 / 새로 따르거니 : 얼음에 금이 가는 것은 해빙기의 봄을 의미한다. 바람이 새로 따르는 것 역시 칼날 같이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이 아닌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이다. 봄의 자취를 느낄 수 있다.
- (7) 흰 옷고름 절로 / 향긋롭어라. : 봄바람에 산뜻하게 훑날리는 옷고름의 모양이 마치 고운 향기가 피어 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봄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8) 웅숭거리고 살어난 양이 / 아아 꿈 같기에 설어라 : 봄을 맞아 생명을 찾기 위해 지금껏 겨울을 보내며 살아온 고난의 과정이 서럽다는 뜻이다.
- (9) 움짚 아니기던 : '아니 기던'은 '아니하던'의 의미입니다. 곧 '움직이지 않던'의 뜻이다.
- (10) 철아닌 눈 : 겨울의 마지막 기승이지요. 제목인 춘설이 가르키는 마지막 추위입니다.
- (11) 핫옷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 : 핫옷을 벗는 것은 덮기 때문에 벗는 것인데, 그 옷을 벗고 추워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지막 추위를 몸으로 맞으며 곧 다가올 봄을 기다리는 설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핵심 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구성

- * 1~3연의 핵심 내용 : 봄이 되기 전의 서늘한 날씨
- * 4~5연의 핵심 내용 : 자연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
- * 6연의 핵심 내용 : 봄의 생동감
- * 7연의 핵심 내용 : 봄을 기다리는 마음

■ 주제 : 이른 봄에 내린 '춘설'에 대한 감각적인 느낌

▣ 이해와 감상

이봄추위를 한자말로 춘한(春寒)이라 하고 순수한 우리 토박이말로 꽃샘이라고 한다. 손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다. 시적인 감각으로 볼 때 춘한과 꽃샘은 분명 한 자리에 놓일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꽃샘'은 어감도 예쁘지만 꽃피는 봄을 샘내는 겨울의 표정까지 읽을 수가 있어 미소를 자아내게 한다. 계절까지도 이웃 친구처럼 의인화하며 살아왔

던 한국인의 유별난 자연감각이 이 한 마디 말 속에 축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꽃샘추위의 한국적 정서를 보다 시적인 세계로 끌어올린 것이 정지용의 <춘설>이다. 그리고 지용은 그 시에서 '문열자 선뜻! 먼 산이 이마에 차라'라는 불후의 명구를 남겼다. '시는 놀라움이다'라는 고전적인 그 정의가 이처럼 잘 들어맞는 시구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시간과 공간의 관습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굳은살이 박힌 일상적 삶의 벽이 무너질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 그 '놀라움'이며 '시'이다.

<춘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침에 문을 여는 순간 속에서 출현된다. 밤사이에 생각지도 않은 봄눈이 내린 것이다. 겨울에는 눈, 봄에는 꽃이라는 정해진 틀을 깨뜨리고 봄속으로 겨울이 역류(逆流)하는 그 놀라움이 <춘설>의 시적 출발점이다. 그것이 만약 겨울에 내린 눈이었다면 '선뜻'이라는 말에 느낌표가 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그냥 차가움이 아니다. 당연히 아지랑이나 꽃이 피어날 줄 알았던 그런 철(시간), 그런 자리(공간)에 내린 눈이었기 때문에 그 '선뜻'이란 감각어에는 '놀라움'의 부호가 요구된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움'은 손발의 시러움같은 일상의 추위와는 전혀 다른 '이마'위의 차가움이 된다. '철 아닌 눈'에 덮인 그 산은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산이 아니라 이마에 와 닿는 촉각적인 산이며,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이 아니라 '이마받이'를 하는 '서늘옴고 빛난' 거리가 소멸된 산이다. 그렇게 해서 '먼 산이 이마에 차라'의 그 절묘한 시구가 태어나게 된다.

'이마의 추위'는 단순한 눈 내린 산정의 감각적 묘사에서 그치지 않고 '춘설'과 '꽃샘추위'에 새로운 시적 부가가치를 부여한다. '춘설이 분분하니 필동말동하여라'의 옛시조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같은 한시의 상투어들은 봄눈이나 꽃샘추위를 한결같이 봄의 방해자로서만 그려낸다. 그러한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내면적인 '이마의추위'로 만들어 낸 이가 시인 지용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꽃 피기전 철도 아닌 눈'은 어느 꽃보다도 더욱 봄을 봄답게 하고 그 감각과 의미를 새롭게, 그리고 진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봄눈이 내린 산과 '이마받이'를 한 지용은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롭어라'라고 노래한다. 꽃에서 봄향기를 맡는 사람은 시인이 아니다. 일상적 관습 속에서 기계적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지용과 같은 詩人은 오히려 봄눈과 같은 겨울의 흔적을 통해 겨울옷의 옷고름에서 봄향기를 감지한다. '새삼스레……'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듯이 지용에게는 시간을 되감아 그것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금가고 파릇한 미나리의 새순이 돋고 물밑에서 꿈쩍도 않던 고기입이 오물거리는 그 섬세한 봄의 생동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겨울과 봄의 그 미세한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마의 추위'(꽃샘추위)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활짝 열린 봄의 생명감은 '웅숭거리고 살아온 겨울의 서러운 삶'을 통해서만 서로 감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봄눈이야말로 겨울과 봄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끝내는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그 차이화를 보여주는 '놀라움'이 되는 것이다. 봄의 시는 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용의 상상력에 의하면 그것은 봄눈에 덮인 서늘한 피뿌리에 혹은 얼음이 녹아 금이 간 그 좁은 틈사이에 있다. 그래서 지용의 시 <춘설>은 '햇옷 벗고 도로 칩고 싶어라'로 끝나 있다. 달리는 자동차 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달리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우리의 몸은 앞으로 쏠리게 되고 그 충격을 통해 비로소 달리는 속도를 느낀다. 봄눈이 바로 봄의 브레이크와도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봄눈은 밤낮 내리는 것이 아니잖는가. 그러므로 꽃샘이나 봄눈을 통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겨울의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꺼운 솜옷을 벗고 도로 추위를 불러들여야 한다. 새삼스레, 철 아닌, 도로와 같은 일련의 시어들이 환기시켜주는 것은 시간의 되감기이다. 그래서 '햇옷 벗고 다시 칩고 싶다'라고 말하는 지용의 역설 속에서 우리는 스위스의 산 골짜구니 깊숙이 묻혀살던 '드퀸시'의 오두막집을 상상하면서 쓴 '보들레르'의 글 한 줄을 생각하게 한다. 시인의 방과 그 나날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것은 '문열기'이전의 닫혀져 있던 방, 햇옷을 입고 있는 좁은 공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우수절 들어 바로 초하루 아침' 이전, 지용 자신의 표현대로 하면 '웅숭거리며'사는 겨울 시간이다. 바깥이 추울수록 그 내부의 공간은 한층더 아늑하고 따뜻하며 눈보라가 치는 긴 밤일수록 그 시간은 더욱 고요하고 천천히 흐른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닫혀진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문을 열고 바깥 세상과 '이마받이'를 하는 행

복한 충격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햇옷 벗고 도로 칩고 싶다」는 지금껏 어느 누구도 느끼지도 말하지도 못하던 소원을 품게 된다. 그러한 소망의 원형이 바로 '봄눈'이며 '꽃샘추위'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지용에 의해서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 <이어령 교수>

■ 작품 해설 2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감각적, 영탄적
제재	춘설(봄눈)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의의	① 봄의 도래를 노래한 고전 문학의 전통을 계승함.('대춘부', '상춘곡' 등) ② 눈과 봄의 관계를 창의적 관점에서 해석함.		
특징	①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구사하여 봄의 도래를 생생하게 묘사함. ② 짧고 간결한 표현으로 봄눈의 이미지와 봄의 정경을 나타냄.		

작품의 구성

연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3연	초봄에 눈 덮인 산봉우리를 본 충격	시적 화자가 창문 너머로 눈 덮인 산을 본 놀라움을 말하고 있음.
4~6연	주변의 봄 풍경과 그로부터 느껴지는 설렘	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음.
7연	차가운 눈 속에서 봄을 더 선명하게 느껴보고 싶은 마음	화자가 다가오는 봄의 생동감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말하고 있음.

시의 의미와 표현

연	의미	표현
1~3연	따스한 봄 기운을 기대하던 중 뜻밖의 눈을 맞이한 놀라움	· 영탄적 표현 ('문 열자 선뜻! / 먼 산이 이마에 차라.')
4~6연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대한 감탄	· 공감각적 표현 ('서늘옹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7연	두꺼운 솜옷을 벗어던지고, 어느새 가까이 다가와 있는 봄의 싱그러움을 온몸으로 느껴 보고 싶은 소망	·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 '미나리 파릇한 새순 돋고') · 역설적 표현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감각적 이미지와 표현 효과

감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빛난', '흰 옷고름', '파릇한 새순'
	촉각적 이미지	'이마에 차라', '서늘옹고'
	후각적 이미지	'향기로워라.'
표현 효과	봄의 생동감과 신선함이 생생하게 잘 전달됨.	

시구에 나타난 화자의 바람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	⇒	겨우내 입던 두꺼운 솜옷을 벗어 버리고, 막바지 추위며 그것을 뚫고 찾아오는 봄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껴 보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냄.
--------------------	---	---

역사적 상황을 통한 해석

흰 옷고름	⇒	이 작품의 창작 시기가 일제의 압박이 극심해졌던 1938년임을 고려함.	⇒	백의민족(白衣民族)으로 일컬어지는 한민족을 연상시키므로, 시인의 산수자연이 민족의 한(恨)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	---	---	--

(나) 다시 읽는 한국 시 '춘설'(이어령)

갈래	평론	성격	해설적, 비유적
제재	정지용의 '춘설'	주제	'춘설'에 담긴 창의적 사고
특징	① 시조, 한시, 외국 시 등 다른 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인용함. ② 시의 본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여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개함.		

작품의 구성

	주요 내용	세부 내용
처음	'춘설' 1~3연 해설	글쓴이는 정지용 시인이 '춘설'에서 생각지도 않은 봄눈을 본 놀라움을 '이마의 추위'로 나타냈다고 설명하며, 추위에 대한 시인의 발상과 표현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중간	'춘설' 4~6연 해설	글쓴이는 '춘설'을 통해 시인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할. 일반적으로는 꽃에서 봄 향기를 맡지만, 정지용 시인은 봄눈과 같은 겨울의 흔적을 통해 조금은 뜻밖의 대상에서 봄을 느끼기 때문임.
끝	'춘설' 7연 해설	그간 시에서 '봄눈'이나 '꽃샘'과 같은 존재는 봄이 오는 것을 막는 존재로만 여겨졌는데, 정지용 시인의 '춘설'을 통해 이들은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말할.

'춘설'의 시구가 창의적인 이유

시구	이 부분이 창의적인 이유
'먼 산이 이마에 차라.'	추위에 대한 묘사가 이전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임. → 외적인 '손발의 추위'를 내면적인 '이마의 추위'로 바꾸어 놓음.
'햇옷 벗고 도로 출고 싶어라.'	눈과 추위에서 오히려 봄의 기운을 느낀다는 점이 참신하기 때문임. → 한국 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봄의 휘방꾼'이었던 '봄눈'과 '꽃샘'이 봄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시학의 주인공으로 바뀌게 됨.
'웅숭거리며 살아난 양이, 아아 꿈 같기에 설위라.'	화자는 추워서 잔뜩 웅크리고 지낸 겨울이 서러웠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모든 괴로움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질 정도로 봄의 도래를 만끽하고 있음. 이런 복합적인 심리가 짧은 한 문장 안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됨.

옛시조 및 한시 VS '춘설'

옛시조와 한시	의미
'춘설이 난분분하니 필 동 말 동 하여라.'	'청구영언'에 나오는 시조의 한 구절로 '춘설'을 봄의 방해자로 그리고 있음. 봄철이 돌아와 매화가 피어야 하는데, 춘설로 인해 필지 말지 모르겠다는 뜻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중국 당나라 시인인 동방규의 한시 '소군원(昭君怨)'에 나오는 시구임.



'춘설'	눈을 봄의 방해꾼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전통적인 사고라면, '춘설'은 이를 뒤집어 눈을 통해 봄을 느낀다는 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임.
------	---

'춘설'의 뛰어난 감각적 표현

시구	감각적 표현
'먼 산이 이마에 차라'	눈 덮인 산을 보며 느끼는 차가움을 '시각'이 아닌 '촉각'으로 표현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생생한 느낌을 줌.
'서늘옴과 빛난 이마발이하다.'	먼 산이 바로 눈앞에 마치 이마를 부딪칠 듯 서 있는 것처럼 표현한 구절임. 먼 곳의 풍경이 선명히 내다보이는, 눈이 개고 난 뒤 봄날 아침의 맑은 날씨를 잘 나타냄.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문 해설 1

사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 실재하지 않은 환상적 세계
(눈) → 흰색 이미지(순수하고 맑은 생명감 & 생명을 활동을 자극하고 봄을 재촉함)
⇒ 사갈의 그림 속의 세계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 봄의 생명감을 실감 있게 형상화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바르르 띈다.
→ 청색이미지<일상적 언어 서술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중시한 표현(생동감 있는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과장적으로 그림)>
⇒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생명감

바르르 띈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 눈송이가 날려 얼굴에 부딪히는 것을 활유법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 활유법(능동적인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시 전체가 주는 '생명감'과 조화를 이룸)
하늘에서 내려와 사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 사갈의 마을에 덮는 눈의 모습

3월(三月)에 눈이 오면 (3월의 눈) → 생명을 주는 힘
사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쥐똥만한 겨울 열매) → 볼품없는 메말랐던 생명체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 초록색 이미지(메말른 겨울 열매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함)
⇒ 눈 속에 소생하는 생명

밤에 아낙들은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궁이에 지핀다.
→ 붉은색 이미지<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불을 지피는 아낙들의 마음속에 곱게 흐르는 봄의 생명감을 떠올리게 함)>
→ 새봄의 아름다움을 흰눈과 아궁이 속의 불의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이미지화함
⇒ 맑고 순수한 생명의 이미지

■ 어구 풀이

- 관자놀이 : 귀와 눈 사이의 태양혈이 있는 곳.
- 쥐똥만한 : 조그만 크기의 물체를 일컫는 말.
- 올리브 : 목서과의 상록 교목.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황백색의 향기로운 꽃이 핀다.
- 지핀다 : 아궁이나 화덕 등에 나무를 넣어 불을 피운다.
- 사갈의 마을에는 3월(三月)에 눈이 온다. : 사갈의 마을은 실재의 공간이 아니고 환상적인 세계이다. 특별히 사갈의 마을이라고 한 것은 사갈의 특정 그림('눈 내리는 마을', '나와 마을')에서 연상된 것일 수 있으나 사갈이 환상적이고

초현실주의적 그림을 많이 그린 화가라는 데서 연상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

- 봄을 바라고 섰는~바르르 떠다. : 봄의 생명감이 동맥과 말초 신경을 거쳐 정맥에까지, 곧 전신에 퍼져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일상적 언어 서술과는 거리가 먼 이미지를 중시한 표현이다.
- 눈은 수천~굴뚝을 덮는다. : 수많은 눈송이들이紛紛히 날리며 지붕과 굴뚝을 덮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을 활유법으로 사용하여 능동적인 현상으로 묘사함으로써 시 전체가 주는 '생명감'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 사갈의 마을의~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 3월의 눈이 겨울 동안 메말랐던 열매들에게 올리브빛(노란빛이 도는 녹색)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 밤에 아낙네들은~아궁이에 지핀다. : 불은 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으로, 아낙들의 마음 속에 곱게 흐르는 봄의 생명감이 연상된다

▣ 본문 해설 2

샤갈의 마을에는 삼월에 눈이 온다
(샤갈은 환상적이고 초현실 주의적 그림을 많이 그림)

가상의 공간
향수를 꿈속의 한 장면처럼 표현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작품
삼월에 오는 눈은
봄과 겨울이 함께하는 환상적 분위기
눈은 생명의 활동을 자극하고 봄을 재촉함

눈이 내리는 샤갈의 그림 속 세계-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이
 퍼져가는 봄의 생명감

바르르 떠다
봄의 생동감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생명감

바르르 떠는 사나이의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靜脈)을 어루만지며
눈은 수천 수만의 날개를 달고
 정맥과 눈
색채 대비(청색, 흰색)

눈이 내리는 모습(활유법)
하늘에서 내려와 샤갈의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다.

마을의 지붕과 굴뚝을 덮는 눈

삼월에 눈이 오면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메말랐던 열매

다시 올리브빛으로 물이 들고
 생명을 부여(초록색)

밤에 아낙들은
 향토적 시어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아낙네의 따뜻한 마음

아궁이에 지핀다.
한국적 정서

맑고 순수한 생명감

▣ 작품 해설 1

지은이 : 김춘수(金春洙, 1922-) 시인. 경남 충무 출생. 사물의 사물성(事物性)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시를 주로 쓰며, 특히 시에 있어서 언어의 특성을 다른 어떤 시인보다 날카롭게 응시하며 존재론적 세계를 이미지로 노래하였다.

갈래 : 자유시. 서정시

율격 : 내재율

성격 : 감각적. 회화적. 환상적

어조 : 차분하면서도 객관적임

표현 : 연을 나누지 않은 전연시(全聯詩)의 형태. 현재형의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는 이미지를 표현. 각 문장들은 산문적 의미 전달이 단절된 채, 서술적 이미지만 연결됨

심상 : 시각적

구성 :

- 1행 샤갈의 그림 속의 세계
- 2-4행 사나이의 모습에 나타난 생명감
- 5-9행 샤갈의 마을을 덮는 눈의 모습
- 10-12행 눈 속에 소생하는 생명
- 13-끝 맑고 순수한 생명의 이미지

제재 : 눈

주제 : 맑고 순수한 생명감

출전 : <김춘수 시선집>

▶ 작품 해설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신비스러움과 자연의 조화로운 정신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현대적 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김춘수는 관념의 시를 쓰던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면 관념과 의미를 해체하고 대상이 갖는 순수한 의미만을 추구하는 무의미의 시를 쓴다. 이 시도 그런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시의 각 행들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하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 나오는 샤갈의 마을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적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배경으로 ‘눈’과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불’ 등의 이질적인 시어들은 모두 독자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이라는 공통적인 심상을 연상시켜 준다.

<참고> 김춘수의 ‘무의미의 시’에 대한 시론

사생(寫生)이라고 하지만, 있는 실제 풍경을 그대로 그리지는 않는다. 대상과 배경과의 위치를 실재와는 전혀 다르게 배치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실지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만들게 된다. 풍경의, 또는 대상의 재구성이다. 이 과정에서 논리가 끼어 들게 되고, 자유 연상이 개입된다. 논리와 자유 연상이 더욱 날카롭게 간여하게 되면 대상의 형태는 부수지고, 마침내는 대상마저 소멸한다. 무의미의 시가 이리하여 탄생한다.

그에 의하면 의미는 산문에 보다 어울리지만 무의미는 시의 형식에만 알맞다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무의미는 산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는 시 고유의 영역임을 주장한다. 이것은 의미의 시에 익숙했던 우리의 전통적인 시관(詩觀)에 도전한 것이었다. 또한 사물에 대한 일체의 판단이나 선입관을 중지하는 방식을 통하여 의미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의 60년대 시 ‘처용’, ‘처용 단장’,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은 이런 대표적인 작품의 예이다.

▣ 작품 해설 2

■ 갈래 : 서정시, 자유시, 이미지즘 시

■ 성격 : 감각적, 회화적, 환상적

■ 어조 : 차분하면서도 객관적임

■ 심상 : 시각적

■ 표현상의 특징

- 현재형 시제 사용(생동감 있는 생명의식 표현에 적합)
 - 정맥, 눈,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 올리브 빛, 아름다운 불⇒ 관념적 속성(시련,고난.)을 거부하고 새로운 이미지 창출 (신선한 생명감 부여)
 - 연을 나누지 않았다.
 - 각 문장들은 산문적 의미 전달이 단절된 채, 서술적 이미지만으로 연결
- 주제 : 순수하고 맑은 생명 감각
 ■ 의의 : 봄의 생명감을 이미지로 포착하는 데 성공한 작품

★ **이미지의 연결-맑고 순수한 생명감**

- 눈 : 생동감 있게 온 천지를 덮는 주(主) 제재
- 새로 돋은 정맥(靜脈) : 퍼져 나가는 봄의 생명감
- 올리브빛 : 메마른 겨울 열매들에게 생명을 부여함
- 불 : 아낙의 맑은 마음

■ **이해와 감상**

맑고 순수한 생명감을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하여 형상화하였다. 또한, 의미의 전달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를 순수한 상태 곧 무의미의 시, 절대시를 이룩하려 시도했다.

김춘수는 관념의 시를 쓰던 50대를 거쳐 60년대에 이르면 관념과 의미를 해체하고 대상이 갖는 순수한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무의미의 시를 쓴다. 이 시도 그런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시의 각 행들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하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 나오는 샤갈의 마을은 실재(實在)하지 않는 환상적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배경으로 '눈'과 '새로 돋은 정맥', '불' 등의 이질적인 시어들은 모두 독자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이라는 공통적인 심상을 연상시켜 준다.

☞ 샤갈(Marc Chagall.1887?~)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화가.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괴이하고 환상적이며 특이한 화풍으로 초현실주의 미술에 영향을 끼쳤다

■ **이해와 감상**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인간 존재의 신비스러움과 자연의 조화로운 정신을 보여 주고 있는 시이다. 현대적 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김춘수는 관념의 시를 쓰던 1950년대를 거쳐 1960년대에 이르면 관념과 의미를 해체하고 대상이 갖는 순수한 이미지만을 추구하는 무의미의 시를 쓴다. 이 시도 그런 계열에 속하는 작품이다. 따라서, 이 시의 각 행들은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심상들을 감각적인 언어로 포착하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 나오는 샤갈의 마을은 실재하지 않는 환상적 세계이다. 이런 세계를 배경으로 '눈'과 '새로 돋은 정맥', '올리브빛', '불' 등의 이질적인 시어들은 모두 독자적인 이미지를 가지면서도 순수하고 맑은 생명감이라는 공통적인 심상을 연상시켜 준다.

■ **이해와 감상**

단연 형태로 씌어진 이 작품은 순수한 생명 의식을 잘 포착했다. 이 작품 속 공간인 '샤갈의 마을'은 가공의 세계이다. 화가인 샤갈의 그림인 <눈내리는 마을>이 연상이 되기도 하지만, 샤갈의 화풍인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 세계와도 연결이 된다. 시적 의미를 형상화한다기보다 그저 마음 속에 떠오르는 '순수한' 심상들을 엮어 놓았는데, 이는 순수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절대시(혹은 무의미시)추구의 경향을 보인 김춘수 시인의 60년대 작품 경향을 잘 드러내 준다. (50년 대의 관념적인 시인 <꽃> 시리즈 작품과는 구별된다.)